2010
인천남구문화지표 및 문화수요조사 연구

인천광역시 남구학산문화원
www.haksanculture.or.kr

2010

인천남구문화지표 및 문화수요조사 연구



인천광역시 남구학산문화원
www.haksanculture.or.kr

서 문

남구학산문화원은 지난 2003년 개원 이후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주민과 남구 구민들이 스스로 자신들의 문화를 만들고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돕는데 힘 써왔습니다.

이렇게 지역의 문화를 나누고, 역사를 나누며, 삶을 나눠온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고, 새로운 문화원의 미래를 그리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문화원의 중장기적인 발전계획과 문화 정책 수립을 위해, 합리적 기준과 방향을 내다보는 기초자료를 마련코자 지역의 여러 연구자와 문화관련 전문가, 문화원 직원들이 프로젝트팀을 꾸려 '인천남구문화지표 및 문화수요조사 연구'를 실시하였습니다.

2010년 처음 실시한 인천남구문화지표 및 문화수요조사 연구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천남구문화지표의 체계 및 특징과 문화지표에 대한 분석결과부분입니다. 인문사회환경, 문화환경, 문화자원, 문화활동 등으로 구분한 구 단위 문화지표로서 보다 구체적인 분석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 평가항목을 추가하였고, 또한 평가항목 중 동 단위의 분석이 유의미한 경우에는 동간 비교분석을 실시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구민들이 "문화예술을 얼마나, 그리고 어떻게 즐기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실시한 수요조사 부분입니다. 수요조사의 경우 리서치회사를 통한 설문을 진행하지 않고 별도 인력을 확보해 동별 인구통계에 준해 성별, 연령별 비례에 가급적 맞추는 방식으로 추진하였습니다. 그 결과, 총 684부의 설문을 회수하여 이중 유효설문 618부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지표조사와 수요조사의 결과를 기반으로 자문위원들의 의견과 프로젝트팀의 논의를 거쳐 남구에 필요한 문화정책의 방향과 과제들을 제시하였습니다.

이 보고서가 남구의 문화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넉넉지 못한 예산으로 진행된 연구임에 합당한 사례를 해드리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설문항목 개발부터 보고서 발간까지 성심으로 참여하며 도움주신 자문위원들과 공동연구자들께 감사합니다. 또한 자료요청에 협조해주신 관계기관 담당자, 그리고 무엇보다 설문에 응답해 주신 모든 구민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0년 12월

남구학산문화원 원장 이 선 규

연 구 진

연구책임자 : 최 혜 은 (남구학산문화원 사무국장)

공동연구자 : 안 태 호 (예술과 도시사회연구소 연구원)
임 고 은 (2008 인천문화지표 책임연구원)

연구보조원 : 김 영 경 (남구학산문화원 직원)
이 의 록 (남구학산문화원 직원)

자 문 위 원

이 현 식 (인천문화재단 사무처장)
김 명 석 (인천남구 문화홍보실장)
손 동 혁 (주안영상미디어센터 소장)
신 성 희 (인천발전연구원)
조 승 헌 (인천발전연구원)

Contents

2010 인천남구문화지표 및 문화수요조사 연구 목차

머리말 – 인천남구문화지표 조사의 의미 · 11

제1장 서론 · · · · · · · · · · · · · · · · · · ·

Contents

2010 인천남구문화지표 및 문화수요조사 연구 표목차

[표 1] 인천남구문화지표 항목 ····· 22
[표 2] 인문사회환경 평가지표 ····· 24
[표 3] 인천광역시 군구별 면적 및 인구 ····· 25
[표 4] 연령별 인구분포 ····· 25
[표 5] 노령인구비율 ····· 26
[표 6] 군구별 인구밀도 ····· 26
[표 7] 동별 인구밀도 ····· 27
[표 8] 자동차도로밀도 ····· 28
[표 9] 군구별 주택보급률 ····· 28
[표 10] 군구별 녹지지역비율 ····· 30
[표 11] 군구별 대기오염도 ····· 31
[표 12] 군구별 도시공원 수 및 면적 ····· 32
[표 13] 도시공원 1개소 당 인구 및 면적 ····· 32
[표 14] 경찰서 및 지구대 1개소 당 인구 ····· 34
[표 15] 경찰서별 범죄 검거율 ····· 35
[표 16] 교원 1인당 학생 수 ····· 36
[표 17] 학급 1개당 학생 수 ····· 36
[표 18] 군구별 인구 1인당 예산 ····· 37
[표 19] 동별 인구 1인당 예산 ····· 38
[표 20] 군구별 공무원 1인당 인구 ····· 39
[표 21] 동별 공무원 1인당 인구 ····· 40
[표 22] 군구별 재정자주도 ····· 42
[표 23] 군구별 인구 1인당 지방세 부담액 ····· 43
[표 24] 군구별 인구증가율 ····· 44
[표 25] 인구 천명당 외국인 수 ····· 45
[표 26] 사업체 종사자 수 ····· 46

Contents

2010 인천남구문화지표 및 문화수요조사 연구 표목차

[표 27] 문화환경 평가지표 ····· 47
[표 28] 시설 유형별 1개소 당 인구 ····· 48
[표 29] 등록공연장 1개소 당 인구 및 인구 천명당 객석 ····· 48
[표 30] 남구 공연장 현황 ····· 49
[표 31] 동별 공연장 1개소 당 인구 및 인구 천명당 좌석 수 ····· 49
[표 32] 군구별 전시시설 1개소 당 인구 ····· 50
[표 33] 동별 전시시설 1개소 당 인구 ····· 51
[표 34] 남구 전시시설 목록 ····· 52
[표 35] 군구별 도서관 수 및 규모 ····· 52
[표 36] 동별 도서관 1개소 당 인구 ····· 53
[표 37] 군구별 도서관 이용현황 ····· 54
[표 38] 동별 · 시설유형별 1개소 당 인구 ····· 55
[표 39] 문화관련 행정인력 수 및 비율 ····· 56
[표 40] 문화예술행정인력 비율 ····· 57
[표 41] 군구별 문화예술예산 비율 ····· 59
[표 42] 문화자원 평가지표 ····· 60
[표 43] 장르별 남구 문화예술인 수 및 비율 ····· 61
[표 44] 남구 무형문화재 관련 인력 수 및 비율 ····· 62
[표 45] 문화예술관련 학과 수 및 교수 수 ····· 62
[표 46] 문화재 수 및 비율 ····· 63
[표 47] 유형별 지역축제 수 ····· 64
[표 48] 문화활동 평가지표 ····· 65
[표 49] 군구별 문화예술 창작 및 발표활동 수 및 비율 ····· 66
[표 50] 장르별 문화예술 창작 및 발표활동 수 및 비율 ····· 67
[표 51] 군구별 문화예술강좌 수 및 비율 ····· 68
[표 52] 장르별 문화예술강좌 수 및 비율 ····· 69

Contents

2010 인천남구문화지표 및 문화수요조사 연구 표목차

[표 53] 유형별 문화예술동호회 수 및 비율 ····· 70
[표 54] 장르별 문화예술동호회 수 및 비율 ····· 70
[표 55] 평일 및 주말 평균 여가시간 ····· 90
[표 56] 동별 평일 및 주말 평균여가시간 ····· 91
[표 57] 여가활동 유형 ····· 91
[표 58] 여가생활 제한요소 ····· 92
[표 59] 동별 여가생활 제한요소 ····· 92
[표 60] 문화시설 이용경험 ····· 93
[표 61] 이용경험이 있는 문화시설 ····· 93
[표 62] 이용시설의 만족도 ····· 94
[표 63] 동별 이용시설 만족도 ····· 94
[표 64] 문화시설 이용시 우선 고려사항 ····· 95
[표 65] 동별 문화시설 이용시 우선 고려사항 ····· 96
[표 66] 남구 문화시설 이용제약 사유 ····· 96
[표 67] 동별 남구 문화시설 이용제약 사유 ····· 97
[표 68] 주로 관람하는 문화행사 ····· 98
[표 69] 문화예술행사 관람시 동반자 ····· 98
[표 70] 문화예술행사 관람목적 ····· 99
[표 71] 동별 문화예술행사 관람목적 ····· 99
[표 72] 문화예술행사 관람지역 ····· 100
[표 73] 동별 문화예술행사 관람지역 ····· 100
[표 74] 타 지역 관람사유 ····· 101
[표 75] 동별 타 지역 관람사유 ····· 101
[표 76] 남구문화행사 보완점 ····· 102
[표 77] 동별 남구문화행사 보완점 ····· 102
[표 78] 문화예술행사 정보수집 경로 ····· 103

Contents

2010 인천남구문화지표 및 문화수요조사 연구 표목차

[표 79] 문화예술활동 지불가능 금액 ····· 103
[표 80] 참여 지역축제 ····· 104
[표 81] 참여 지역축제 만족도 ····· 104
[표 82] 동별 참여 지역축제 만족도 ····· 105
[표 83] 개최 희망 지역축제 ····· 105
[표 84] 참여중인 동호회 ····· 106
[표 85] 참여의향이 있는 동호회 ····· 107
[표 86] 동호회 참여 제약사항 ····· 108
[표 87] 문화예술교육 경험 ····· 108
[표 88] 참여 의향이 있는 문화예술교육 활동 ····· 109
[표 89] 문화예술교육활동 지불가능 금액 ····· 110
[표 90] 문화예술교육활동 투자 가능 시간 ····· 110
[표 91] 문화에 대한 이미지 ····· 111
[표 92] 동별 문화에 대한 이미지 ····· 111
[표 93] 문화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 ····· 112
[표 94] 남구 문화 특성에 대한 인식 ····· 112
[표 95] 동별 남구 문화 특성에 대한 인식 ····· 113
[표 96] 남구 문화 발전을 위한 방안 ····· 114
[표 97] 문화시설 확충 기준 및 현재 건립율 ····· 117
[표 98] 동별 도서관 1개소당 인구 ····· 118
[표 99] 동별 공연장 수 및 좌석 수 ····· 118
[표 100] 동별 전시시설 1개소 당 인구 ····· 119
[표 101] 남구 문화예술인 현황 ····· 120
[표 102] 남구 문화예술인 활동 현황 ····· 121

Contents

2010 인천남구문화지표 및 문화수요조사 연구 그림목차

[그림 1] 군구별 인구밀도 ····· 27
[그림 2] 동별 인구밀도 ····· 27
[그림 3] 자동차 1대 당 도로연장 ····· 28
[그림 4] 군구별 주택보급률 ····· 29
[그림 5] 군구별 녹지지역 비율 ····· 30
[그림 6] 군구별 대기오염도 ····· 31
[그림 7] 도시공원 1개소 당 인구 ····· 33
[그림 8] 인구 천명당 도시공원 면적 ····· 33
[그림 9] 경찰서별 범죄검거율 ····· 35
[그림 10] 군구별 인구 1인당 예산 ····· 38
[그림 11] 동별 인구 1인당 예산 ····· 39
[그림 12] 군구별 공무원 1인당 인구 ····· 40
[그림 13] 동별 공무원 1인당 인구 ····· 41
[그림 14] 군구별 재정자주도 ····· 42
[그림 15] 군구별 인구 1인당 지방세 부담액 ····· 43
[그림 16] 군구별 인구증가율 ····· 45
[그림 17] 동별 전시시설 1개소 당 인구 ····· 51
[그림 18] 동별 도서관 1개소 당 인구 ····· 53
[그림 19] 군구별 도서관 대출이용 비율 ····· 54
[그림 20] 동별 · 시설유형별 1개소 당 인구 ····· 55
[그림 21] 문화관련 행정인력 비율 ····· 57
[그림 22] 문화예술행정인력비율 ····· 58
[그림 23] 문화예술예산 비율 ····· 59
[그림 24] 장르별 문화예술인 비율 ····· 61
[그림 25] 남구 이야기자원 목록 ····· 64
[그림 26] 남구 장르별 문화예술 창작 및 발표활동 ····· 66
[그림 27] 군구별 문화예술강좌 수 및 비율 ····· 68
[그림 28] 장르별 문화예술강좌 수 및 비율 ····· 69
[그림 29] 장르별 문화예술동호회 수 및 비율 ····· 70
[그림 30] 문화예술인 대비 창작 및 발표활동 비율 ····· 121

머리말

인천남구문화지표 조사의 의미

– 합리적 문화정책 수립을 통한 창조적 문화 도시로의 진전

인천남구문화지표 조사의 의미

합리적 문화정책 수립을 통한 창조적 문화 도시로의 진전

이 현 식
(인천문화재단 사무처장)

1.

공공영역에서 정책의 의미는 매우 중요하다. 공공의 재정과 각종 법규가 그런 정책의 틀 안에서 입안 · 집행되고, 이를 집행하는 사람들도 정책의 영역 안에서 움직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정책의 구체적 결과는 시민들의 일상적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시민들이 일상적 삶에서 만나게 되는 당면한 여러 문제들이 정책으로 인해 쉽게 해결될 수도 있고 더욱 복잡하게 꼬일 수도 있다.

일반적인 정책이 그렇듯이 문화 역시 마찬가지이다. 적어도 공공 영역에서 존재하는 문화는 어떤 방향에서 정책이 입안되는가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한정된 재원과 정해진 법규와 제도적 틀, 주어진 인력을 가지고 가장 효율적이면서도 주민들이 가장 절실하게 느끼는 문제들을 우선 해결해 가는 것이 당연한 상식이라면 그것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것이 바로 정책의 문제이다. 문화정책은 시민들의 문화적 삶의 문제와 밀접하게 관련되는 것이므로 어떻게 재원을 투여하고, 관련되는 제도를 정비하며 유능한 인재를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와 연관되어 있다.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할 때에는 이렇게 재원과 제도, 조직과 인력 이외에도 관습과 관행, 주민들의 정서, 지역적 특성, 정치적 환경도 고려될 필요는 있다.

그렇지만 많은 자치 단체에서, 그리고 중앙 정부에서도 실제로 정책이 입안되고 집행되는 과정을 지켜보면 '정책' 이라고 언급하기 곤란할 정도의 발상과 관행에 묶여 있는 경우가 많다. 지방 정부의 경우에는 자치단체장의 즉흥적 제안이나 정치적 고려, 지방 의원들의 정치적 이해관계나 주민들의 이익 관계, 정책 집행자들의 관료적 습성과 전문성 부족 등으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정책의 입안과 토론이 부재한 경우가 비일비재한 것이다. 중앙 정부도 지방 정부와 똑같다고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여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때가 많다. 물론 '정책' 자체의 특성을 따져보면 거기에 미리 정해진 답이 있는 것은 아닐 터이고 정책의 입안과 집행 과정도 균일하게 정리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게다가 그 과정에서 여러 변수들이 복잡하게 작용한다는 것도 충분히 예견될 수 있는 일이다. 그러나 답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최소한의 합리성, 공공성도 유지되지 못한 채, 여러 이해당사자와 이런 저런 관계의 틀 안에서 정책이 실종되는 때가 많다. 이런 과정을 지켜볼 때마다 드는 생각은 아직 한국 사회가 근대적 합리성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자괴감과 더불어 생활 민주주의의

필요성에 대한 절실함이다. 근대적 합리성이 우리 사회의 기반을 형성하는 원리로 작동하고 민주주의가 시민들의 사고방식과 생활 안에 깊이 뿌리 내리는 과정을 우리는 조금 더 겪어내야 할 듯하다.

어쨌거나, 문화 영역에서 정책 입안의 합리성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일일 터이다. 문화지표는 바로 그런 합리적 기준을 어디에서 확보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나온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요컨대 문화지표는 한 지역, 혹은 한 사회가 처해있는 문화 영역의 객관적인 상태와 현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체계라고 할 수 있다. 의사가 환자의 객관적인 몸 상태를 알고 병의 원인과 진전 상태를 알아야 정확한 처방을 내리듯이 문화지표는 한 사회가 처해있는 문화의 수준과 상태를 알게 해주는 정책 기초 자료로서 의미를 갖는다.

이런 지표들은 다른 영역에서는 이미 진작부터 많이 개발되어 왔다. 각종 경제 지표야 이미 일반인들에게도 익숙한 상태이고 환경, 복지 분야도 여러 통계 자료를 활용해서 다양한 지표를 개발하여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정리하고 있다. 이런 지표는 해당 분야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과 정책 입안을 위한 기초자료로 당연히 활용되고 있다. 그렇지만 문화 분야는 여전히 그런 지표들이 제대로 개발되어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 까닭에 문화 영역의 정책들이 입안되고 집행되는 방식은 훨씬 더 비합리적이고 주먹구구식이다. 문화를 향유하고 창작하는 시민들이나 예술가들의 요구와 상태가 고려되기보다 정치적 이벤트 성격이 강한 정책이 입안되고 집행되기 일쑤이다. 가뜩이나 문화 분야는 다른 영역에 비해 현저히 적은 예산을 배정받는 분야인데 정책 입안마저도 이렇게 주먹구구식이라면 우리 문화, 특히 공적 영역의 문화는 미래를 기대하기 힘들다. 문화지표가 모든 것을 해결하는 만병통치 처방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정책 입안의 합리적 기준과 방향을 내다보는 기초 자료로 활용되어야 하는 것은 그런 이유 때문이다.

2.

그런데 문화지표를 만드는 작업이 그렇게 단순한 일은 아니다. 지표의 영역과 범주를 정하려면 일반적으로 문화 정책이라고 말할 수 있는 분야를 두루 포함해야 하는데, 문화라는 것 자체의 범주가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가장 넓은 의미의 문화는 생활양식 일반일 터이고 가장 좁게 보자면 예술과 그 주변만을 문화라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문화지표를 만든다고 할 때 어느 관점을 택하느냐에 따라 그 영역은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다. 그렇지만 이것은 어느 관점을 선택하느냐 하는 단순 선택의 문제는 아니다. 그것은 오히려 문화를 어떻게 보고 공공영역에서 다뤄야 할 문화정책의 범주를 어디까지로 하는가, 정책의 지향점과 관심을 어디에 둘 것인가에 대한 가치론적 문제와 깊이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따라서 지표를 만들 때에 이런 원론적인 고민이 선행되어야 하며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그렇지만 원론에만 매달리고 근본적인 사고만 하면서 현실의 일을 진척시키지 않은 것도 문제이다. 원론과 근본적인 문제를 검토하되 현실을 고려해서 가능

한 영역과 불가능한 측면, 지속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대목을 잘 가려 볼 줄 아는 실사구시적 태도가 필요하다.

이보다는 조금 간단하지만 문화지표가 대상으로 하는 지역이 어느 단위인가에 따라 지표 범주가 또 달라질 수 있다. 국가 단위의 지표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의 지표가 다루는 영역이 획일적으로 같을 수는 없는 것이다. 국가 단위에서 다뤄야 할 정책 대상과 기초자치단체에서 고민해야 할 정책 대상이 겹칠 수도 있겠지만 똑같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문화지표를 검토할 때에 정책 대상의 영역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기초자치단체에서 정책의 현안이나 주요 관심사로 대두될 가능성이 높지 않은 공중파 방송국이나 대형 미디어 매체 관련 지표까지 고민해야 하는 건 아닌 것이다.

문화지표는 문화가 포괄하는 영역에 따라 대영역, 중영역, 소영역으로 나뉠 수 있는데, 명칭이야 달라질 수 있어도 이는 기본적으로 문화가 지향하는 범위와 범주에 대한 효율적이면서도 의미 있는 분류 체계로 표출된다. M. 푸코라면 이런 분류 역시 근대적 권력 의지가 관철되는 방식이라고 말하겠지만 정책의 합리적 집행을 위한 이성적 노력이라는 더 중요한 측면이 간과되어서는 안 된다. 정책의 관심사에 따라 영역을 더 만들고 더 세분화할 수도 있는데 이는 지표를 만드는 기관이나 단체의 고민 여하에 달려있을 것이다.

그런데 몇 차례 이런 지표에 관심을 갖고 연구를 진행한 경험에 비추어 보면 각 영역에 대한 가중치를 고민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본다. 예컨대 문화의 대영역을 시설, 재정, 인력, 프로그램, 제도 등으로 구별해서 지표를 개발한다고 할 때 각 영역의 가중치를 설정하는 것이 종종 간과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이 모두 똑같은 비중으로 중요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만큼 지표를 만들고 활용할 해당 단체와 기관에서 어디에 더 가중치를 두는 것이 좋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전문가 조사나 주민조사를 통해 검증할 필요가 있다. 즉 시설과 재정, 인력과 프로그램, 제도 등 5개 영역이 똑같이 중요한 비중을 갖고 있는 것인가 아닌가 검토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간략히 계량화해 본다면 이들의 총합을 100으로 가정하였을 때 각각의 영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모두 같다면 각각 똑같이 20의 비중을 갖게 될 것이고(5개의 영역이므로), 만약 시설 영역이 열악하다고 판단하는 기관에서는 시설에 대한 비중이 30으로 늘어나는 대신(열악하므로 앞으로의 상대적 비중이 커진다고 판단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다른 영역의 상대적 중요성이 그만큼 감소될 것이다. 따라서 이것은 지표를 만들어낼 때 영역과 분류에 더해서 각 분류별 가중치를 어디에 어떻게 둘 것인가에 대한 검토도 뒤따라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이는 정책 우선순위에 대한 결정에 의미 있는 참고가 되기 때문에 특히 중요하다. 단순한 예로 다른 영역보다 시설 영역의 가중치가 높게 설정되었고 여러 문화시설 가운데에서도 해당 단체나 지방정부의 현황에 비추어볼 때 공연 시설에 대한 가중치가 높게 나왔다고 한다면, 앞으로의 정책 방향을 결정할 때 문화 시설을 건립하는 것이 정책 우선순위에 놓이되 공연 시설을 먼저 짓는 것이 좋다는 판단을 하는 근거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비단 시설만의 문제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문화

를 구성하는 여러 영역에 대한 정책 우선순위와 비중을 그런 지표 조사에 의해 설정할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하려는 취지에서 시설 항목을 예로 들었을 뿐이다. 지표를 분류하는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체계 내에서도 항목간의 그런 가중치를 모두 설정해 놓고 조사가 이루어진다면 정책 판단과 결정의 합리적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문화지표의 정책 활용도도 올라갈 수 있을 것이고 정책 입안자들에게 문화지표는 여러모로 유용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

3.

이번에 남구에서 조사하여 만드는 문화지표는 과문인지는 몰라도 자치구로서는 전국 최초가 아닌가 한다. 문화지표를 조사하겠다고 결정한 것은 남구학산문화원인데 문화원에서는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사전 작업으로 이런 지표를 만든 것으로 들었다. 학산문화원이 인천광역시 남구를 기반으로 운영되는 기관이다 보니 당연히 남구의 문화 실태와 현황, 주민들의 문화 수요와 욕구에 대한 객관적인 파악이 선행되고 이를 토대로 문화원의 역할이나 과제도 합리적으로 도출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을 법 하다. 재정이 넉넉하지 못한 문화원으로서는 문화지표를 조사하겠다는 것이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터이지만 문화 정책 영역에서 해야 할 일의 방향을 고민하면서 타당하게 얻은 결론으로 생각된다.

남구가 현재는 인천의 구도심이라고 해도 인천이 1960, 70년대 외연을 확장하면서 시가지로 개발된 곳이므로 중구와 동구에 비해서는 역사가 길지 않은 곳이다. 중구와 동구가 식민지 시대 인천이 근대 도시로 성장함에 따라 도시로 개발된 곳이라고 한다면, 남구는 본격적인 산업화와 인구 이동이 시작되던 1960, 70년대에 도시로 성장한 곳이다. 주안 염전이 공단이 되었고 많은 논과 밭이 택지로 개발되었다. 도시가 커지면서 주안역 일대에 상업지역이 발달하였고 석바위로부터 옛 시민회관 4거리에 이르는 대로변에 금융가가 들어섰다. 1980년대 중반 이후 구월 신도심이 개발되고 2000년 이후에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에 따라 송도 신도시가 본격적으로 개발되면서 남구의 중심가가 퇴락해가는 것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도시의 외연적 팽창에 따라 남구는 연수구와 남동구로 분구되어 구세는 줄어들었다. 기존 시가지와 공업 지역을 중심으로 남구가 남고 나머지는 새로운 도시로 분구되어 나간 것이다.

그러므로 이런 지역의 문화적 현황이 어떠할 것인가, 또 어떤 변화가 예측되는가에 대해 본격적으로 조사될 필요는 진작부터 제기되었다. 이번 기회에 학산문화원이 주도적으로 지표를 조사하는 것은 문화원 차원의 필요성에서 비롯된 것이기는 하더라도 남구 전체로서도 의미 있는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기왕 조사할 예정이라면 인접구나 유사 규모의 인천의 다른 자치구와 비교하는 일도 필요할 것이다. 아울러 기왕에 조사된 인천 전체의 지표와도 비교 검토가 필요할 듯하다. 그래야 남구가 처한 객관적인 위치와 현황, 실태가 잘 드러날 것이기 때문이다.

주민들에 대한 문화수요조사도 병행될 예정이라고 들었는데 이는 문화지표 조사의 핵심 영역으로 주민들의 문화생활과 문화에 대한 욕구를 구체적으로 검증할 중요한 기회가 될 것으로 본다. 게다가 이번에 조사되는 문화지표와 문화수요조사는 기초자치단체답게 주민들의 실제 생활 권역을 나누어 깊이 있는 조사 계획이 수립되어 진행된 것으로 안다. 기초자치단체는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구체적 문제와 결부되어 있으므로 이런 조사 결과는 앞으로 남구가 문화 정책을 수립할 때에도 유용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남구가 최근 재정적으로 여러모로 힘든 상황에 처해 있는데 이번 조사를 통해 재정 투자 대비 효율성 높은 정책을 입안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를 바란다. 그런 점에서 이번 문화지표 조사는 남구학산문화원을 너머 남구 전체를 위해서 더없이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절차
제3절 연구의 한계 및 기대효과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민선5기 남구청의 주요비전 중 하나는 창조도시 정책이다. 도시의 창조적 역량을 성장시키기 위한 문화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는 시점이다.

남구학산문화원은 남구의 중요한 문화적 기관으로 2003년 개원 이후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주민과의 소통에 힘써왔다. 2010 인천남구문화지표 및 문화수요조사 연구는 문화원이 그 동안 쌓아온 경험과 역량을 바탕으로 남구지역의 문화환경을 조사 분석해 지역의 특수성을 체계화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남구의 문화적 자원과 인프라에 대한 정확한 내역을 파악하는 것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한 문화정책의 수립을 위해 긴요한 일이다. 그 동안 지자체에서 문화정책이 차지하는 위상은 점점 높아져 왔지만, 정확한 근거자료에 입각한 정책수립에는 일정부분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이번 2010 인천남구문화지표 및 문화수요조사 연구를 통해 남구의 문화적 현실에 적합한 문화지표 체계 및 항목을 설정하고, 그에 대한 체계적인 자료조사를 통해 현황을 파악하는 것은 문화원의 차원을 넘어 남구 전체의 문화정책이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활동이기도 하다.

문화현실에 대한 확인이 단순히 시설과 프로그램에 머물지 않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문화적 수요에 대한 파악이 필요했다. 주민들의 문화향유 실태와 문화욕구에 대해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은 향후 정책수립의 근거가 되는 동시에 주민의 삶에 밀착된 문화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어줄 것이다.

이번 연구를 통해 남구학산문화원은 중장기적 전망의 기초자료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았다. 문화원이 남구를 대상으로 각종 사업을 진행하는 만큼 지역의 현실을 파악하는 것이 가장 유력한 전망수립의 지름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남구의 문화환경과 문화수요 분석에 따른 지역 친화형 프로그램 개발의 근거를 마련할 수 있는 한편으로 문화원의 발전방향에 대한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제공할 수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이번 2010 인천남구문화지표 및 문화수요조사 연구는 두 가지 목적에서 진행되었다고 할 수 있다. 첫째는 남구학산문화원의 중장기발전계획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며, 두 번째는 인천 남구의 문화적 현실과 주민문화수요의 확인을 통해 남구문화정책의 효율성과 합리성을 제고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는 것이다.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절차

2010 인천남구문화지표 및 문화수요조사 연구의 내용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다. 첫 번째는 남구문화지표의 항목 및 조사결과이고, 두 번째는 남구의 문화수요조사 결과이다. 세 번째는 앞의 두 가지 사항을 바탕으로 추출해낸 정책제안과 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2장에서는 2010 인천남구문화지표의 체계 및 특징을 서술하고, 문화지표 조사결과가 이어진다. 2010 인천남구문화지표는 인문사회환경, 문화환경, 문화자원, 문화활동 등으로 구분하여 조사 · 분석을 진행하였다.

3장에서는 2010 인천남구문화수요조사 결과 분석을 다룬다. 문화수요조사 역시 문화지표 내에 포함되는 영역이기는 하지만, 일반통계자료와 설문조사를 통한 분석을 구분하여 수요조사를 별도의 장으로 독립시켜 서술하였다.

4장에서는 2장과 3장의 내용을 기반으로 하여 인천 남구에 필요한 문화정책의 방향과 과제들을 제시하였다.

부록에서는 2010 인천남구문화수요조사에 사용된 설문지와 남구 이야기자원 목록, 남구문화시설 목록을 첨부하였다.

이번 연구는 인천남구학산문화원 내부에 결성된 프로젝트팀을 주축으로 진행되었다. 연구에 사용된 문화지표 및 수요조사의 내용은 기존의 문화지표와 각종 연구자료들을 참고하고 지역의 유관기관 및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회의를 거쳐 작성되었다. 문화지표에 사용된 각종 데이터들은 기존의 문헌자료들을 활용하거나 행정기관 및 유관기관/단체를 통해 새롭게 확보한 것이다.

수요조사의 경우 리서치회사를 통한 설문을 진행하지 않고 별도 인력을 확보해 동별 인구통계에 준해 성별, 연령별 비례에 가급적 맞추는 방식으로 추진하였다. 그 결과, 총 684부의 설문을 회수하여 이 중 유효설문 618부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였다.

문화지표와 수요조사의 결과를 두고 프로젝트팀의 회의를 통해 정책과제를 선정하였으며 정책과제 선정과 분석에 대해 전문가들의 자문을 구해 내용을 확정짓는 것으로 연구를 마무리했다.

제3절 연구의 한계 및 기대효과

기초자치단체 단위의 문화지표가 갖는 강점은 좀 더 주민 생활에 밀접한 문화지표체계를 개발하고 단순한 통계분석이 아닌 지역특성을 보다 깊이 있게 드러낼 수 있는 분석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문화지표 조사연구의 역사가 짧고 문화예술의 특성상 통계조사만으로는 부족한 점이 많아 기초자치단체 단위에서 지역의 특성을 담아낼 수 있는 문화지표 체계나 방법론을 개발해내지 못하고 문화통계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인천남구문화지표 역시 남구 지역의 문화적 특성 및 현실을 일목요연하게 살펴볼 수 있는 문화지표를 만들고 조사하는 데는 여러 한계가 있었다.

첫째는 기초자치단체 및 동 단위 통계자료의 빈약함으로 인해 기초자료를 구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았다는 점이다. 문화분야 자체의 통계조사가 매우 불충분한 현실에서 동 단위의 문화관련 통계를 기대하기는 몹시 힘들뿐 아니라 기본적인 인문사회적 환경에 관한 통계 역시 구 또는 동 단위의 통계가 빈약해 분석의 어려움이 있었다. 이런 문제들로 이 연구에서는 기본 통계부터 시작해 구 단위, 동 단위까지의 문화관련 기초통계를 작성하는 것에도 의미를 두었다.

구 단위 문화지표 연구로서 보다 밀접하게 지역의 문화적 특성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간과 노력을 들여 직접조사를 실행해야 할 항목이 많은데 기초자치단체 단위에서 문화지표 연구에 할애할 수 있는 예산 및 인력 면에서는 한계가 있었다. 연구를 진행함에 있어 인천광역시 남구만의 문화지표 체계 및 항목을 개발하기에는 역부족인 측면이 있었으나 2008년 인천문화지표가 조사된 바 있어 대체로 그 틀에 따름으로서 비교분석의 용이성을 기하고 통일성을 유지하고자 하였다.

기초자치단체의 문화지표 조사연구는 국가 단위나 광역 단위 문화지표에 비해 통계자료 하나하나를 작성하는 데에도 더 많은 수고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연구규모의 한계로 인해 적절한 지표가 개발되지 못하고 통계작성에 결과가 머무는 악순환이 발생하지 않기를 희망해본다. 또 향후 이 연구의 결과를 기본으로 한 좀 더 세밀하고 지역적인 문화지표 체계가 개발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인천의 경우 인천문화지표가 2004년과 2008년 두 차례 연속 연구의 결과가 쌓여있고, 그러한 틀 안에서 남구문화지표가 조사되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일관성 있게 지역문화지표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이 연구는 이렇게 광역시와 구 단위의 문화지표가 서로 연동되고 연속적으로 분석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 좋은 예가 될 수 있다. 2008년 인천문화지표의 평가지표 중 구 단위에서 유의미하지 않은 것들을 제외하고 보다 면밀한 분석이 이루어질 수 있는 평가지표들로 구성하였으나, 향후 보다 간소화되고 집약적인 기초자치단체 문화지표 모델이 개발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제2장

2010 인천남구문화지표 조사 결과 분석



제1절 2010 인천남구문화지표의 체계 및 특징

제2절 인문사회환경

제3절 문화환경

제4절 문화자원

제5절 문화활동

제2장 2010 인천남구문화지표 조사 결과 분석

제1절 2010 인천남구문화지표의 체계 및 특징

남구문화지표의 체계는 2008년 인천문화지표의 큰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게 설정하여 비교분석이 가능하고 통일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구 단위 문화지표로서 보다 구체적인 분석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에 관한 평가항목을 추가하였으며, 또한 평가항목 중 동 단위의 분석이 유의미한 경우에는 동간 비교분석을 실시하였다.

남구문화지표는 영역과 관심영역, 관심영역의 핵심요소에 관한 평가항목과 구체적인 평가지표의 체계로 설정되었다. 크게 인문사회환경과 문화환경, 문화자원, 문화활동, 문화수요의 5개 영역으로 구성하였으며, 이 중 문화수요 부분은 남구 주민의 문화생활 실태 및 문화의식 등을 살펴보기 위한 설문조사를 통해 조사한 영역으로 별도의 장으로 집중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기초적인 통계분석과 문화예술관련 자료 분석을 최대한 줄이고 남구 구민들의 문화생활 실태 및 요구를 파악하기 위한 문화수요조사의 질적 수준을 높였다. 또한 지역의 이야기자원 즉, 스토리텔링이 가능한 문화적 자원에 대한 평가지표 등을 추가하여 기초자치단체 문화지표로서 조사할 수 있는 질적 지표에 관한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인문사회환경은 생활환경의 편리성, 쾌적성 및 안전성, 교육환경의 충분성, 행정환경의 충분성 및 합리성, 경제환경의 안정성 및 활동성에 관한 평가지표들을 마련하여 평가하였다. 문화환경 영역은 크게 문화시설과 문화행정으로 구분하였으며, 문화시설의 충분성 및 활용도는 각각의 시설유형별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문화자원은 남구의 인적 자원과 콘텐츠 자원에 대해 평가하기 위한 영역으로 문화예술인력, 문화유산, 지역축제 등을 분석하였다. 문화활동 영역은 문화예술 창작 및 발표활동과 교육활동, 동호회 활동으로 구분하여 평가하였다.

[표 1] 인천남구문화지표 항목

영역	관심영역	평가항목	평가지표
인문 사회 환경	생활환경	편리성	연령별 인구분포
			인구밀도
			자동차도로밀도
			주택보급률
		쾌적성	녹지지역비율
			대기오염도
			인구 1인당 도시공원 면적
		안전성	경찰서 및 지구대 1개소 당 인구
			범죄 검거율

영역	관심영역	평가항목	평가지표
인문사회환경	교육환경	충분성	교원 1인당 학생 수
			학급 1개당 학생 수
	행정환경	충분성	인구 1인당 예산액
			공무원 1인당 인구
		합리성	재정자주도
			인구 1인당 지방세 부담액
	경제환경	안정성	인구증가율
			인구 천명당 외국인 수
			사업체 종사자 수
문화환경	문화시설	충분성 및 활용도	시설유형별 1개소 당 인구
			공연장 규모 및 분포
			전시시설 규모 및 분포
			도서관 규모 및 분포
	문화행정	충분성	문화행정인력 비율
			문화예술예산 비율
문화자원	문화예술인력	충분성	장르별 문화예술인 수 및 비율
			무형문화재 수 및 비율
		잠재성	문화예술 관련 학과 수
			문화예술 관련 교수 수
	문화유산	충분성	문화재 수
			이야기 자원 현황
	지역축제	충분성	유형별 축제 수 및 비율
문화활동	문화예술 창작 및 발표	충분성 및 다양성	장르별 문화예술 창작 및 발표활동 비율
	문화예술 교육	충분성 및 다양성	장르별 문화예술교육활동 비율
	문화예술동호회	충분성 및 다양성	유형별 문화예술동호회 수 및 회원 수
			장르별 문화예술동호회 비율
문화수요	여가문화활동	충분성	여가시간
			여가 및 문화활동 장애요소
		다양성	여가 및 문화활동 유형
			향후 희망여가 및 문화활동 유형
	문화시설 이용	이용도	문화시설별 이용비율
			문화시설 이용 시 고려요소
		만족도	문화시설별 이용 만족도
			문화시설 프로그램 선호도
			문화시설 비이용 이유
	문화행사 참여	관람 및 참여도	장르별 문화예술행사 관람률
			지역축제 참여율
			문화예술동호회 참여율
			문화예술행사 정보탐색 경로
			문화예술행사 동반유형 및 관람지역
		만족도	문화예술행사 만족도
			지역축제 만족도
			바람직한 지역축제 유형
			문화예술행사 보완점
	문화의식 및 문화정책		

제2절 인문사회환경

인문사회환경의 관심영역은 크게 생활환경, 교육환경, 행정환경, 경제환경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평가항목은 생활환경의 편리성, 쾌적성 및 안전성, 교육환경의 충분성, 행정환경의 충분성 및 합리성, 경제환경의 안정성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표2] 인문사회환경 평가지표

영역	관심영역	평가항목	평가지표
인문사회환경	생활환경	편리성	연령별 인구분포
			인구밀도
			자동차도로밀도
			주택보급률
		쾌적성	녹지지역비율
			대기오염도
			인구 1인당 도시공원 면적
		안전성	경찰서 및 지구대 1개소 당 인구
			범죄 검거율
	교육환경	충분성	교원 1인당 학생 수
			학급 1개당 학생 수
	행정환경	충분성	인구 1인당 예산액
			공무원 1인당 인구
		합리성	재정자주도
			인구 1인당 지방세 부담액
	경제환경	안정성	인구증가율
			인구 천명당 외국인 수
			사업체 종사자 수

1. 생활환경의 편리성

생활환경에 대한 기초적인 조사로 군구별, 남구 동별 인구 · 가구 수 및 면적과 자동차 등록대수, 도로연장, 주택 수, 용도지역 면적, 대기, 도시공원 수 및 면적, 경찰서 및 지구대 현황 등을 조사하였다. 각각의 평가지표는 이러한 기초조사 결과를 토대로 분석하였다.

인천광역시 10개 군구 중 남구의 면적은 동구 다음으로 작으며, 인구는 부평구, 남동구 다음으로 많은 지역이다.

[표3] 인천광역시 군구별 면적 및 인구

구분	면적(㎢)	인구(명)
중 구	121.15	93,550
동 구	7.19	78,496
남 구	24.85	426,449
연수구	42.75	274,596
남동구	56.86	474,885
부평구	31.99	571,700
계양구	45.57	347,296
서 구	113.62	405,534
강화군	411.33	67,597
옹진군	171.70	18,328

참고 : 인천광역시, 〈2010 인천광역시 통계연보〉

① 연령별 인구

군구별 연령별 인구를 살펴보면, 남구는 0세에서 10세 사이의 유아동 인구가 강화군, 옹진군 다음으로 적었으며, 20대 인구가 인천광역시 군구 중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4] 연령별 인구분포

(단위 : %)

연령	10세 이하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1세 이상	합계
인천광역시	11.3	14.6	14.9	17.4	18.8	11.8	6.5	4.7	100.0
중 구	10.8	10.8	14.0	18.4	16.7	13.6	9.2	6.5	100.0
동 구	10.4	11.2	14.7	17.0	15.8	13.8	9.9	7.1	100.0
남 구	9.9	12.5	16.6	17.1	16.9	13.3	8.4	5.4	100.0
연수구	11.3	17.5	14.2	16.2	21.1	10.8	4.9	4.1	100.0
남동구	11.9	14.4	15.3	18.0	18.6	11.6	6.1	4.1	100.0
부평구	11.1	14.6	15.4	17.4	18.8	11.9	6.3	4.5	100.0
계양구	11.8	16.5	15.0	17.5	20.7	10.3	4.7	3.6	100.0
서 구	13.2	15.7	13.4	18.6	19.6	10.5	5.2	3.6	100.0
강화군	7.2	10.5	10.3	10.9	15.9	15.9	15.0	14.3	100.0
옹진군	8.7	8.0	13.3	12.9	16.7	16.0	12.1	12.2	100.0

참고 : 인천광역시, 〈2010 인천광역시 통계연보〉

노령인구비율은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 중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인천의 노령인구비율은 강화군, 옹진군을 제외하면 중구와 동구 다음으로 남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5] 노령인구비율

구 분	노령인구비율(%)
인천광역시	8.02
중 구	11.26
동 구	12.33
남 구	9.57
연수구	6.55
남동구	7.13
부평구	7.56
계양구	6.02
서 구	6.25
강화군	22.47
옹진군	19.26

② 인구밀도

인구밀도는 면적 대비 인구 수를 말한다. 남구의 인구밀도 역시 부평구 다음으로 가장 높았으며, 인구가 많은 서구 및 남동구에 비해서도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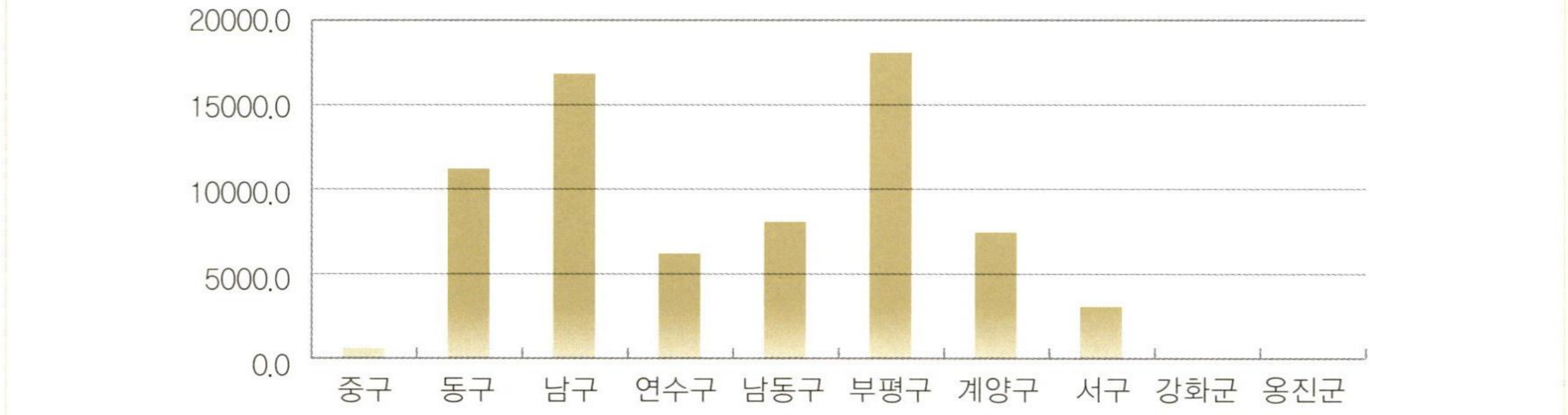
[표6] 군구별 인구밀도

구 분	인구밀도(명/㎢)
중 구	772.2
동 구	10,917.4
남 구	17,160.9
연수구	6,423.3
남동구	8,351.8
부평구	17,871.2
계양구	7,621.2
서 구	3,569.2
강화군	164.3
옹진군	106.7
인천 평균	7,295.8

참고 : 인천광역시, 〈2010 인천광역시 통계연보〉

[그림1] 군구별 인구밀도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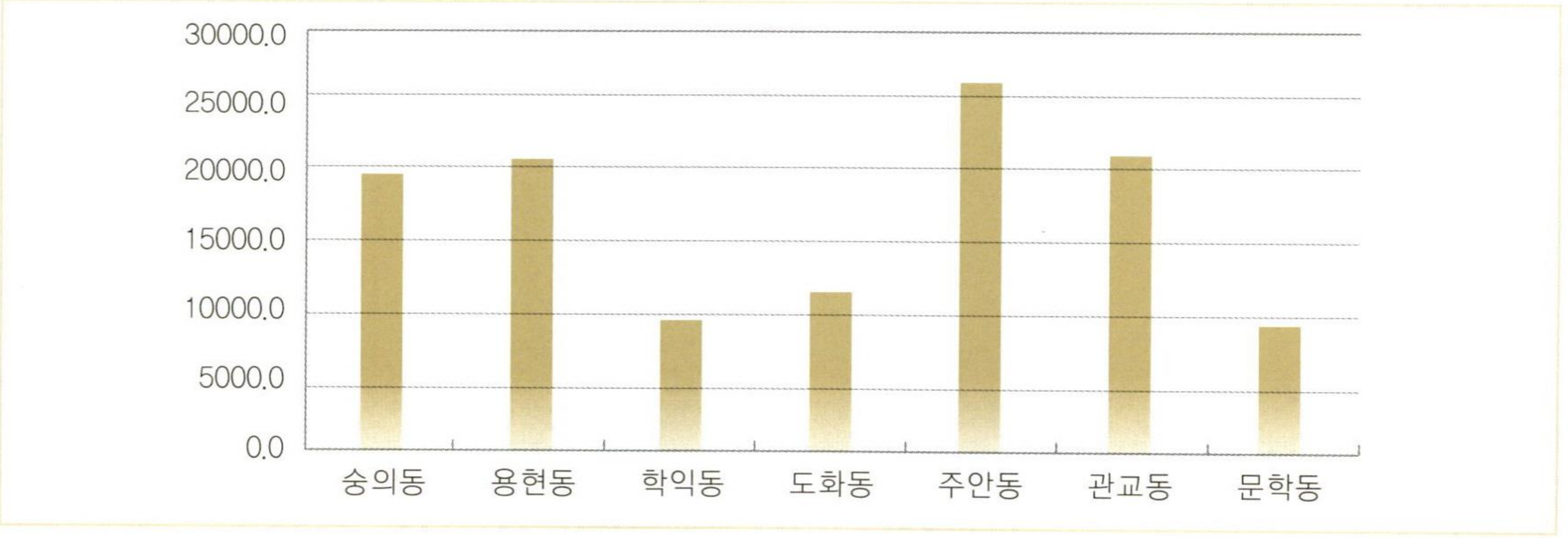
남구 내에서는 주안동의 인구밀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안동은 남구에서 면적이 가장 넓고 인구도 가장 많은 지역이나 인구밀도도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7] 동별 인구밀도

구 분	면적(천㎢)	인구 수(명)	인구밀도(명/㎢)
숭의동	2.11	40,239	19,070.6
용현동	4.22	85,637	20,293.1
학익동	5.87	57,244	9,752.0
도화동	3.85	46,148	11,986.5
주안동	6.18	162,899	26,359.1
관교동	0.89	18,347	20,614.6
문학동	1.73	15,935	9,211.0

참고 : 인천광역시 남구청

[그림2] 동별 인구밀도



③ 자동차 도로밀도

자동차 도로밀도는 자동차 등록대수 대비 도로연장과 인구 1인당 도로연장으로 분석하였다. 남구의 자동차 등록대수는 남동구, 부평구, 서구, 강화군 등에 비해 적은 수준이었으며, 자동차 도로연장은 부평구, 남동구, 서구 다음으로 긴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 1대당 도로연장은 남구가 연수구 다음으로 짧았으며 인구 1인당 도로연장 역시 연수구와 0.7m로 가장 짧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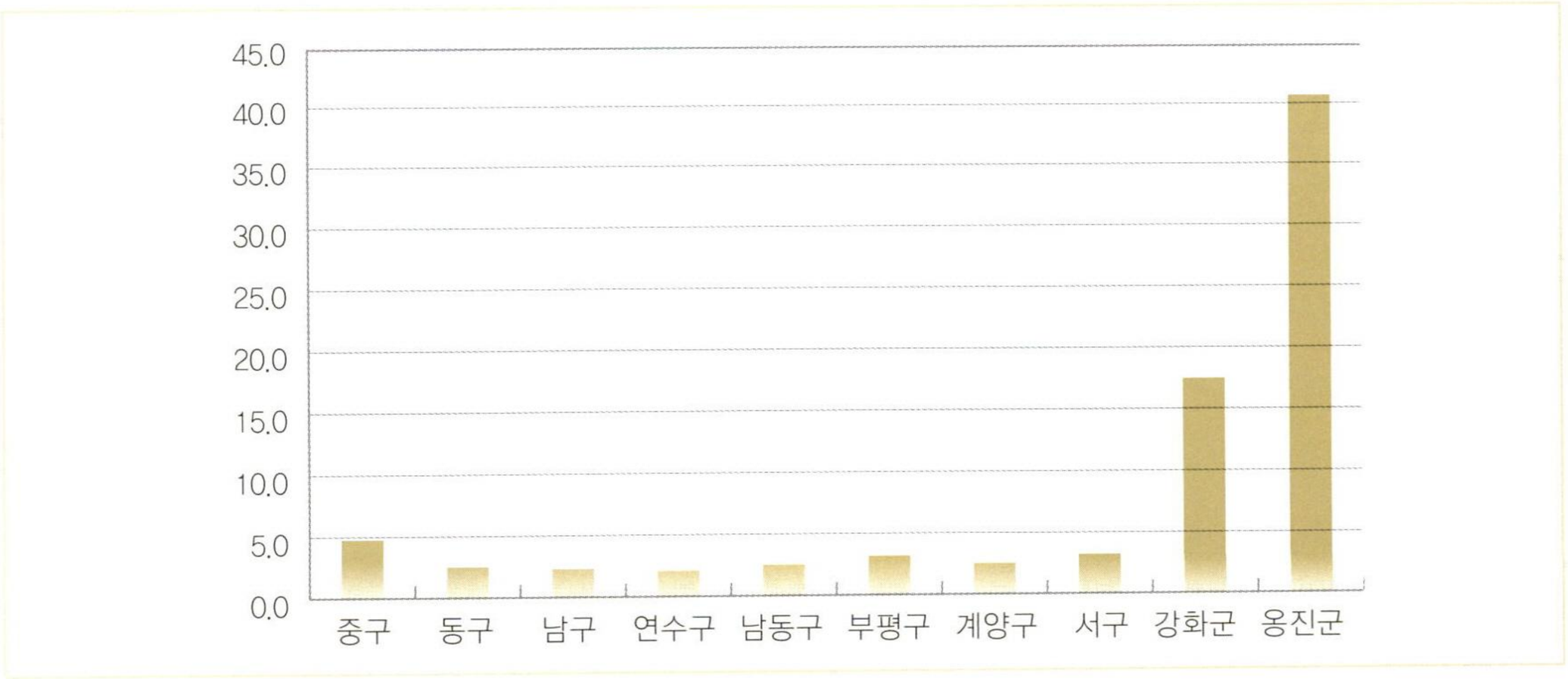
[표8] 자동차도로밀도

구 분	도로연장(m)	자동차 등록대수(대)	자동차1대당 도로연장(m)	인구1인당 도로연장(m)
중 구	205,992	43,915	4.7	2.2
동 구	65,385	25,313	2.6	0.8
남 구	298,860	134,748	2.2	0.7
연수구	192,863	90,268	2.1	0.7
남동구	427,078	155,581	2.7	0.9
부평구	528,172	166,130	3.2	0.9
계양구	286,613	105,691	2.7	0.8
서 구	447,24	140,871	3.2	1.1
강화군	464,074	25,988	17.9	6.9
옹진군	298,972	7,313	40.9	16.3

참고 : 인천광역시, 〈2010 인천광역시 통계연보〉

[그림3] 자동차 1대 당 도로연장

(단위 : m)



④ 주택보급률

주택보급률은 가구 수 대비 주택 수를 말한다. 남구의 주택보급률은 92.1%로 인천광역시 군구 가운데 중구 다음으로 낮아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함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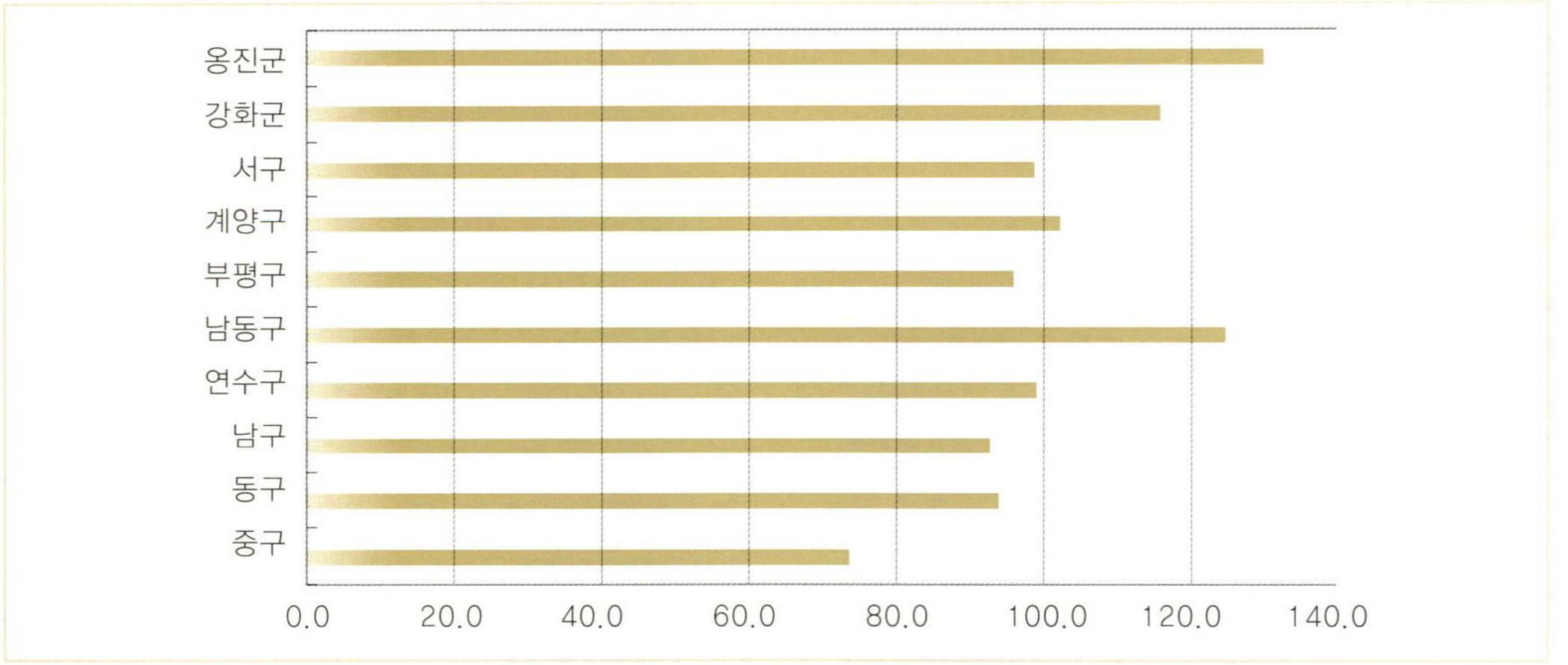
[표9] 군구별 주택보급률

구 분	주택보급률(%)
중 구	75.1
동 구	93.5
남 구	92.1
연수구	98.7
남동구	125.0
부평구	95.5
계양구	102.8
서 구	98.5
강화군	115.7
옹진군	129.7

참고 : 인천광역시, 〈2010 인천광역시 통계연보〉

[그림4] 군구별 주택보급률

(단위 : %)



생활환경의 편리성을 인구, 주택, 도로 등으로 살펴보았을 때, 남구의 현실은 매우 열악하다. 면적에 비해 인구가 많고, 자동차에 비해 도로가 좁으며, 가구 수에 비해 주택의 수도 부족한 현실이다.

2. 생활환경의 쾌적성

생활환경의 쾌적성에 대한 평가지표는 용도지역 중 녹지지역 면적의 비율과 대기오염 정도, 도시공원의 수 및 면적으로 분석하였다.

① 녹지지역 비율

녹지지역 비율의 경우 남구가 3.91%로 동구 다음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구 규모가 비슷한 남동구, 서구 등에 비해 매우 낮은 수치이며, 인천광역시의 녹지지역 비율이 타 광역시보다 매우 낮은 것을 감안하면, 그 가운데 남구의 녹지지역 비율이 동구 다음으로 낮다는 점은 생활권 내에서 자연환경을 접하기 매우 어려운 현실임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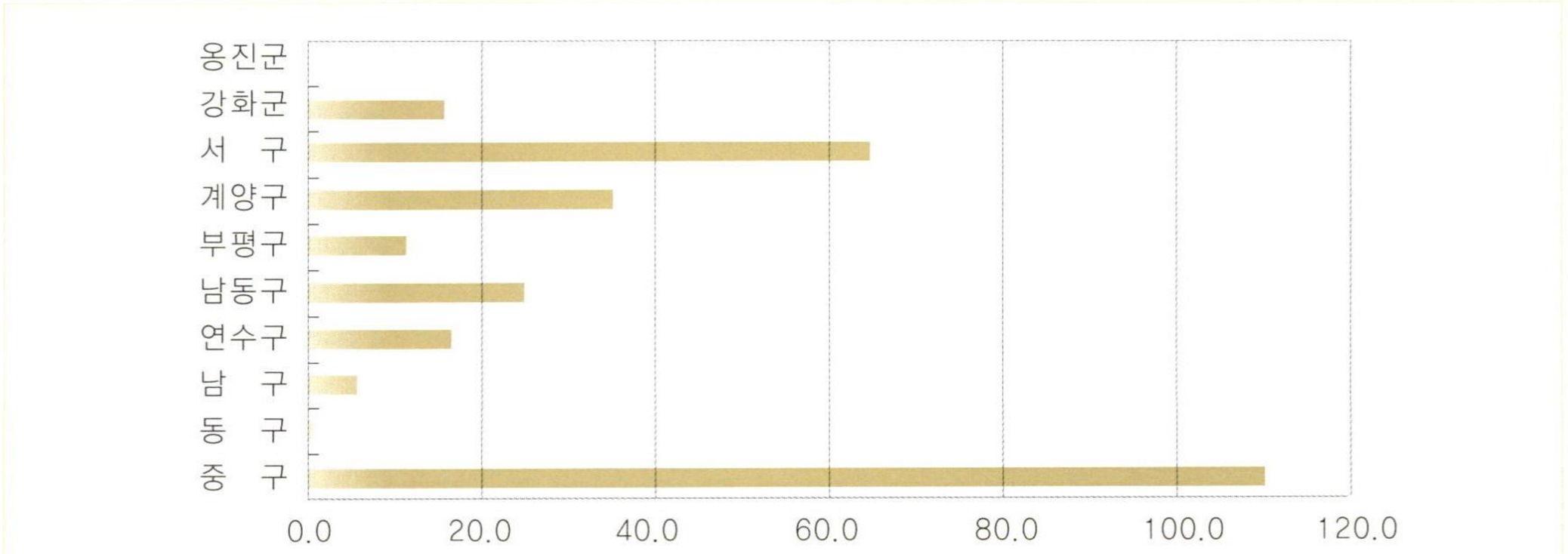
[표10] 군구별 녹지지역비율

구 분	녹지지역 비율(%)
중 구	110.28
동 구	1.00
남 구	3.91
연수구	16.08
남동구	27.11
부평구	10.50
계양구	34.80
서 구	66.72
강화군	14.58
옹진군	0.00

참고 : 인천광역시, 〈2010 인천광역시 통계연보〉

[그림5] 군구별 녹지지역 비율

(단위 : %)



② 대기오염도

대기오염도는 대기 중 가스, 먼지, 매연 및 악취의 정도로 살펴보았다. 군구 가운데 강화군과 옹진군을 제외한 도심권 중에서 남구는 대기오염도가 낮은 수준이었다. 이는 인천광역시 내에서 남동구, 부평구, 서구와 같이 공장시설이 밀집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표11] 군구별 대기오염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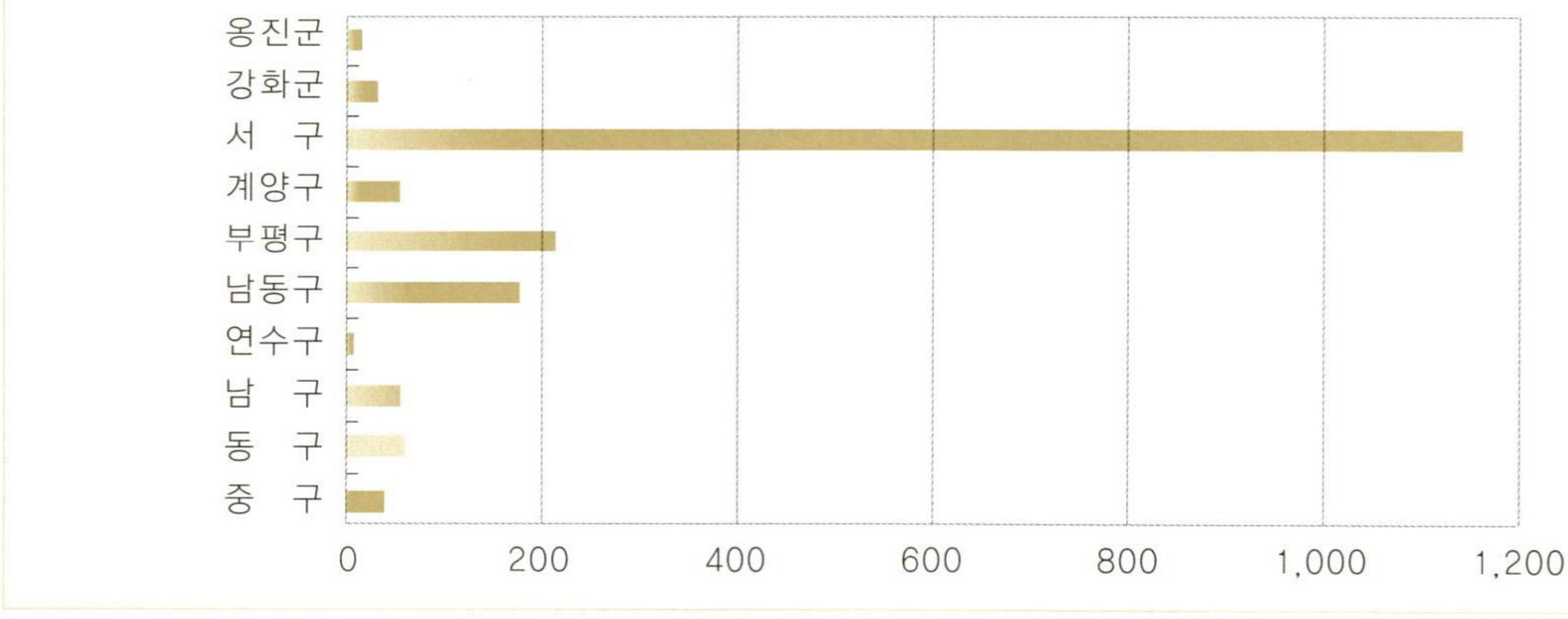
(단위 : 개소)

구 분	대기(가스, 먼지, 매연 및 악취)
중 구	57
동 구	85
남 구	74
연수구	7
남동구	169
부평구	218
계양구	65
서 구	1,142
강화군	44
옹진군	13

참고 : 인천광역시, 〈2010 인천광역시 통계연보〉

[그림6] 군구별 대기오염도

(단위 : 개소)



③ 인구1인당 도시공원 수 및 면적

인천광역시 군구 중 도시공원 수가 가장 많은 곳은 남동구였으며, 남구는 46개로 남동구, 서구, 연수구 다음이었다. 그러나 도시공원 면적은 남구가 동구 다음으로 좁은 것으로 나타나 남구의 도시공원은 대체로 규모면에서 다른 군구에 비해 매우 작음을 알 수 있다.

[표12] 군구별 도시공원 수 및 면적

구 분	도시공원 수(개소)	도시공원 면적(㎡)
중 구	32	12,288
동 구	29	254
남 구	46	2,822
연수구	54	4,337
남동구	136	9,577
부평구	87	5,405
계양구	44	3,723
서 구	124	10,674
강화군	10	3,503
옹진군	0	0

참고 : 인천광역시, 〈2010 인천광역시 통계연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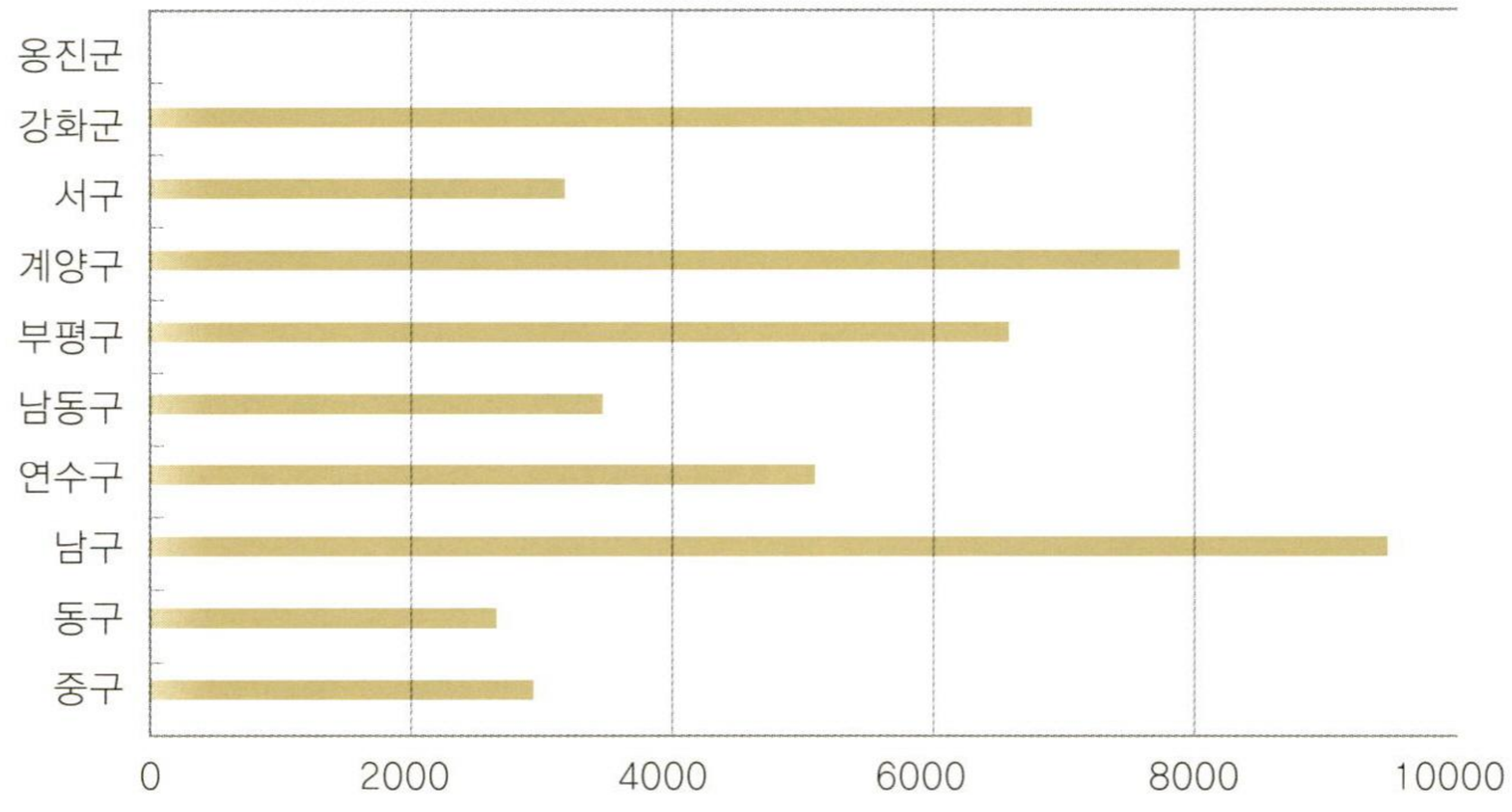
인구대비로 살펴보면 도시공원 1개소 당 인구는 남구가 9,271명으로 10개 군구 가운데 가장 많다. 면적 역시 동구 다음으로 작은 것으로 나타나 남구의 도시공원 현황은 그 수와 면적 모두에서 부족한 실정임을 알 수 있다.

[표13] 도시공원 1개소 당 인구 및 면적

구 분	도시공원1개소당인구(명)	천명당도시공원면적(㎡)
중 구	2,923	131.4
동 구	2,707	3.2
남 구	9,271	6.6
연수구	5,085	15.8
남동구	3,492	20.2
부평구	6,571	9.5
계양구	7,893	10.7
서 구	3,270	26.3
강화군	6,760	51.8
옹진군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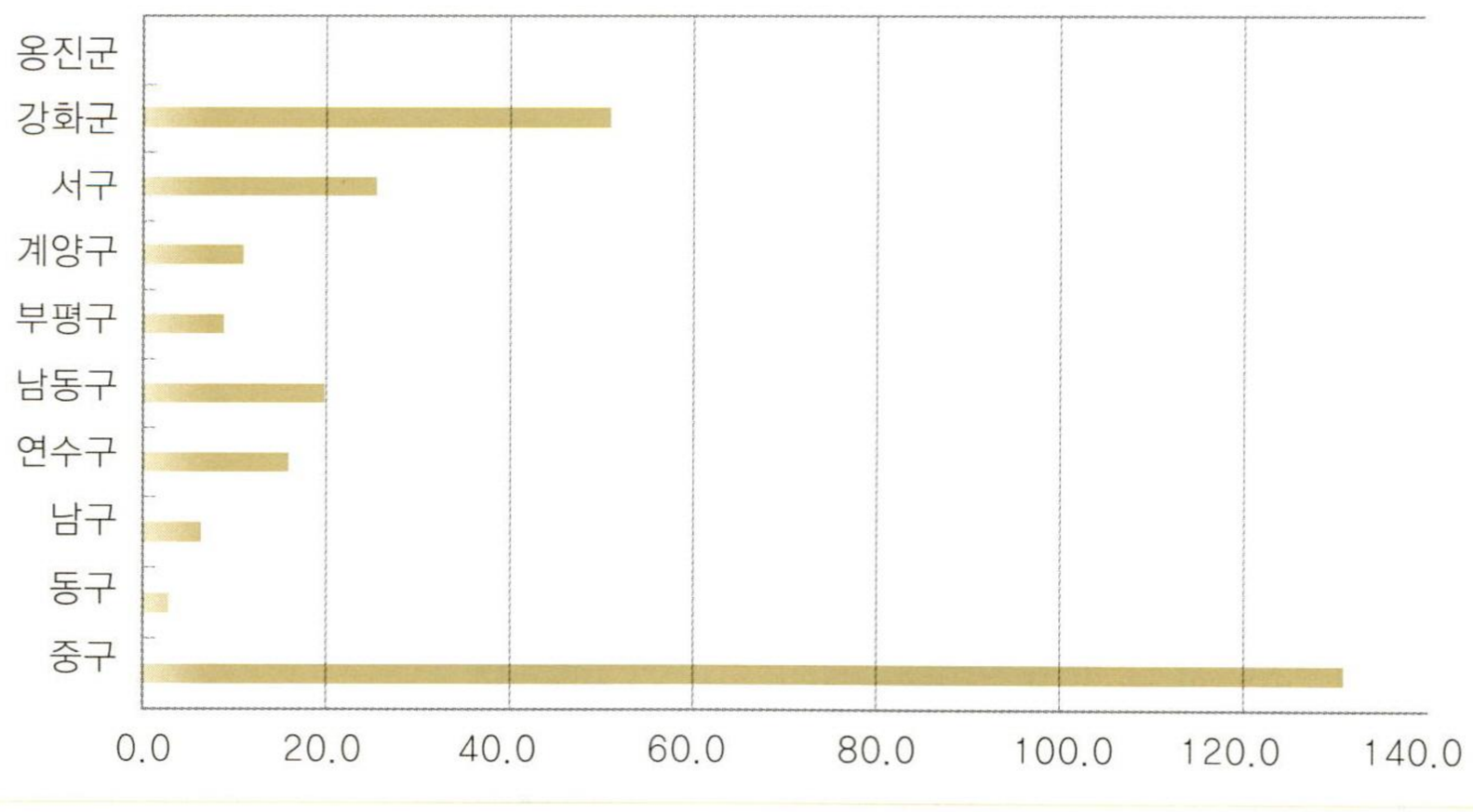
[그림7] 도시공원 1개소 당 인구

(단위 : 명)



[그림8] 인구 천명당 도시공원 면적

(단위 : ㎡)



3. 생활환경의 안전성

생활환경의 안전성은 경찰청, 경찰서, 지구대 및 파출소의 수와 범죄발생 건수 및 검거율을 바탕으로 살펴보았다.

① 경찰서 및 지구대 1개소 당 인구수

경찰서 및 지구대 1개소 당 인구수는 남구가 60,921명으로 서구, 부평구에 이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남동구나 계양구에 비해서는 두 배 정도 많아 치안에 관한 접근성이 좋지 않은 편이었다.

[표14] 경찰서 및 지구대 1개소 당 인구

구 분	경찰서 및 지구대 수	경찰서 및 지구대 1개소 당 인구(명)
중 구	8	11,694
동 구	4	19,624
남 구	7	60,921
연수구	5	54,919
남동구	17	27,934
부평구	8	71,463
계양구	10	34,730
서 구	5	81,107
강화군	7	9,657
옹진군	21	873

참고 : 인천광역시, 〈2010 인천광역시 통계연보〉

② 범죄 검거율

남구지역을 관할하고 있는 남부경찰서의 통계를 보면, 범죄발생 건수는 인천 관내 경찰서 중 가장 많고 검거율은 80.5%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발생 건수가 많은 것도 안전을 위협하는 중요한 요소이지만, 검거율이 가장 낮다는 점이 치안에 대한 더 큰 불안요소가 되고 있을 것으로 볼 수 있다. 여기에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경찰서 및 지구대 수가 부족하다는 사실이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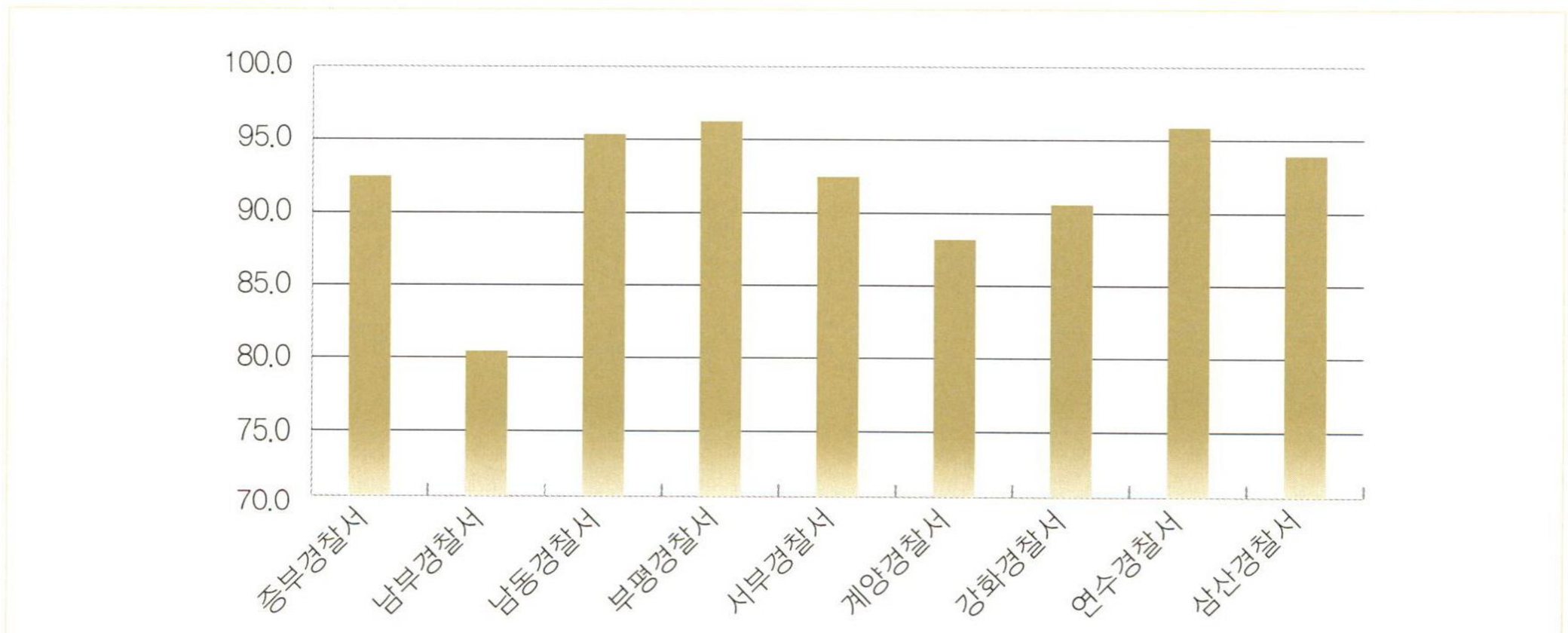
[표15] 경찰서별 범죄 검거율

구 분	범죄발생건수(건)	검거건수(건)	검거율(%)
중부경찰서	8,607	7,965	92.5
남부경찰서	18,232	14,672	80.5
남동경찰서	18,218	17,341	95.2
부평경찰서	10,231	9,855	96.3
서부경찰서	12,673	11,747	92.7
계양경찰서	15,552	13,687	88.0
강화경찰서	1,889	1,716	90.8
연수경찰서	9,130	8,758	95.9
삼산경찰서	9,195	8,581	93.3

참고 : 인천광역시, 〈2010 인천광역시 통계연보〉

[그림9] 경찰서별 범죄검거율

(단위 : %)



4. 교육환경의 충분성

교육환경은 유치원 및 초중고 현황을 바탕으로 충분한지를 살펴보았다. 크게 학생 수와 학급 수, 교원 수를 바탕으로 각급 학교별 교원 1인당 학생 수와 학급 1개당 학생 수를 살펴보았다.

① 교원 1인당 학생 수

각 군구별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으나 남구의 경우 고등학교에 비해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의 교원 1인당 학생 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16] 교원 1인당 학생 수

(단위 : 명)

구 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중 구	16	18	17	13
동 구	15	19	18	15
남 구	18	20	22	15
연수구	19	21	22	18
남동구	18	20	23	17
부평구	17	20	22	16
계양구	18	21	21	17
서 구	18	21	22	17
강화군	13	11	15	11
옹진군	14	9	6	3

참고 : 인천광역시, 〈2010 인천광역시 통계연보〉

② 학급 1개당 학생 수

남구의 학급 1개당 학생 수 역시 고등학교에 비해 초등학교, 중학교가 많은 편인 것으로 나타나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교육환경이 고등학교에 비해 충분치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앞서 살펴본 연령별 인구에서 남구의 초중고 학생 인구가 많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수가 학생 수에 비해 많이 부족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표17] 학급 1개당 학생 수

(단위 : 명)

구 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중 구	25	32	30
동 구	26	37	31
남 구	28	39	34
연수구	29	40	38
남동구	28	40	36
부평구	28	39	35
계양구	28	39	37
서 구	28	38	36
강화군	16	29	27
옹진군	12	14	11

참고 : 인천광역시, 〈2010 인천광역시 통계연보〉

5. 행정환경의 충분성

남구의 행정환경의 충분성은 인구 1인당 예산액과 공무원 1인당 인구 수를 통해 살펴보았다. 예산은 일반회계 세출 본예산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공무원 수는 각 군구 공무원 수와 읍면동 공무원 수를 합산하여 산출하였다.

① 인구 1인당 예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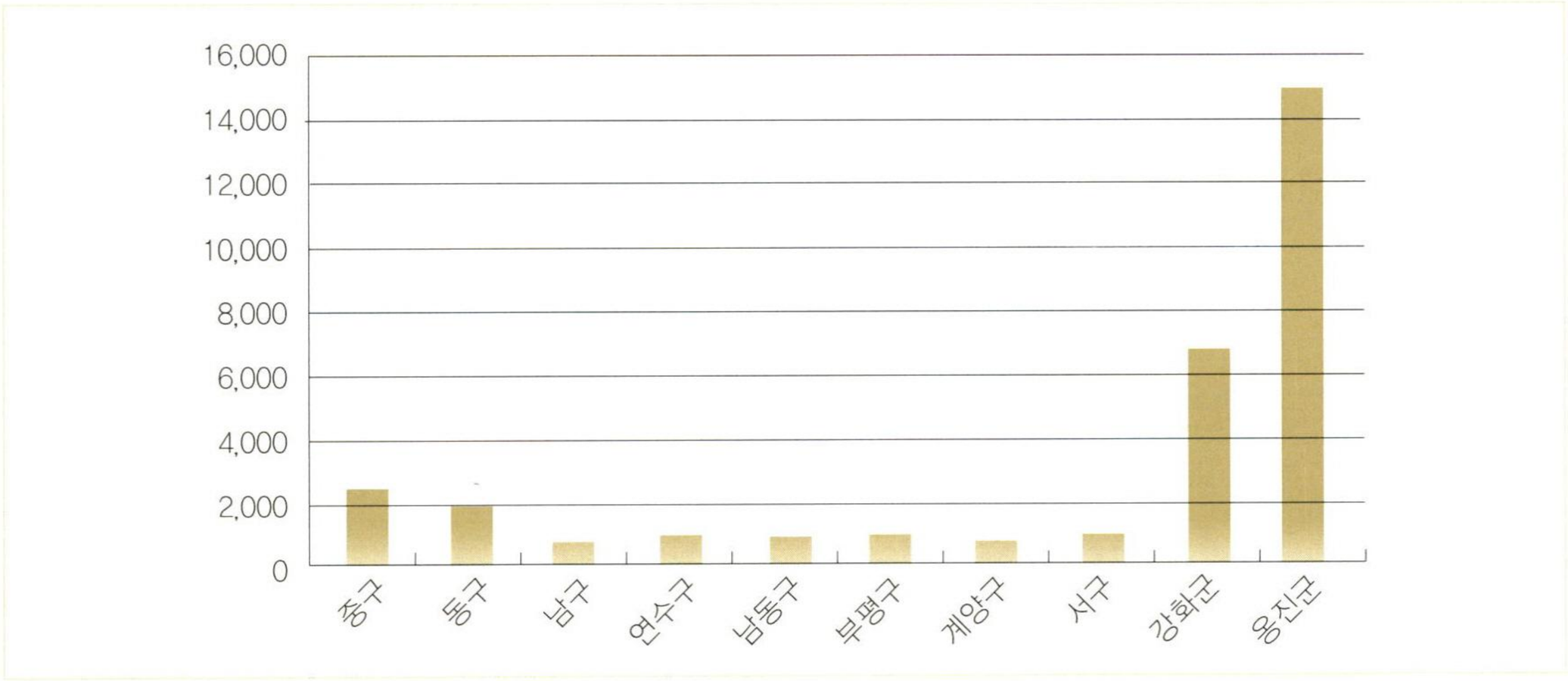
남구의 총 세출예산은 327,243백만원으로 동구, 중구, 연수구, 옹진군 다음으로 적었다. 특히 인구규모가 비슷한 남동구와 서구에 비해서는 100,000백만원정도 차이가 났다. 인구 1인당 예산액 역시 767천원으로 계양구 다음으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나 열악한 남구의 재정현황을 잘 보여주고 있다.

[표18] 군구별 인구 1인당 예산

구 분	예산(백만원)	인구 1인당 예산(천원)
중 구	246,555	2,636
동 구	154,185	1,964
남 구	327,243	767
연수구	262,592	956
남동구	418,589	881
부평구	495,893	867
계양구	247,180	712
서 구	415,642	1,025
강화군	464,835	6,877
옹진군	272,238	14,854

[그림10] 군구별 인구 1인당 예산

(단위 : 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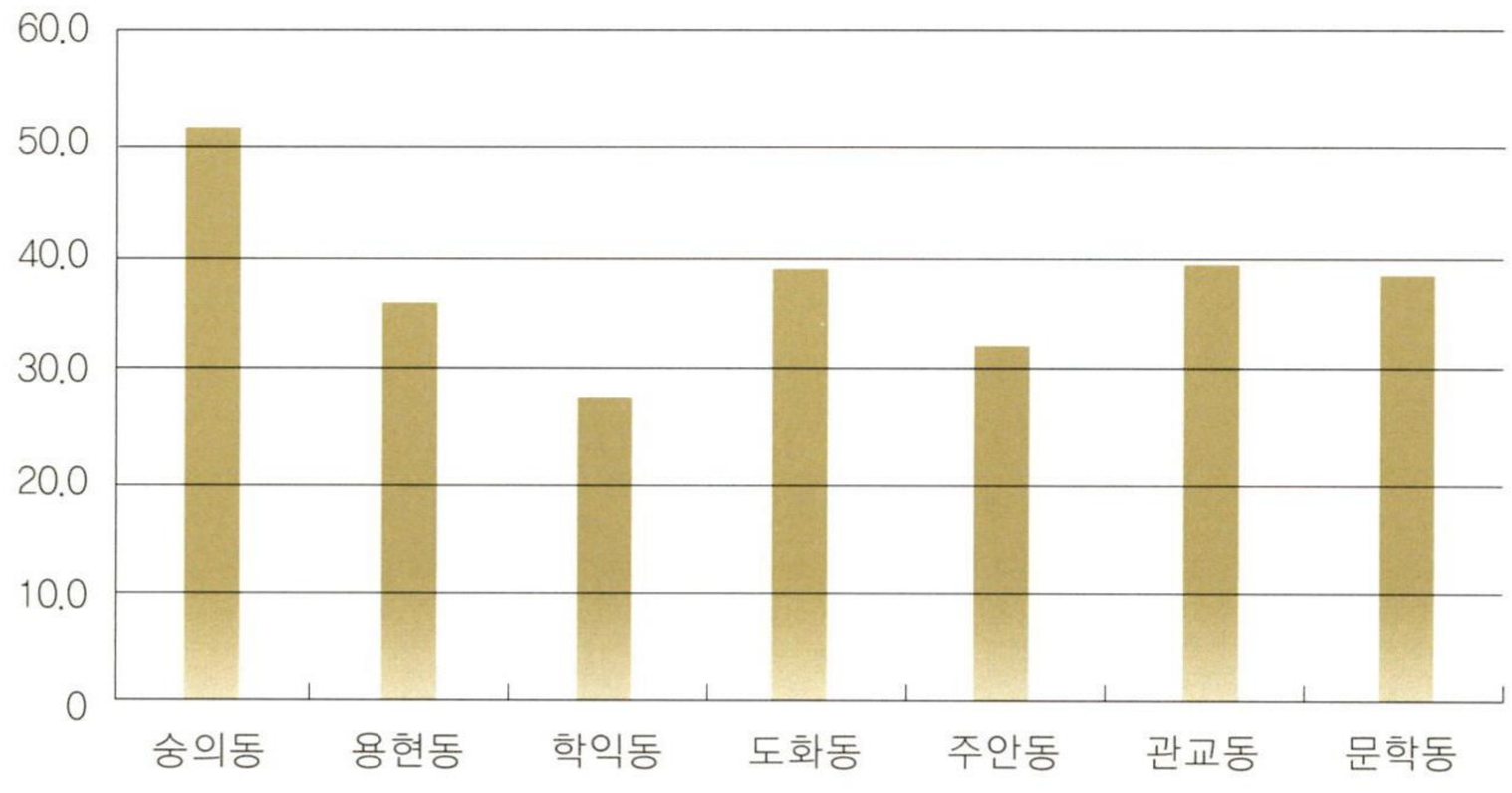
동별로는 숭의동의 인구 1인당 예산이 가장 많았으며, 학익동의 인구 1인당 예산이 27.5천원으로 가장 적었다.

[표19] 동별 인구 1인당 예산

구 분	예산(천원)	인구 1인당 예산(천원)
숭의동	2,106,808	52.4
용현동	3,080,232	36.0
학익동	1,573,886	27.5
도화동	1,813,336	39.3
주안동	5,254,255	32.3
관교동	729,096	39.7
문학동	624,164	39.2

[그림11] 동별 인구 1인당 예산

(단위 : 천원)



② 공무원 1인당 인구 수

인천광역시 군구 가운데 공무원 수는 남동구와 서구가 가장 많았다. 공무원 1인당 인구 수는 남구가 525명으로 부평구와 계양구에 이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자치단체 기관을 조직하는 데 있어 기본적으로 필요한 인력이 있기 때문에 인구가 적을수록 인구대비 공무원 수는 많게 나타나는 것이 사실이지만, 남구는 인구규모가 비슷한 남동구나 서구에 비해서 매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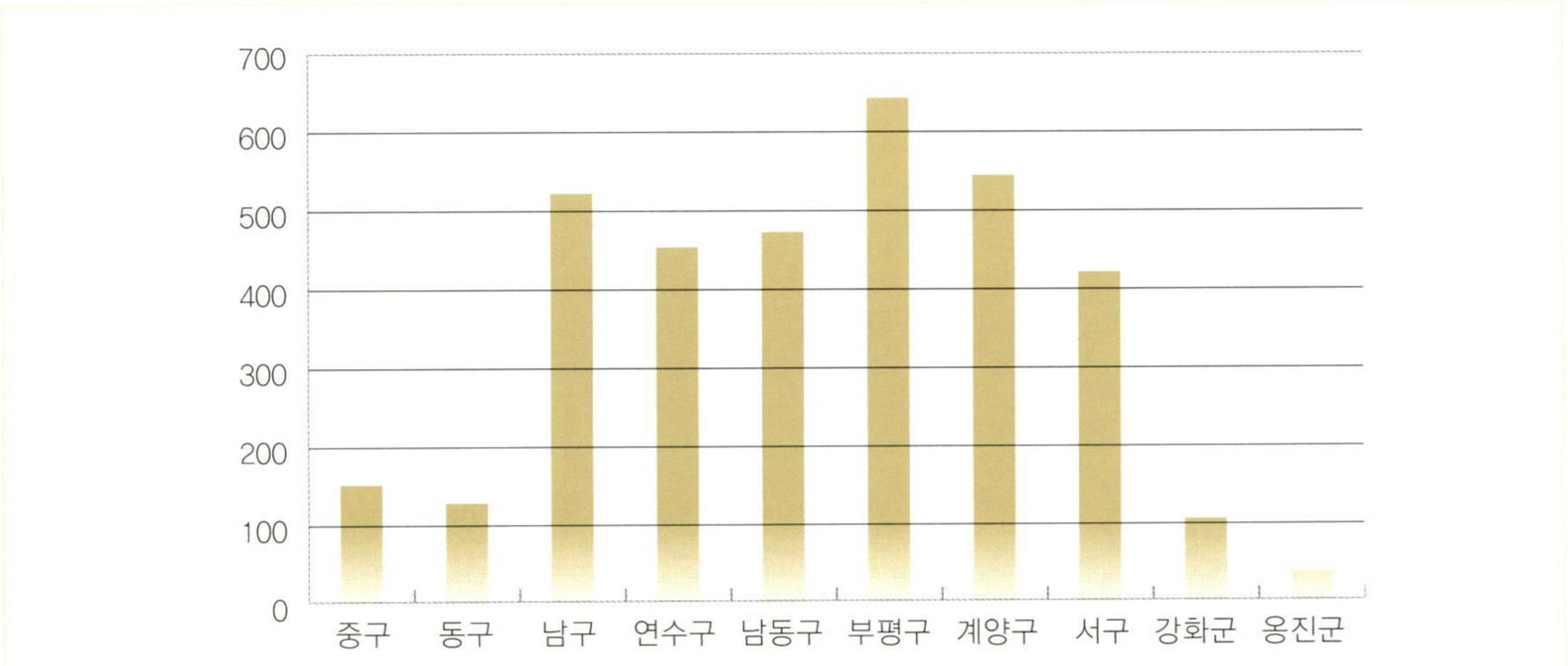
[표20] 군구별 공무원 1인당 인구

구 분	공무원 수(명)	공무원 1인당 인구(명)
중 구	602	155
동 구	619	127
남 구	812	525
연수구	597	460
남동구	986	482
부평구	876	653
계양구	636	546
서 구	948	428
강화군	639	106
옹진군	530	35

참고 : 인천광역시, 〈2010 인천광역시 통계연보〉

[그림12] 군구별 공무원 1인당 인구

(단위 : 명)



동별로 살펴보면 공무원 1인당 인구가 가장 적은 곳은 숭의동이었으며, 학익동이 2,120명으로 가장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21] 동별 공무원 1인당 인구

구 분	공무원 수(명)	공무원 1인당 인구(명)
숭의동	31	1,298
용현동	45	1,903
학익동	27	2,120
도화동	26	1,775
주안동	92	1,771
관교동	11	1,668
문학동	11	1,449

[그림13] 동별 공무원 1인당 인구

(단위 : 명)



6. 행정환경의 합리성

행정환경의 합리성에 대해서는 재정자주도와 인구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을 분석하여 남구 행정의 재정적 합리성과 실질적인 구민 부담 등을 평가해보았다.

① 재정자주도

인천광역시 본청의 재정자주도는 82.0%였으며, 남구의 재정자주도는 50.3%로 부평구 다음으로 낮았다. 인구규모가 큰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행정비용이 더 크게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 사실이지만, 인구규모가 비슷한 남동구나 서구에 비해서도 낮은 수준이어서 남구 행정환경의 안정성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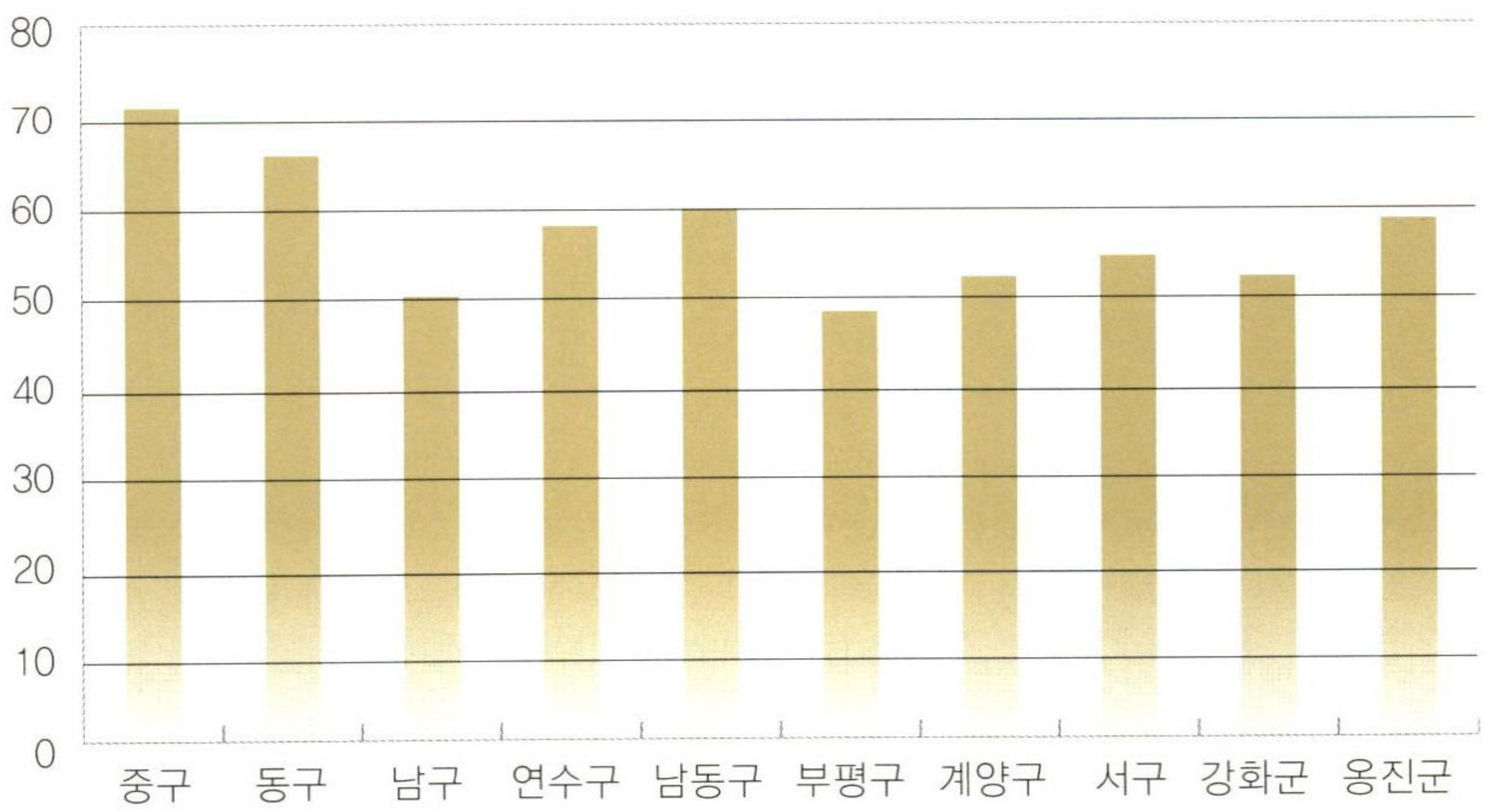
[표22] 군구별 재정자주도

구 분	재정자주도 (%)
인천광역시	82.0
중 구	70.8
동 구	66.7
남 구	50.3
연수구	57.2
남동구	60.0
부평구	47.2
계양구	51.9
서 구	54.4
강화군	52.5
옹진군	59.0

참고 : 인천광역시, 〈2010 인천광역시 통계연보〉

[그림14] 군구별 재정자주도

(단위 : %)



② 인구 1인당 지방세 부담액

남구는 인천광역시 군구 가운데 인구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남구 구민의 소득수준, 자산현황과 맞닿아 있는 결과로 남구 구민의 경제적 생활수준이 다른 군구에 비해 낮다는 점을 예측해 볼 수 있다. 따라서 문화정책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구정을 펼치는데 있어 이에 대해 충분히 반영해야 함과 동시에 남구 구민의 경제적 생활수준을 높일 수 있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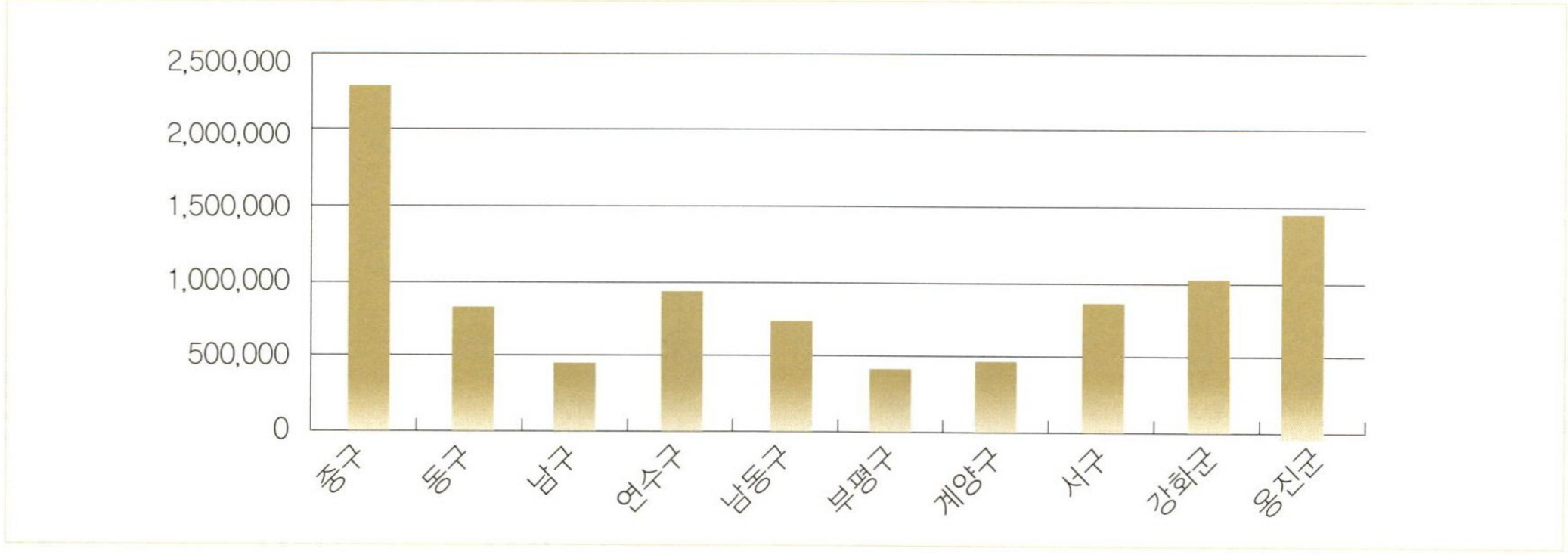
[표23] 군구별 인구 1인당 지방세 부담액

구 분	인구 1인당 지방세 부담액(원)
중 구	2,311,949
동 구	834,417
남 구	441,162
연수구	981,767
남동구	757,065
부평구	442,791
계양구	461,630
서 구	875,266
강화군	1,055,543
옹진군	1,487,418

참고 : 인천광역시, 〈2010 인천광역시 통계연보〉

[그림15] 군구별 인구 1인당 지방세 부담액

(단위 : 원)



남구의 재정자주도와 인구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의 관계를 보면, 남구 행정의 재정적 측면에는 남구 구민의 경제적 향상이라는 근본적인 해결과제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한 장기적인 구 재정 확보방안을 마련하는 문제와 구 재정을 보여주기식의 소모적 사업에 낭비하는 것보다 실용적이고 근본적인 정책을 마련하는 문제, 남구 구민의 경제적 생활환경을 고려한 정책수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7. 경제환경의 안정성

경제환경의 안정성은 남구 경제의 밑바탕이 될 인구의 증가 추세와 이 가운데 외국인 인구의 비율, 사업체 수 및 종사자 수를 조사 · 분석하여 남구 경제의 안정성 및 잠재력을 평가해보고자 하였다.

① 인구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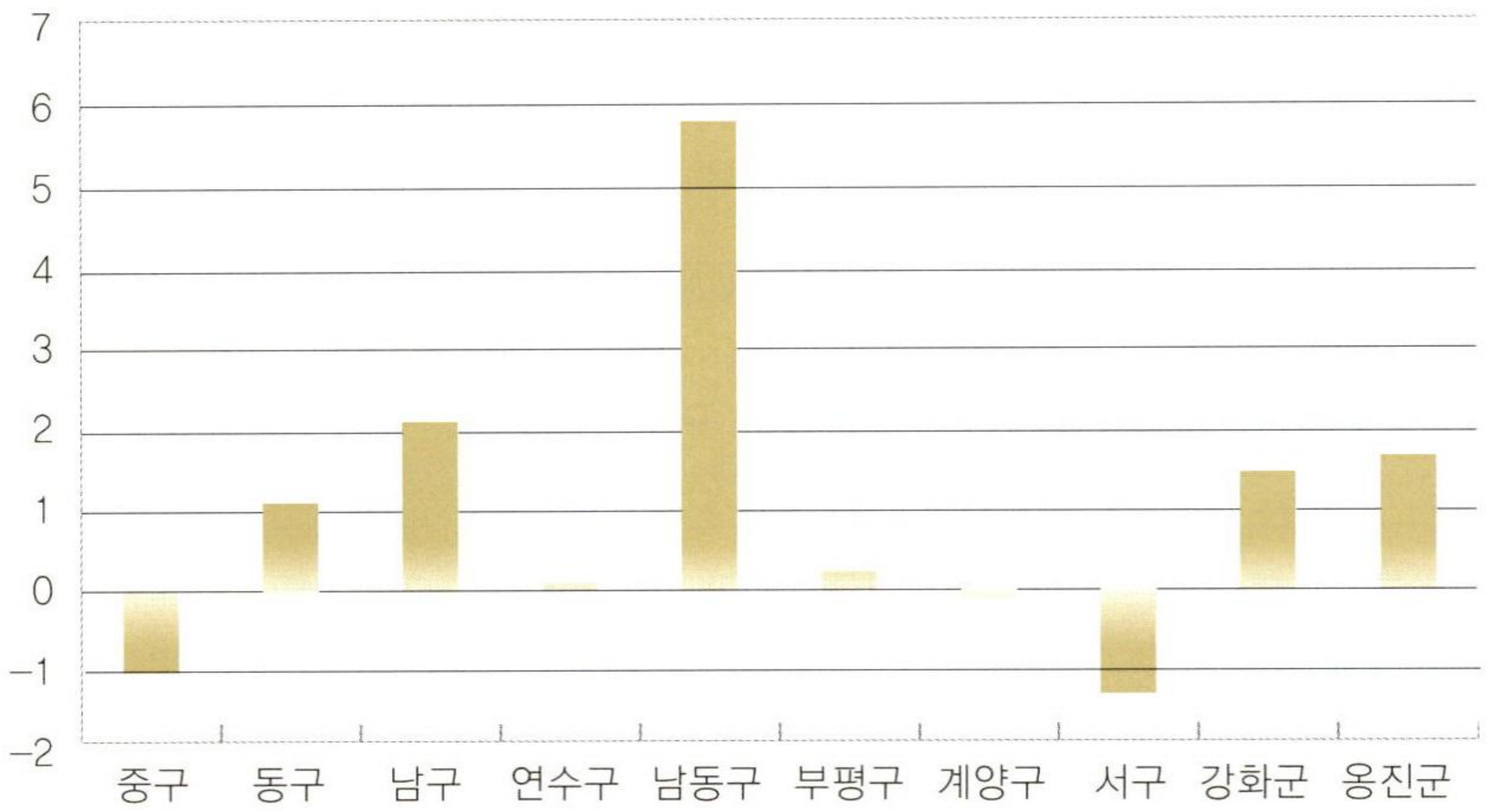
인천광역시 전체 인구증가율은 1.15%였다. 이 가운데 중구와 계양구, 서구는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구는 남동구 다음으로 인구증가율이 높게 나타났다.

[표24] 군구별 인구증가율

구 분	인구증가율(%)
인천광역시	1.15
중 구	-1.02
동 구	1.17
남 구	2.18
연수구	0.10
남동구	5.71
부평구	0.25
계양구	-0.01
서 구	-1.40
강화군	1.46
옹진군	1.68

[그림16] 군구별 인구증가율

(단위 : %)



② 인구 천명당 외국인 수

남구의 외국인 수는 인천항과 차이나타운 등이 있는 중구와 공장 밀집지역이 있는 남동구, 서구에 비해서 적었으며, 인천광역시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다. 그러나 주거지역이 많은 연수구, 계양구 등에 비해서는 비교적 높은 수준이었으며, 외국인 인구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표25] 인구 천명당 외국인 수

구 분	인구 천명당 외국인 수(명)
인천광역시	18
중 구	42
동 구	16
남 구	16
연수구	12
남동구	26
부평구	14
계양구	10
서 구	26
강화군	7
옹진군	6

참고 : 인천광역시, 〈2010 인천광역시 통계연보〉

③ 사업체 종사자 수

남구의 사업체 종사자 수는 인천광역시 전체의 13.6%를 차지하고 있다. 가장 많은 구는 남동구로 남동공단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이며, 부평구와 서구 다음으로 남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26] 사업체 종사자 수

구 분	사업체 종사자 수(명)	비율(%)
중 구	60,584	7.9
동 구	30,918	4.0
남 구	103,752	13.6
연수구	48,750	6.4
남동구	174,652	22.8
부평구	137,212	17.9
계양구	65,896	8.6
서 구	122,490	16.0
강화군	16,529	2.2
옹진군	4,231	0.6
인천광역시	765,014	100.0

참고 : 인천광역시, 〈2010 인천광역시 통계연보〉

인구증가율과 사업체 종사자 수 등으로 본 남구의 경제환경은 타 군구에 비해 양호한 수준이었다. 인구가 꾸준히 늘고 있으며, 인천광역시 사업체 종사자 수 가운데 차지하는 비율도 높은 편이었다.

제3절 문화환경

문화환경영역은 문화시설의 충분성 및 활용도, 문화행정의 충분성, 문화예술지원의 충분성 및 다양성으로 평가항목을 구분해 살펴보았다.

[표27] 문화환경 평가지표

영역	관심영역	평가항목	평가지표
문화 환경	문화시설	충분성 및 활용도	시설유형별 1개소 당 인구
			공연장 규모 및 분포
			전시시설 규모 및 분포
			도서관 규모 및 분포
	문화행정	충분성	문화행정인력 비율
			문화예술예산 비율

1. 문화시설의 충분성

문화시설은 크게 공연시설과 전시시설, 도서관, 문예회관, 문화원 및 문화의 집 등으로 나누어 살펴보았으며, 군구간 비교를 위해 등록된 문화시설만을 분석에 활용하였다. 그러나 남구 내에서는 등록되지 않은 시설들이 다소 있어 이에 대한 분석도 덧붙였다.

① 시설 유형별 1개소 당 인구

등록공연장의 경우, 연수구와 옹진군은 등록공연장이 없어 가장 열악했고 남구는 등록공연장 1개소 당 인구가 104,984명으로 인구규모가 비슷한 남동구, 서구에 비해 다소 많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박물관은 중구, 강화군, 동구, 연수구 다음으로 남구의 순이었으며, 등록된 미술관이 있는 군구는 중구와 남구 연수구뿐인 가운데 남구는 1개소로 충분하다고는 할 수 없는 실정이다.

도서관 1개소 당 인구는 남구가 59,991명으로 가장 적어 인구대비 도서관 수는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후 도서관 규모 등을 살펴보면, 남구의 도서관은 대체로 규모가 작은 도서관들로 접근성 면에서는 우수하다고 할 수 있으나 충분한지의 여부는 좀 더 면밀히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문예회관 및 문화원은 기초자치단체 당 1개소를 목표로 건립 ·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문예회관 및 문화원이 없는 군구에 비해서는 나은 실정이라고 할 수 있겠다.

[표28] 시설 유형별 1개소 당 인구

(단위 : 명)

구 분	등록공연장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문예회관	문화원
중 구	14,948	29,896	89,688	89,688	–	89,688
동 구	77,308	77,308	–	77,308	–	–
남 구	104,984	139,978	419,935	59,991	419,935	419,935
연수구	–	90,499	–	135,749	–	271,497
남동구	92,683	231,707	–	231,707	463,414	463,414
부평구	563,920	187,973	–	187,973	563,920	563,920
계양구	114,680	–	–	114,680	344,039	344,039
서 구	79,102	197,754	–	131,836	395,508	395,508
강화군	67,049	33,525	33,525	67,049	67,049	67,049
옹진군	–	–	–	18,221	–	–
평 균	111,467	142,662	677,645	112,941	451,763	338,822

참고 : 문화체육관광부, 〈2010 전국문화기반시설 총람〉

② 공연장 규모 및 분포

먼저 등록공연장을 살펴보면 남구의 등록공연장은 4곳으로 중구, 남동구, 서구 다음으로 많았다. 그러나 인구 천명당 객석 수는 2석으로 등록공연장이 없는 군구를 제외하면 부평구 다음으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공연장 규모 면에서는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29] 등록공연장 1개소 당 인구 및 인구 천명당 객석 수

구 분	등록공연장수(개소)	등록공연장 1개소당인구(명)	객석 수(석)	인구 천명당 객석 수(석)
중 구	6	14,948	1,756	20
동 구	1	77,308	345	4
남 구	4	104,984	677	2
연수구	–	–	–	–
남동구	5	92,683	3,818	8
부평구	1	563,920	185	0
계양구	3	114,680	1,204	3
서 구	5	79,102	1,771	4
강화군	1	67,049	276	4
옹진군	–	–	–	–
계	26	111,467	10,032	5

참고 : 문화체육관광부, 〈2010 등록공연장 현황〉

남구의 공연장은 위의 등록공연장(국악회관, 미추홀종합사회복지관 공연장, 인천문화회관 소극장, 학산소극장) 외에도 6곳과 야외공연장 4곳이 운영 중이다.

[표30] 남구 공연장 현황

구 분	공연장 면적(㎡)	객석 수(석)
국악회관	373	180
미추홀종합사회복지관	276	200
시민교육연극센터	245	110
인천문화회관 소극장	658	183
인천음악문화원	496	180
인하대학교 5남소강당	317	176
작은극장 돌체	489	96
컬쳐팩토리 공연장	117.3	88
학산소극장	445	114
도화문화회관	–	–
수봉민속놀이마당	야외공연장	야외공연장
수봉공원 인공폭포 야외공연장	야외공연장	야외공연장
인천도호부청사 앞마당	야외공연장	야외공연장
인천문학경기장 야외무대	야외공연장	야외공연장

동별로 살펴보면, 학익동, 관교동에는 공연장이 없었고, 인구대비 공연장이 가장 많은 곳은 문학동이었으며 그 다음은 숭의동, 도화동, 용현동, 주안동의 순이었다. 인구 천명당 좌석 수는 숭의동이 9석으로 가장 많았으며, 문학동이 6석, 용현동이 5석, 주안동이 3석의 순이었다. 그러나 여기에는 야외공연장의 객석 수가 합산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밝혀둔다. 숭의동은 남구에서 공연장 수와 객석 수가 모두 가장 많은 동이었다. 주안동과 용현동은 숭의동과 같은 수치로 공연장 수는 남구에서 가장 많지만 객석 수는 적은 것으로 나타나 규모의 확충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표31] 동별 공연장 1개소 당 인구 및 인구 천명당 좌석 수

구 분	공연장 수(개소)	좌석 수(석)	공연장 1개소당 인구(명)	인구 천명당 좌석 수(석)
숭의동	3	363	13,413	9
용현동	3	400	28,546	5
학익동	–	–	–	–
도화동	2	–	23,074	–
주안동	3	480	54,300	3
관교동	–	–	–	–
문학동	3	96	5,311	6

③ 전시시설 규모 및 분포

등록되지 않은 박물관 및 전시장 등을 합산하여 살펴보면, 전시시설 1개소 당 인구가 가장 적은 곳은 강화군이었으며 그 다음은 중구, 동구, 남구의 순이었다. 남구의 전시시설 수는 12곳으로 인천광역시 내 군구 중 가장 많았으며, 인구규모가 비슷한 남동구 및 서구에 비해 월등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32] 군구별 전시시설 1개소 당 인구

구 분	전시시설 수(개소)	전시시설 1개소당 인구(명)
중 구	7	13,364
동 구	3	26,165
남 구	12	35,537
연수구	4	68,649
남동구	8	59,361
부평구	8	71,463
계양구	–	–
서 구	1	405,534
강화군	11	6,145
옹진군	–	–
계	54	62,384

참고 : 인천문화재단, 〈2009 인천문화예술연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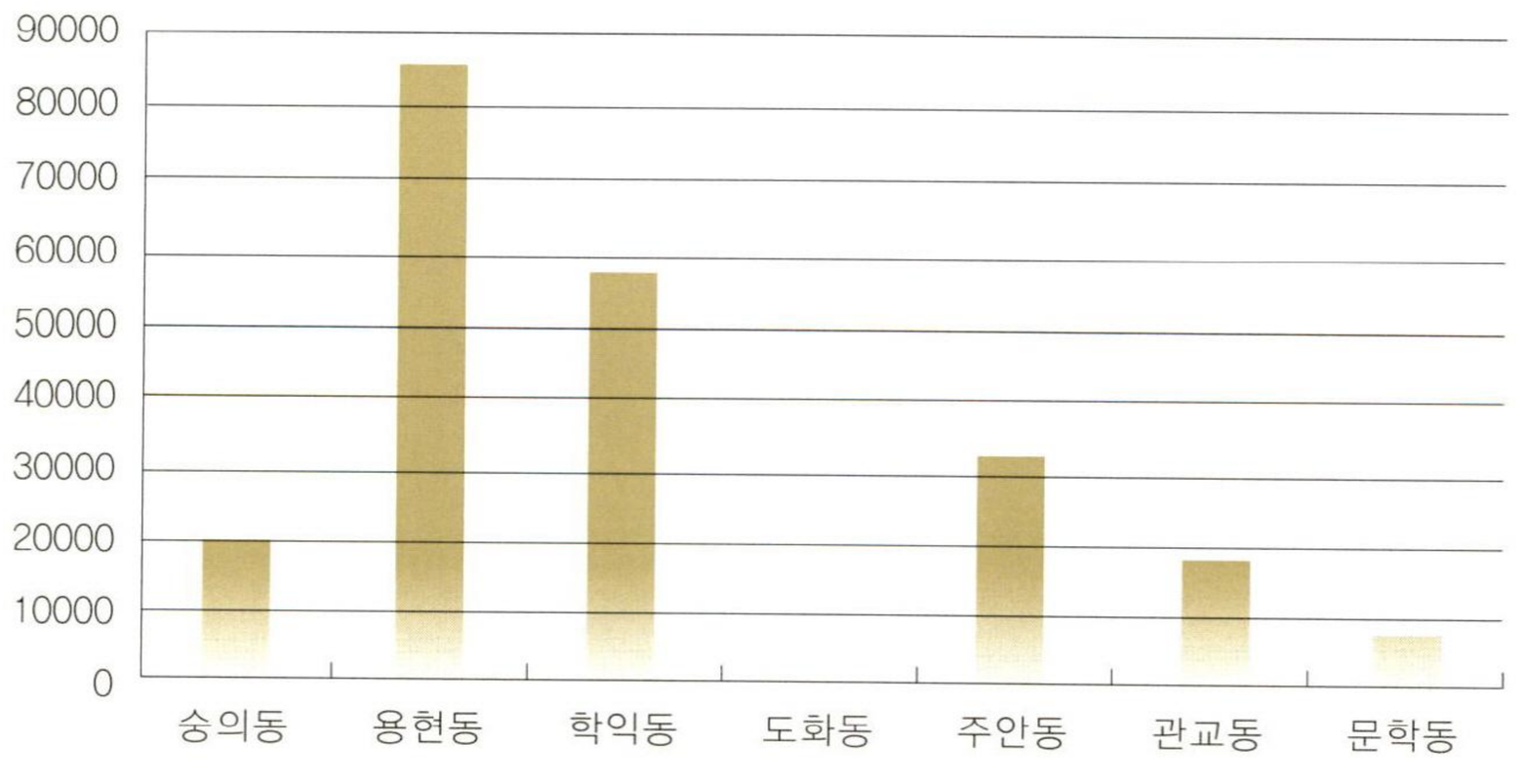
동별로 살펴보면, 전시시설 수가 가장 많은 곳은 주안동이었고 가장 적은 곳은 전시시설이 없는 도화동이었다. 인구대비로 살펴보면, 문학동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관교동과 숭의동의 순이었다. 주안동의 경우 5곳으로 전시시설 수는 가장 많았지만 인구에 비해서는 다른 동에 비해 많은 수준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시시설이 없는 도화동을 제외하면 전시시설 1개소 당 인구가 가장 많은 동은 용현동이었다.

[표33] 동별 전시시설 1개소 당 인구

구 분	전시시설 수(개소)	전시시설 1개소당 인구(명)
숭의동	2	20,120
용현동	1	85,637
학익동	1	57,244
도화동	–	–
주안동	5	32,580
관교동	1	18,347
문학동	2	7,968

[그림17] 동별 전시시설 1개소 당 인구

(단위 : 명)



[표34] 남구 전시시설 목록

No.	전시시설명	주 소
1	송암미술관	남구 아암5길 35
2	국제성서박물관	남구 경인로 349번길 9 주안감리교회 내 교육관
3	불교사리박물관	남구 햇골길 37 서광사 내
4	인천어린이박물관	남구 경원대로 597 문학경기장 내
5	인하대학교박물관	남구 소성로 31
6	범패박물관	남구 경인로 70번길 11-3
7	노 갤러리	남구 문학동 매소홀로 514번길 14 301호
8	성서박물관 전시실	남구 경인로 349번길 9 주안감리교회 내
9	인천신세계갤러리	남구 연남로 35 신세계백화점 테마관 1층
10	인천문화회관 전시실	남구 수봉안길 78
11	모아아트홀(구 한서아트홀)	남구 경인로 406
12	혜원갤러리	남구 미추홀대로 634

참고 : 인천문화재단, 〈2009 인천문화예술연감〉

④ 도서관 규모 및 분포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도서관 수는 남구가 가장 많다. 그러나 좌석 수 및 도서자료 수 등은 다른 구에 비해 부족한 수준이었으며, 사서의 수도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규모가 작은 도서관이 많은 남구의 특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표35] 군구별 도서관 수 및 규모

구분	도서관 수 (개소)	좌석 수(석)	인구 1만명당 좌석 수(석)	도서자료 수 (개소)	인구100명당 도서자료 수 (개소)	사서직원 수 (명)	사서1인당 인구 수(명)
중 구	1	250	28	45,185	50	8	11,211
동 구	1	1,002	125	164,688	213	12	6,442
남 구	7	2,260	54	305,589	73	24	17,497
연수구	2	1,395	52	176,589	65	13	20,884
남동구	2	3,056	66	497,229	107	35	13,240
부평구	3	2,948	53	463,646	82	30	18,797
계양구	3	1,758	52	183,302	53	14	24,574
서 구	3	1,608	40	246,361	62	16	24,719
강화군	1	192	27	36,096	54	1	67,049
옹진군	1	66	33	25,641	141	0	0
계	24	1,454	53	214,433	90	15	20,442

참고 : 문화체육관광부, 〈2010 전국문화기반시설 총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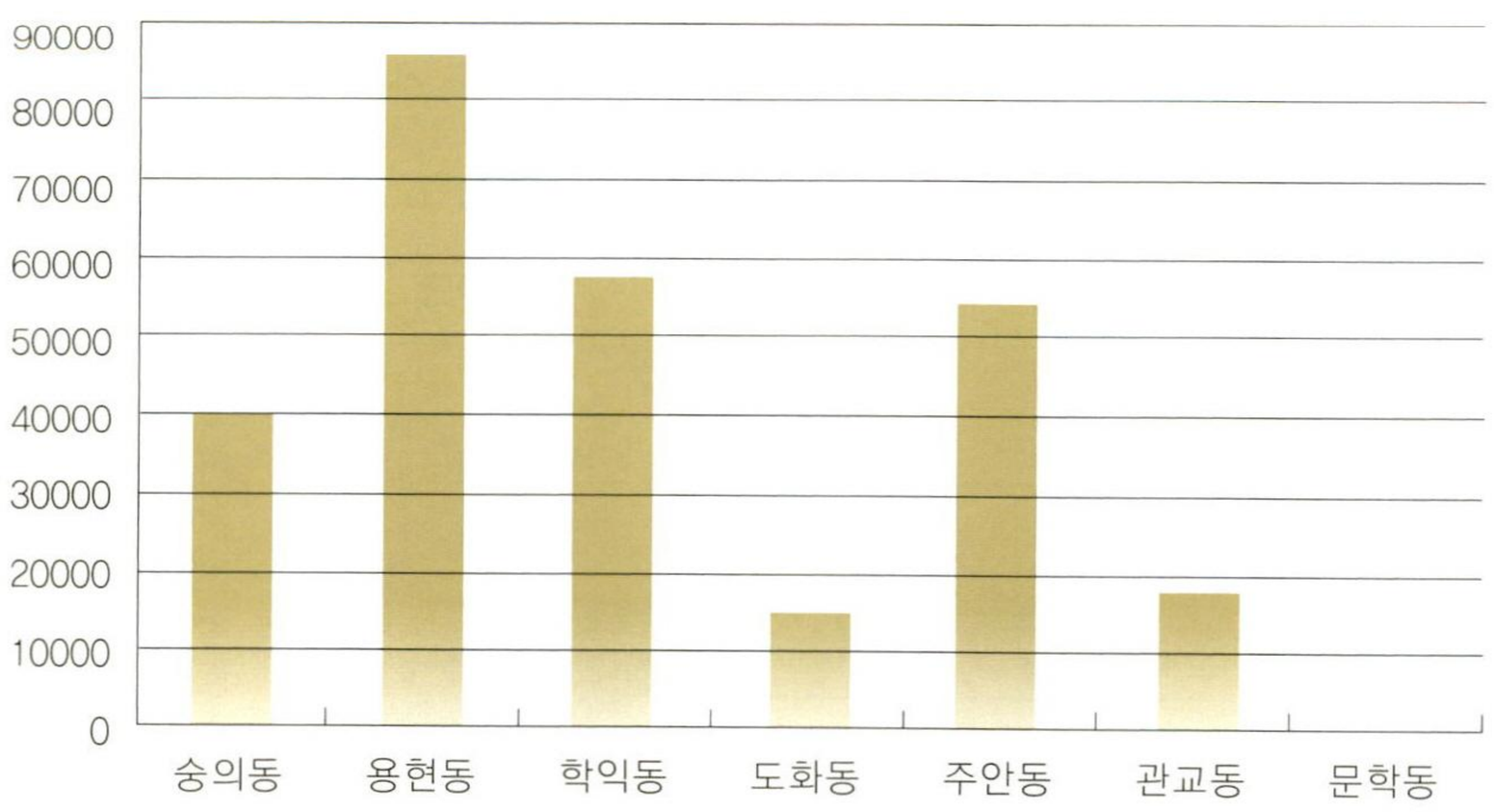
동별로는 도화동과 주안동에 도서관이 3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가장 적은 곳은 도서관이 없는 문학동이었다. 인구대비로 살펴보면, 도화동이 도서관 1개소 당 인구 15,383명으로 가장 적어 인구대비 도서관 수도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은 관교동, 숭의동, 주안동, 학익동, 용현동, 문학동의 순이었다.

[표36] 동별 도서관 1개소 당 인구

구 분	도서관 수(개소)	도서관 1개소당 인구(명)
숭의동	1	40,239
용현동	1	85,637
학익동	1	57,244
도화동	3	15,383
주안동	3	54,300
관교동	1	18,347
문학동	0	–

[그림18] 동별 도서관 1개소 당 인구

(단위 : 명)



도서관 이용현황을 보면, 인구대비 이용자 수는 남구가 11.6명으로 가장 많아 도서관 수도 많고 이용률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대출이용비율은 14.2%로 군구 가운데 가장 낮았는데, 이는 남구의 도서관이 대부분 규모가 작은 어린이도서관 위주이다 보니 대출보다는 열람 및 이용비율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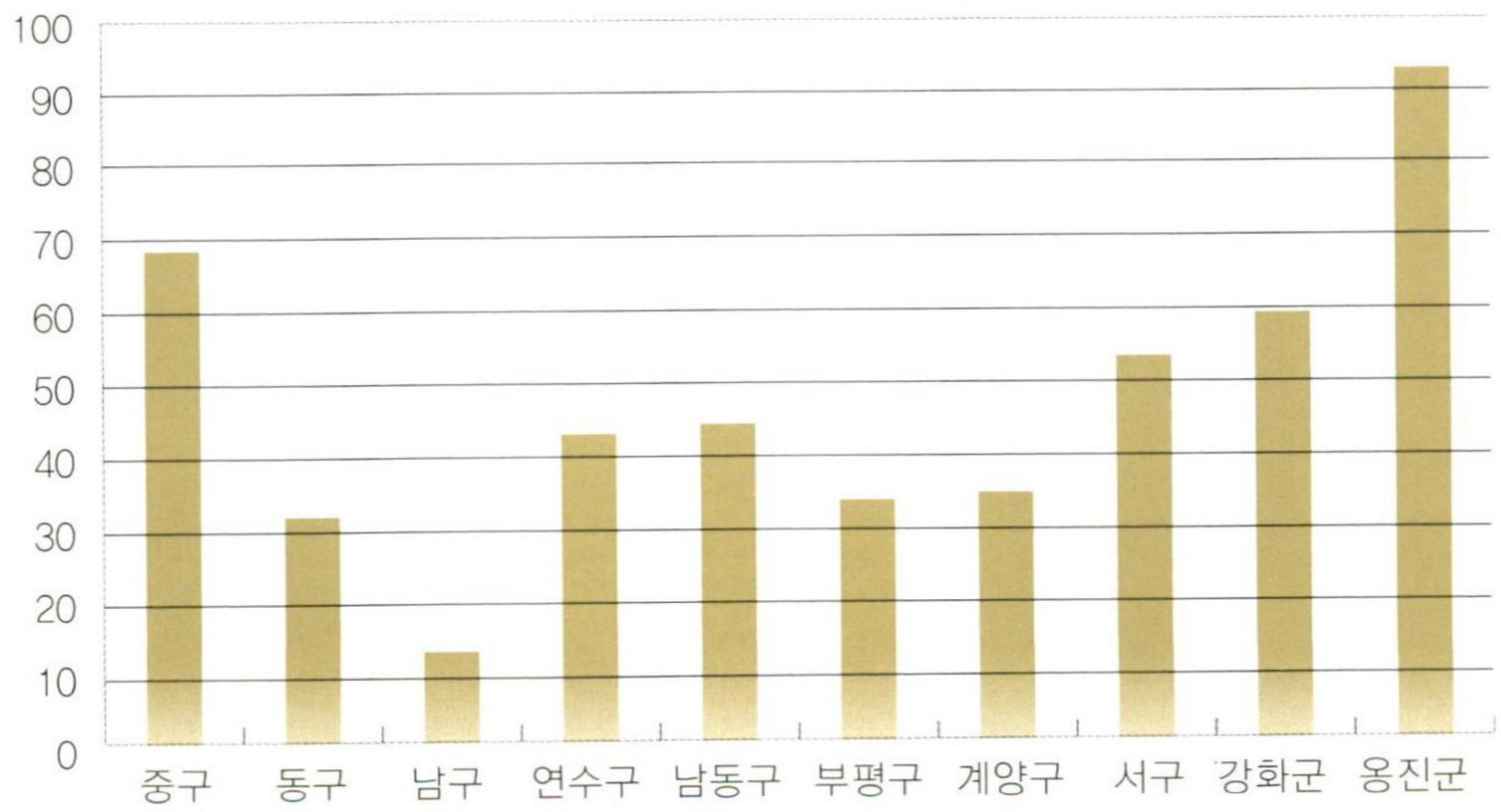
[표37] 군구별 도서관 이용현황

구 분	이용자 수(명)	인구대비 이용자 수(명)	대출건수(건)	대출이용비율(%)
중 구	126,604	1.4	87,418	69.0
동 구	707,134	9.1	227,530	32.2
남 구	4,885,616	11.6	691,634	14.2
연수구	1,560,233	5.7	685,854	44.0
남동구	1,627,687	3.5	730,033	44.9
부평구	2,630,457	4.7	903,303	34.3
계양구	1,777,338	5.2	645,542	36.3
서 구	1,317,668	3.3	714,280	54.2
강화군	67,992	1.0	40,756	59.9
옹진군	14,589	0.8	13,764	94.3
평 균	1,471,532	5.0	474,011	48.3

참고 : 문화체육관광부, 〈2010 전국문화기반시설 총람〉

[그림19] 군구별 도서관 대출이용 비율

(단위 : %)



동별 공연시설, 전시시설 및 도서관의 분포를 종합해보면, 인구대비 공연시설과 전시시설이 가장 많은 곳은 문학동이었다. 그러나 문학동은 남구에서 유일하게 도서관이 없는 동으로 이에 대한 해결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가장 열악한 곳은 도화동이었다. 도화동의 경우 공연시설과 전시시설은 한 곳도 없었으나, 비교적 최근에 개관한 수봉도서관을 비롯해 도서관 수는 인구 대비하여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용현동 역시 공연시설 3곳을 제외하면 전시시설과 도서관은 모두 한 곳씩 분포하고 있었으며, 학익동은 공연시설, 전시시설, 도서관 모두 다른 동에 비해 열악한 수준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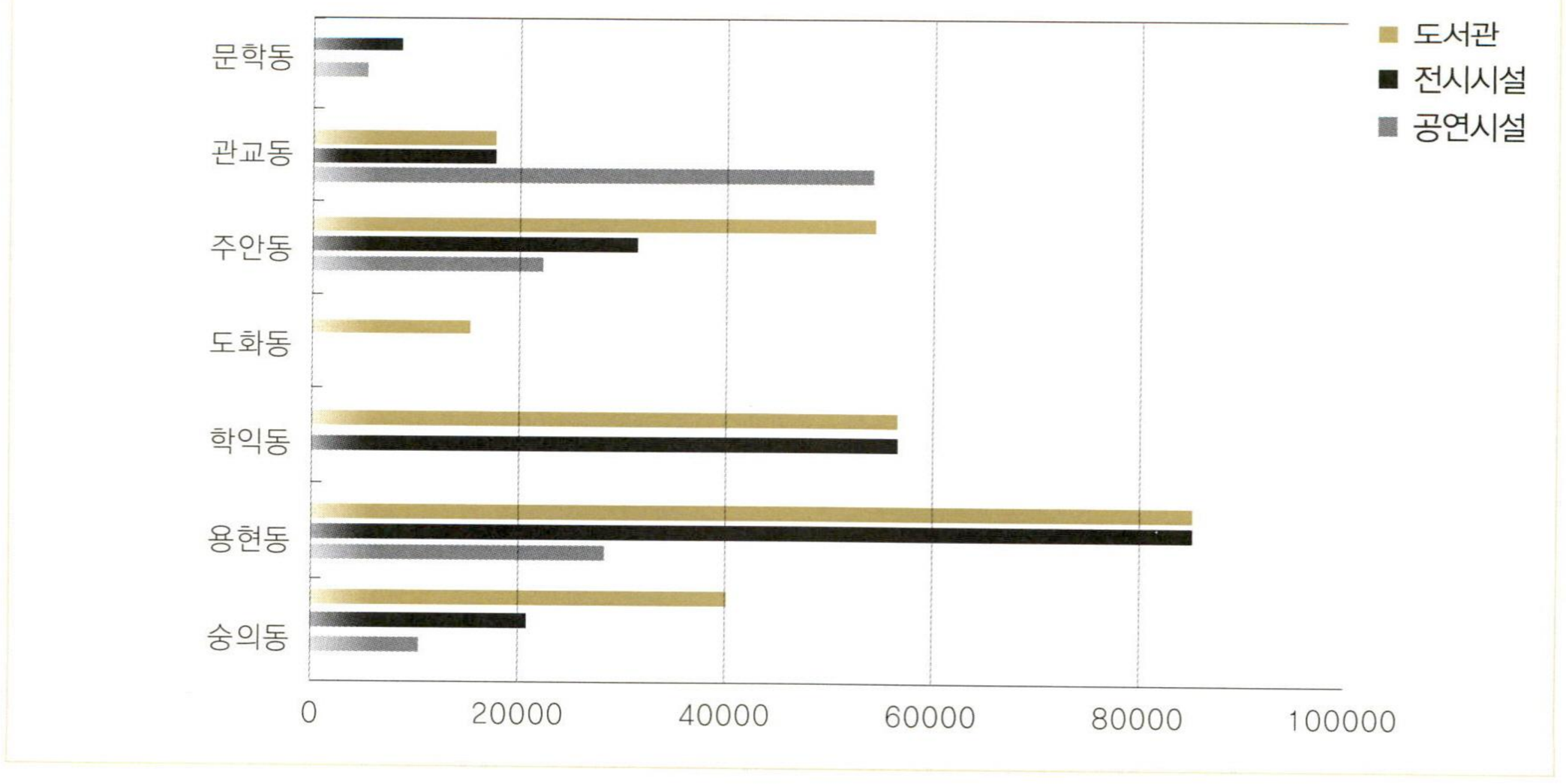
[표38] 동별 · 시설유형별 1개소 당 인구

(단위 : 명)

구 분	공연시설	전시시설	도서관
숭의동	13,413	20,120	40,239
용현동	28,546	85,637	85,637
학익동	–	57,244	57,244
도화동	–	–	15,383
주안동	23,074	32,580	54,300
관교동	54,300	18,347	18,347
문학동	5,311	7,968	–

[그림20] 동별 · 시설유형별 1개소 당 인구

(단위 : 명)



2. 문화행정의 충분성

문화행정의 충분성은 크게 인력과 예산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인력은 문화예술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의 수와 비율로 분석하였으며, 예산은 전체 예산 중 문화예술관련 예산의 규모와 비율을 분석하였다.

① 문화행정인력 비율

인천광역시 내 각 군구의 문화예술관련 조직은 문화예술을 비롯하여 홍보, 관광, 체육 업무 등과 통합 운영되고 있다. 관련 부서는 업무 성격별로 나뉘어 있더라도 업무내용 상으로는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각 군구의 조직운영에 따른 광범위한 의미의 문화관련 행정인력과 문화예술관련 고유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문화예술행정인력으로 조사범위를 구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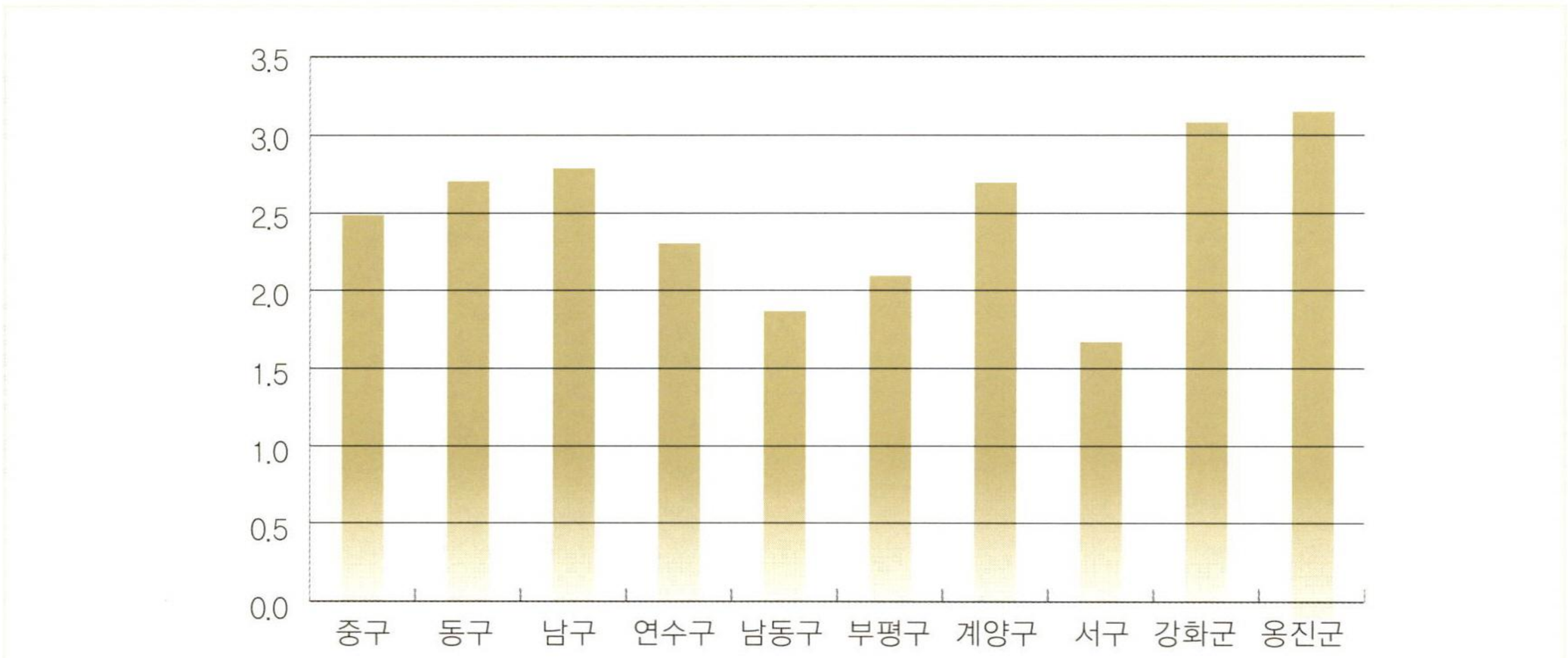
10개 군구 가운데 전체 공무원 수 대비 문화관련 행정인력의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옹진군이었으며, 그 다음은 강화군, 남구, 동구, 계양구의 순이었다. 관광 및 문화재 관련 공무원이 많은 강화군과 옹진군의 특성을 고려하면, 남구의 문화관련 행정인력은 타 군구에 비해 많은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남구에는 인천광역시에서 유일하게 문화산업 관련 부서가 운영 중이기도 하다.

[표39] 문화관련 행정인력 수 및 비율

구 분	문화관련 행정 인력 수(명)	전체 공무원 수(명)	문화관련 행정 인력 비율(%)
중 구	15	602	2.5
동 구	17	619	2.7
남 구	23	812	2.8
연수구	14	597	2.3
남동구	19	986	1.9
부평구	18	876	2.1
계양구	17	636	2.7
서 구	16	948	1.7
강화군	20	639	3.1
옹진군	17	530	3.2

[그림21] 문화관련 행정인력 비율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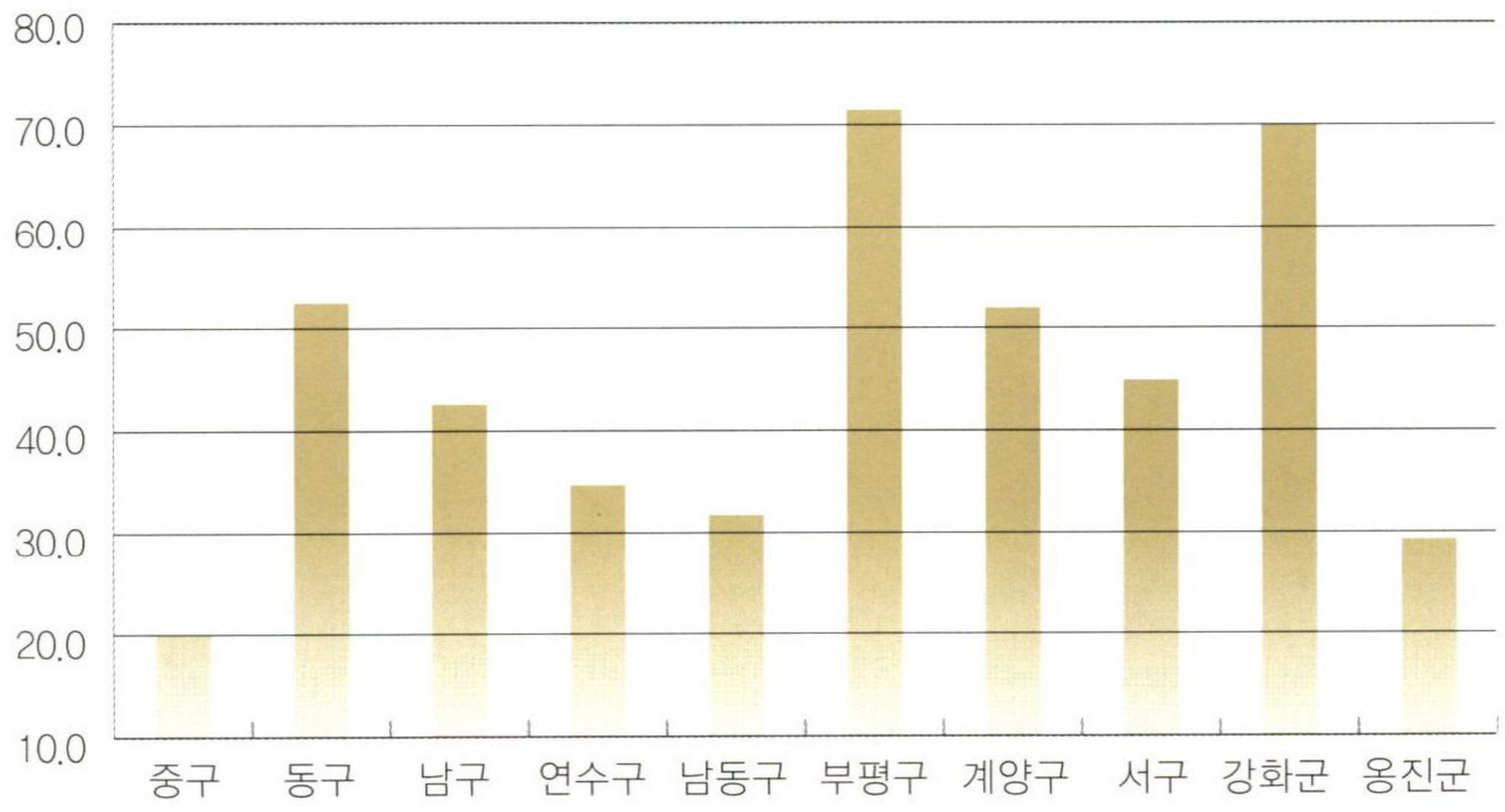
광범위한 의미의 문화관련 행정인력 가운데 문화예술진흥, 문화재, 문화시설운영 등과 같은 문화예술관련 고유의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인력의 수를 비교해 보았다. 문화관련 행정인력의 비율은 남구가 매우 높은 편이었지만 이 가운데 문화예술관련 고유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비율은 43.5%로 타 군구에 비해 낮은 수준이었다. 실제로 문화홍보실 인력 23명 가운데 7명이 홍보, 6명이 체육진흥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실제 문화예술 행정인력은 10명에 그치고 있다.

[표40] 문화예술행정인력 비율

구 분	문화예술행정인력 수(명)	문화관련 행정인력 수(명)	문화예술행정인력 비율(%)
중 구	3	15	20.0
동 구	9	17	52.9
남 구	10	23	43.5
연수구	5	14	35.7
남동구	6	19	31.6
부평구	13	18	72.2
계양구	9	17	52.9
서 구	7	16	43.8
강화군	14	20	70.0
옹진군	5	17	29.4

[그림22] 문화예술행정인력비율

(단위 : %)



③ 문화예술예산 비율

문화예술예산은 2010년 본예산 중 문화예술관련 세출예산으로 분석하였다. 문화예술관련 예산에는 관광, 체육, 홍보 관련 예산을 제외한 문화예술진흥, 문화재, 문화시설 운영 등과 관련된 예산만을 합산하여 산출하였다.

전체 예산 중 문화예술 관련 예산의 비율이 높은 곳은 강화군과 부평구였다. 강화군의 문화예술 관련 예산에는 문화재 관련 예산이 높게 책정되어 있었고, 부평구의 경우는 최근 개관한 부평아트센터의 관리운영예산이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 남구의 문화예술 예산 비율은 1.0%로 중구, 서구와 비슷한 수준이었으며, 동구, 남동구 등에 비해서는 두 배 이상 높았다.

[표41] 군구별 문화예술예산 비율

구 분	전체 예산(백만원)	문화예술예산(천원)	문화예술예산 비율(%)
중 구	246,555	2,591,540	1.1
동 구	154,185	622,113	0.4
남 구	327,243	3,213,653	1.0
연수구	262,592	1,905,275	0.7
남동구	418,589	1,541,590	0.4
부평구	495,893	14,621,383	2.9
계양구	247,180	2,045,041	0.8
서 구	415,642	4,298,204	1.0
강화군	464,835	14,718,407	3.2
옹진군	272,238	1,340,196	0.5

[그림23] 문화예술예산 비율

(단위 : %)



동 예산 가운데 문화예술 관련 예산으로 볼 수 있는 예산은 주민자치센터 강좌 운영예산 정도이다. 그러나 이 예산역시 21,000천원으로 모든 동이 동일하게 책정되어 있어 지역주민의 욕구나 문화적 필요성보다는 예산에 맞추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급급한 실정이다.

제4절 문화자원

남구의 문화자원에 대해서는 크게 인력과 문화유산, 지역축제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평가항목은 문화예술인력의 충분성과 잠재성, 문화유산의 충분성과 활용도, 지역축제의 충분성 등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표42] 문화자원 평가지표

영역	관심영역	평가항목	평가지표
문화 자원	문화예술 인력	충분성	장르별 문화예술인 수 및 비율
			무형문화재 수 및 비율
		잠재성	문화예술 관련 학과 수
			문화예술 관련 교수 수
	문화유산	충분성	문화재 수
			이야기 자원 현황
	지역축제	충분성	유형별 축제 수 및 비율

1. 문화예술인력의 충분성

문화예술인력의 충분성은 장르별 문화예술인의 수 및 비율, 무형문화재 수 및 비율을 통해 살펴보았다.

① 장르별 문화예술인 수 및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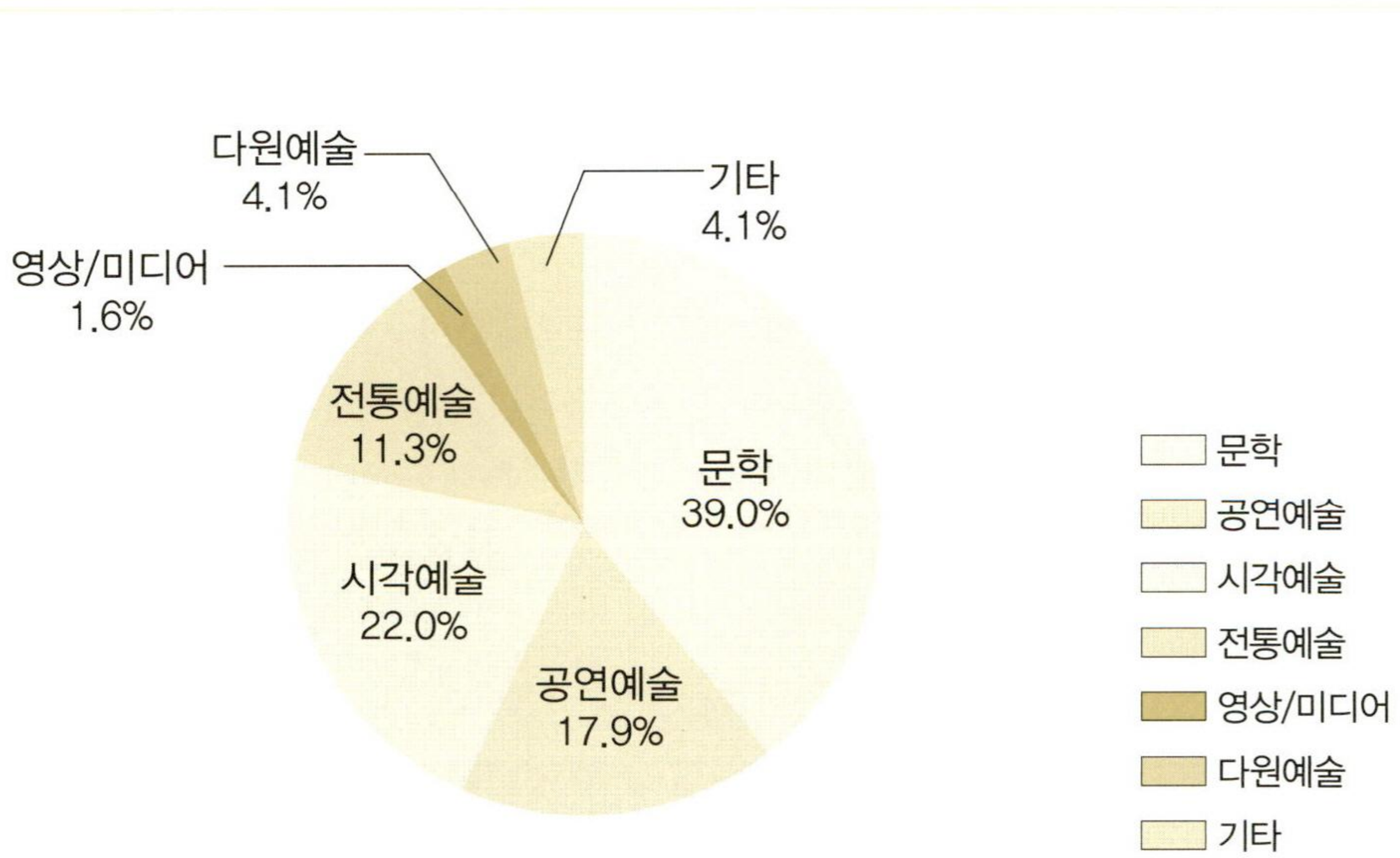
남구의 장르별 문화예술인 수 및 비율을 살펴보면, 문학이 48명, 39.0%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시각예술, 공연예술, 전통예술의 순이었다. 문화예술활동과 관련한 지표분석을 통해 남구 문화예술인의 활동성에 관한 부분은 이후에 다시 분석하도록 한다.

[표43] 장르별 남구 문화예술인 수 및 비율

구 분	문화예술인 수(명)	문화예술인 비율(%)
문 학	48	39.0
공연예술	22	17.9
시각예술	27	22.0
전통예술	14	11.3
영상/미디어	2	1.6
다원예술	5	4.1
기 타	5	4.1
합 계	123	100.0

[그림24] 장르별 문화예술인 비율

(단위 : %)



② 무형문화재 수 및 비율

중요무형문화재 제61호 은율탈춤과 제82-나호 서해안배연신굿 및 대동굿이 남구에 있다. 인천의 중요무형문화재가 총 4가지인 점을 감안하면 그 절반이 남구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수는 3명으로 인천광역시 전체의 33.3%, 전수교육조교는 7명으로 41.2% 이수자는 55명으로 50.0%를 차지하고 있어 인천의 중요무형문화재 관련 인력 중 남구에서 활동하고 있는 인력의 비율이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44] 남구 무형문화재 관련 인력 수 및 비율

구 분	남구(명)	인천광역시(명)	비율(%)
보유자	3	9	33.3
전수교육조교	7	17	41.2
이수자	55	110	50.0

참고 : 문화재청, 〈2010 주요문화재등록현황〉

2. 문화예술인력의 잠재성

문화예술인력의 잠재성은 인천 소재 대학교 및 전문대학의 문화예술관련 학과 수와 교수 수로 분석했다. 계양구 소재 대학교 및 전문대학의 문화예술관련 전공이 10개 개설되어 있고, 교수 수도 35명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은 인천대학교와 인천가톨릭대학교가 위치한 연수구가 많았으며, 인하대학교와 인하공업전문대학이 위치한 남구는 7개 전공, 교수 22명이었다.

[표45] 문화예술관련 학과 수 및 교수 수

구 분	문화예술관련 학과 수(개소)	문화예술관련 학과 교수 수(명)
동 구	4	17
남 구	7	22
연수구	10	27
계양구	10	35

3. 문화유산의 충분성

문화유산의 충분성을 판단하기 위한 평가지표는 문화재 수, 이야기 자원 현황, 문화유산 관련 프로그램 비율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① 문화재 수

남구의 문화재 수는 타 군구에 비해 적은 편이다. 인천광역시 문화재 중 절반가량은 강화도에 위치하고 있으며, 부평구가 2개로 가장 적지만 동구, 남구, 남동구 모두 6개로 그 다음으로 적었다.

[표46] 문화재 수 및 비율

(단위 : 개)

구 분	국가지정문화재	시지정문화재	등록문화재	전체	비율(%)
중 구	1	17	4	22	9.7
동 구	0	6	0	6	2.7
남 구	0	5	1	6	2.7
연수구	14	4	0	18	8.0
남동구	0	6	0	6	2.7
부평구	2	0	0	2	0.9
계양구	0	9	0	9	4.0
서 구	2	7	0	9	4.0
강화군	29	73	0	102	45.1
옹진군	8	0	0	8	3.5
본 청	6	32	0	38	16.8
합 계	62	159	5	226	100.0

참고 : 문화재청, 〈2010 지정문화재 총괄 현황〉

② 이야기자원 현황

각 지역의 이야기자원은 지역의 문화적 정체성을 확립하거나 지역 고유의 문화콘텐츠 등을 개발해 나가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이야기자원은 그 특성상 경계를 짓기가 어려운 점이 있어 군구별, 동별 양적 비교보다는 현재 남구의 이야기자원 현황을 정리하여 기초적인 자료를 만들고자 하였다. 아래 열거된 이야기자원들은 인천시사편찬위원회의 자료를 인용한 것이다.

[그림25] 남구 이야기자원 목록

1. 문학산 사모지 고개 / 술바위와 갑옷바위 전설
2. 헛수고로 돌아간 산신 우물가의 백일 기도
3. 존장의 사과를 받은 여섯 살짜리 제운 선생
4. 으스스한 이름의 도깨비다리
5. 나라의 제사를 지내던 사라진 무인도 낙섬
6. 문학산 안관당에 얽힌 이야기
7. 홍두깨가 팔미도에 떠오르다
8. 비극의 주인공 비류와 미추홀

4. 지역축제의 충분성

지역축제의 충분성에 대해서는 2009년 한 해 동안 인천에서 열린 축제를 유형별로 분석해보았다. 축제유형은 도시 · 관광, 문화예술, 자연 · 건강, 전통 · 역사, 지역, 청소년으로 구분하였으며, 남구는 문화예술관련 축제가 11개로 가장 많았다. 타 군구에 비해서도 문화예술관련 축제의 수가 월등히 많았다. 반면 전통 · 역사, 청소년 관련 축제는 개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47] 유형별 지역축제 수

구분	도시/관광	문화예술	자연/건강	전통/역사	지역	청소년
중 구	3	8	1	0	0	0
동 구	0	0	1	2	1	0
남 구	1	11	4	0	1	0
연수구	3	0	0	0	0	2
남동구	1	5	2	0	0	1
부평구	2	2	0	1	1	1
계양구	0	0	0	1	0	0
서 구	0	3	0	0	1	2
강화군	2	1	4	0	0	0
옹진군	0	0	0	0	0	0
합 계	12	30	12	4	4	6

참고 : 인천문화재단, 〈2009 인천문화예술연감〉

제5절 문화활동

문화활동영역은 관심영역을 문화예술 창작 및 발표활동, 문화예술교육활동, 문화예술동호회활동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각각의 충분성 및 다양성에 대해서는 장르별 또는 유형별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표48] 문화활동 평가지표

영역	관심영역	평가항목	평가지표
문화활동	문화예술 창작 및 발표	충분성 및 다양성	장르별 문화예술 창작 및 발표활동 비율
	문화예술교육	충분성 및 다양성	장르별 문화예술교육활동 비율
	문화예술 동호회	충분성 및 다양성	유형별 문화예술동호회 수 및 회원 수
			장르별 문화예술동호회 비율

1. 문화예술 창작 및 발표활동의 충분성 및 다양성

문화예술 창작 및 발표활동은 크게 공연예술, 문학, 시각예술, 전통예술로 장르를 구분하여 각각의 활동 건수와 비율을 분석하였다.

남구는 공연예술 창작 및 발표활동은 남구에서 개최된 경우가 인천 전체의 11.4%였으며, 종합문화예술회관이 있는 남동구가 가장 많았다. 무엇보다 인천광역시 전체 전통예술 창작 및 발표활동 중 남구에서 개최된 경우가 34.5%로 수봉야외놀이마당, 인천도호부청사 등의 전통예술관련 야외공연장을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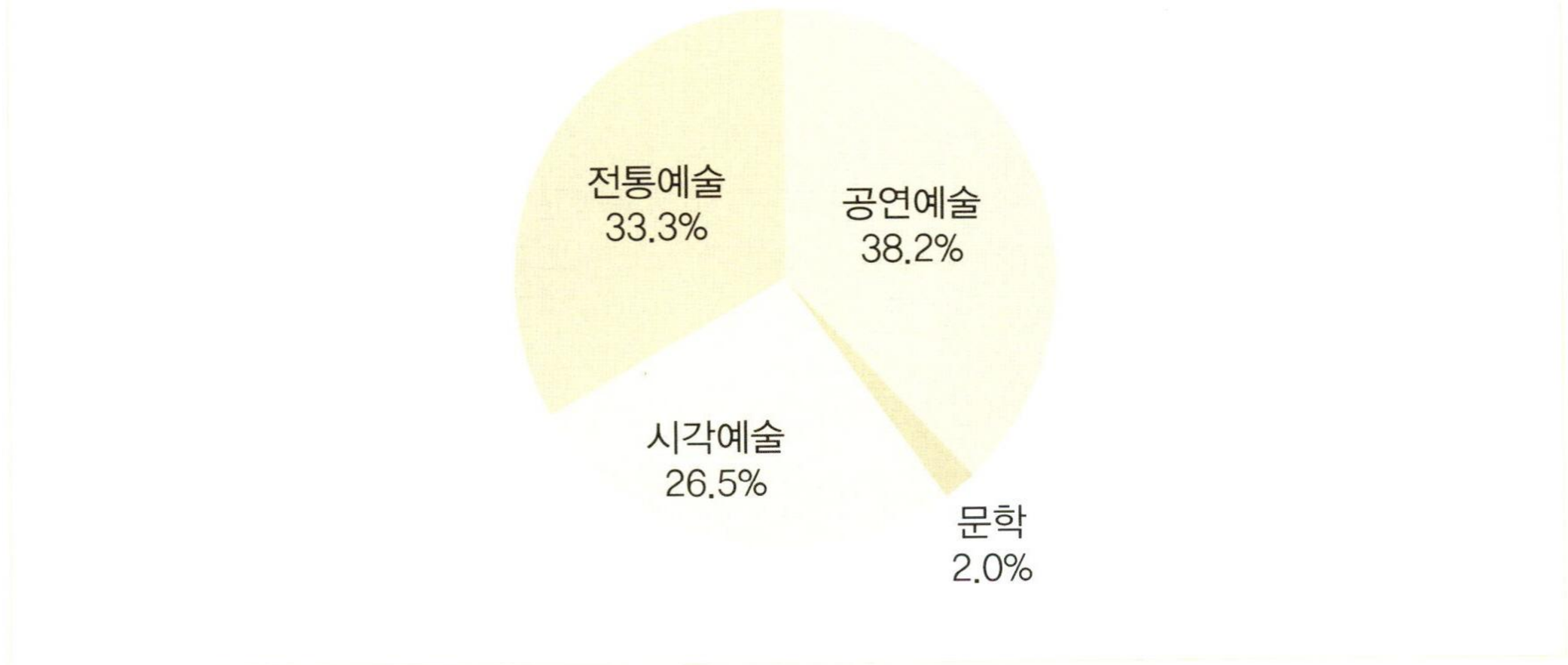
[표49] 군구별 문화예술 창작 및 발표활동 수 및 비율

구분	공연예술		문학		시각예술		전통예술	
중 구	100	14.6%	3	9.1%	49	12.0%	11	5.6%
동 구	12	1.7%	2	6.1%	12	2.9%	5	2.5%
남 구	78	11.4%	4	12.1%	54	13.3%	68	34.5%
연수구	30	4.4%	2	6.1%	68	16.7%	15	7.6%
남동구	253	36.8%	5	15.2%	152	37.3%	25	12.7%
부평구	108	15.7%	6	18.2%	49	12.0%	54	27.4%
계양구	27	3.9%	0	0.0%	4	1.0%	5	2.5%
서 구	54	7.9%	6	18.2%	4	1.0%	4	2.0%
강화군	25	3.6%	5	15.2%	15	3.7%	5	2.5%
옹진군	0	0.0%	0	0.0%	0	0.0%	5	2.5%
합 계	687	100.0%	33	100.0%	407	100.0%	197	100.0%

참고 : 인천문화재단, 〈2009 인천문화예술연감〉

남구에서는 공연예술 활동이 38.2%로 가장 많았고, 전통예술이 33.3%, 시각예술이 26.5%, 문학이 2.0%의 순이었다. 타 군구와 비교해 보면, 공연예술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지만 전통예술 활동이 차지하는 비율은 최대 6배까지 높은 것으로 나타나 전통예술 활동이 남구에서 활발하게 개최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26] 남구 장르별 문화예술 창작 및 발표활동



[표50] 장르별 문화예술 창작 및 발표활동 수

구분	공연예술	문학	시각예술	전통예술	계
중 구	100	3	49	11	163
	61.3%	1.8%	30.1%	6.8%	100.0%
동 구	12	2	12	5	31
	38.7%	6.5%	38.7%	16.1%	100.0%
남 구	78	4	54	68	204
	38.2%	2.0%	26.5%	33.3%	100.0%
연수구	30	2	68	15	115
	26.1%	1.8%	59.1%	13.0%	100.0%
남동구	253	5	152	25	435
	58.2%	1.1%	34.9%	5.8%	100.0%
부평구	108	6	49	54	217
	49.8%	2.7%	22.6%	24.9%	100.0%
계양구	27	0	4	5	36
	75.0%	0.0%	11.1%	13.9%	100.0%
서 구	54	6	4	4	68
	79.4%	8.8%	5.9%	5.9%	100.0%
강화군	25	5	15	5	50
	50.0%	10.0%	30.0%	10.0%	100.0%
옹진군	0	0	0	5	5
	0.0%	0.0%	0.0%	100.0%	100.0%

참고 : 인천문화재단, 〈2009 인천문화예술연감〉

2. 문화예술교육활동의 충분성 및 다양성

문화예술교육활동의 충분성 및 다양성에 대해서는 2009년 한 해 동안 남구 내 공공문화시설에서 열린 문화예술강좌를 대상으로 장르별로 분포를 살펴보았다. 군구별 비교를 위해 백화점 및 대형마트 문화센터 등 사설문화센터의 문화예술관련 강좌는 포함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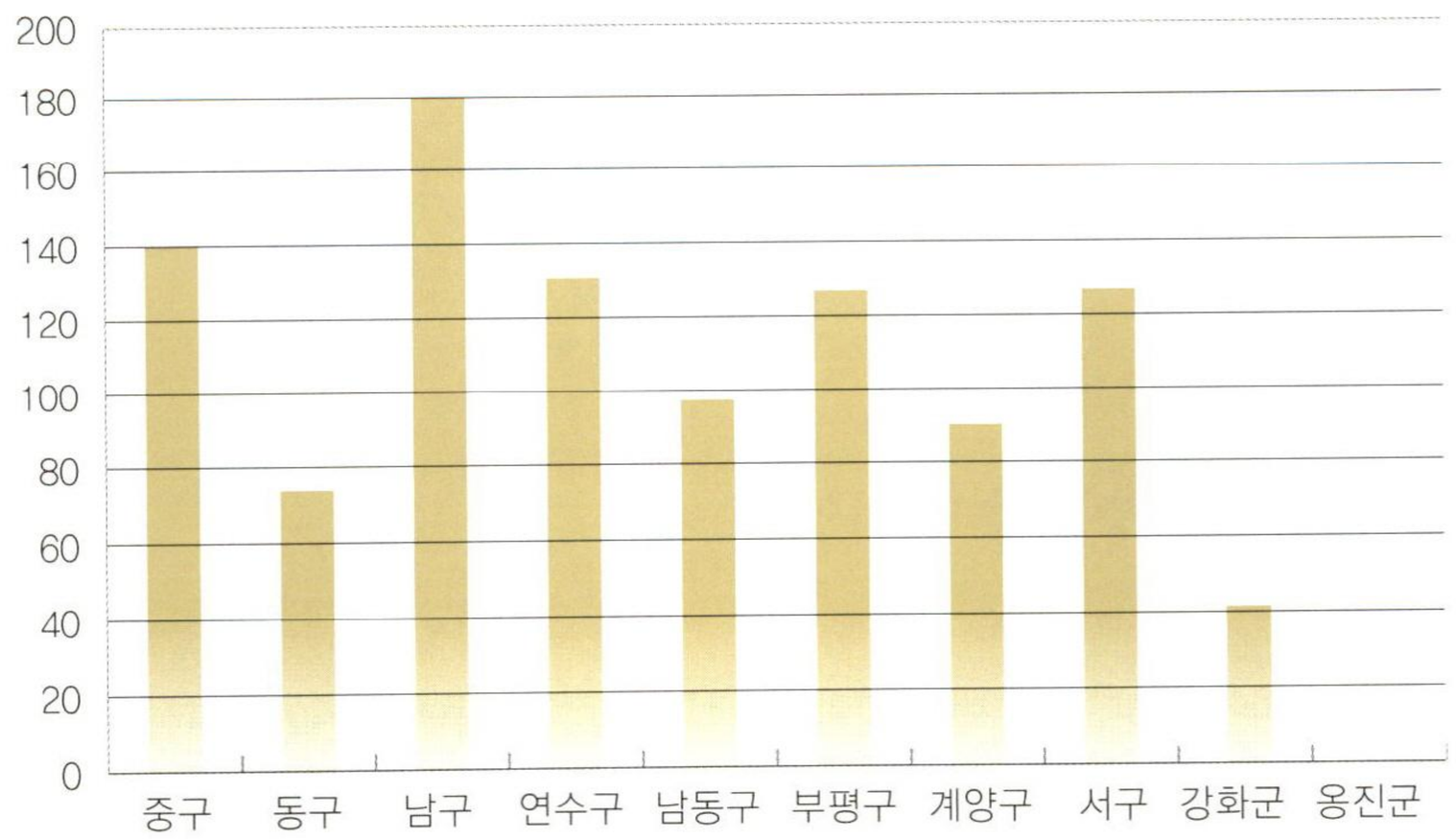
[표51] 군구별 문화예술강좌 수 및 비율

구 분	문화예술강좌 수	문화예술강좌 비율
중 구	140	13.7%
동 구	75	7.4%
남 구	180	17.7%
연수구	130	12.8%
남동구	99	9.7%
부평구	129	12.7%
계양구	94	9.2%
서 구	129	12.7%
강화군	43	4.2%
옹진군	0	0.0%
합 계	1,019	100.0%

참고 : 인천문화재단, 〈2009 인천문화예술연감〉

문화예술강좌의 수는 남구가 180개로 인천 내 군구 가운데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율도 전체 1019개 문화예술강좌 중 17.7%가 남구에서 열린 것으로 나타나 남구의 문화시설에서 비교적 활발하게 문화예술교육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27] 군구별 문화예술강좌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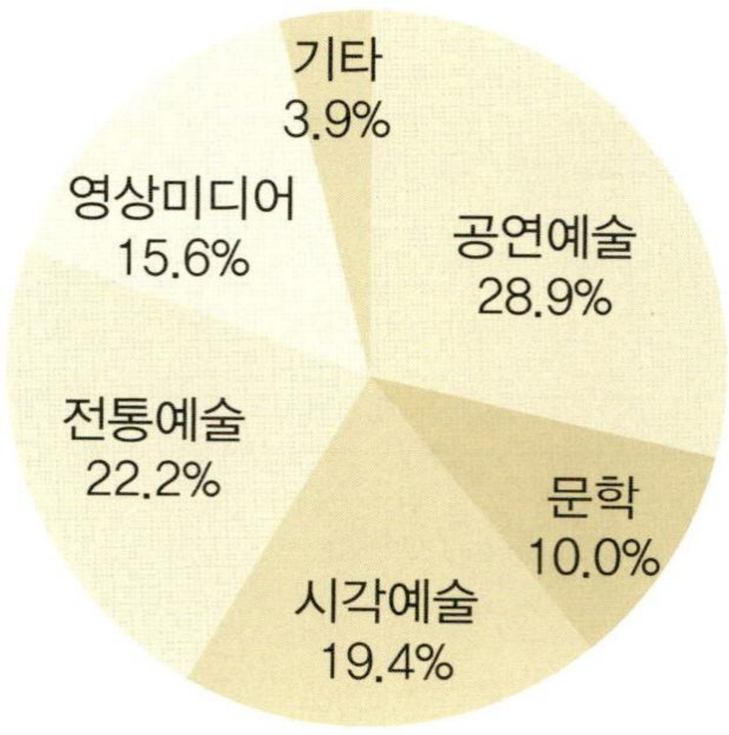
장르별로 보면, 공연예술분야의 문화예술강좌가 전체의 28.9%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전통예술분야였다. 주안영상미디어센터와 청소년미디어센터가 위치해 있어 영상미디어분야의 문화예술강좌도 15.6%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표52] 장르별 문화예술강좌 수 및 비율

구 분	문화예술강좌 수	문화예술강좌 비율
공연예술	52	28.9%
문 학	18	10.0%
시각예술	35	19.4%
전통예술	40	22.2%
영상미디어	28	15.6%
기 타	7	3.9%
합 계	180	100.0%

참고 : 인천문화재단, 〈2009 인천문화예술연감〉

[그림28] 장르별 문화예술강좌 비율



3. 문화예술동호회활동의 충분성 및 다양성

남구의 문화예술동호회활동 실태는 남구 평생학습센터와 주민자치센터, 문화원, 복지관 등을 통해 구성된 동호회를 중심으로 조사하였다. 유형별로 보면 주민자치센터나 평생학습센터를 중심으로 구성된 동호회가 26개로 가장 많았으며, 문화원 및 도서관 중심의 동호회가 7개, 복지관 및 기타가 5개의 순이었다. 주민자치센터 및 평생학습센터의 강좌 수강을 계기로 운영 중인 동호회가 가장 많고, 문화원 및 도서관 등 문화시설을 중심으로 한 동호회 수는 비교적 매우 적다는 점에서 남구의 문화예술동호회활동은 생활권 문화관련 시설을 통해서 주로 이루어지고 상대적으로 문화예술동호회활동을 조직하고 운영하는 데 문화시설의 역할은 적은 편임을 알 수 있다.

[표53] 유형별 문화예술동호회 수 및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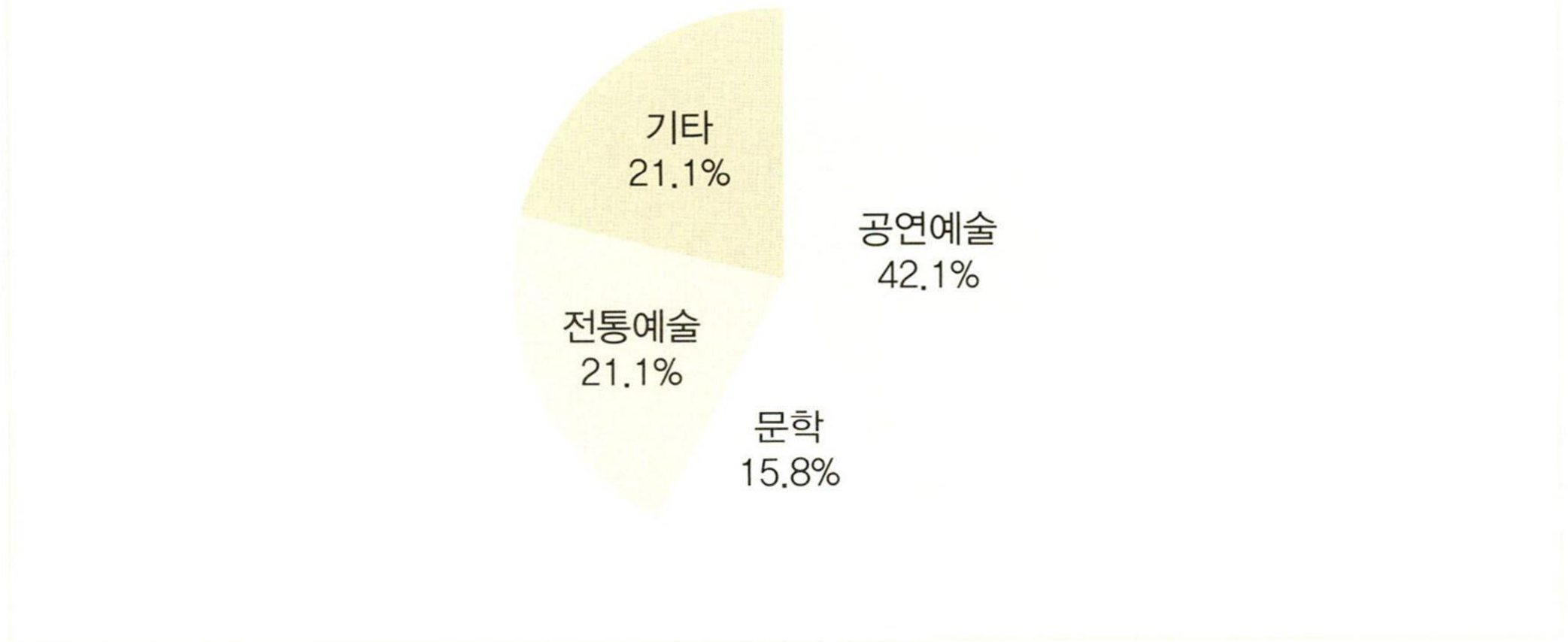
구 분	문화예술동호회 수	문화예술동호회 비율
주민자치센터 및 평생학습센터	26	68.4%
문화원/도서관	7	18.4%
복지관/기타	5	13.2%
합 계	38	100.0%

장르별로 살펴보면, 공연예술분야의 문화예술동호회가 42.1%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전통예술, 기타, 문학의 순이었다. 문화예술동호회의 대부분이 주민자치센터나 평생학습센터를 중심으로 구성된 동호회이다 보니 악기연주, 풍물, 전통무용 등을 내용으로 하는 동호회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54] 장르별 문화예술동호회 수 및 비율

구 분	문화예술동호회 수	문화예술동호회 비율
공연예술	16	42.1%
문 학	6	15.8%
전통예술	8	21.1%
기 타	8	21.1%
합 계	38	100.0%

[그림29] 장르별 문화예술동호회 비율



제3장

2010 인천남구문화수요조사 결과 분석



제1절 2010 인천남구문화수요조사 결과

제2절 2010 인천남구문화수요조사 결과 분석

제3장 2010 인천남구문화수요조사 결과 분석

제1절 2010 인천남구문화수요조사 결과

■ 조사개요

○ 조사의 배경 및 목적

- 본 조사는 남구 주민의 여가생활, 문화예술행사관람, 문화시설 이용을 비롯한 문화활동 전반과 문화수요에 대한 기초자료를 작성하여 분석하는데 일차적인 목적이 있음
- 기초자료를 바탕으로 향 후 남구 문화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한 것이 이차적인 목적임

정보원	수집자료	기대효과
남구에 거주하는 주민	여가생활 주거 및 생활환경 문화시설 이용현황 문화예술활동 현황 문화예술 교육/동호회 활동 문화의식 및 문화정책	남구 구민의 여가생활 문화활동 현황 파악 남구의 선진 문화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

○ 조사대상 및 조사설계

- 설문조사는 조사대상, 조사 규모, 조사방법, 표본 추출, 조사 기간의 조사설계에 따라 진행하였음

조사 대상	남구 거주 주민 684명
조사 규모	유효 표본 : 618부
조사 방법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한 자기 기입식 설문조사
표본 추출	통화편의 표본 추출법
조사 기간	2010. 11. 01 ~ 2010. 11. 30
조사 기관	인천광역시 남구학산문화원

○ 조사항목

• 설문조사 항목은 여가생활, 주거 및 생활환경, 문화시설 이용, 문화예술 활동, 문화예술 교육/동호회, 문화의식 및 문화정책, 일반사항으로 구성됨

주요조사항목

구 분	세부조사항목
여가생활	여가시간, 여가활동의 종류, 여가생활의 어려움 등
주거 및 생활환경	남구주거 및 생활환경 만족도
문화시설이용	평소 이용하는 문화시설, 문화시설 이용 만족도, 문화시설 이용시 고려사항, 남구 문화시설 이용현황 등
문화예술활동	문화예술활동 종류, 문화예술행사 동반자, 관람 목적, 관람장소 등
문화예술 교육/동호회	동호회 활동 종류, 동호회 활동 현황, 교육 경험, 교육의향, 교육 할애 정도
문화의식 및 문화정책	문화에 대한 인식, 문화중요 요인, 남구문화에 대한 인식 등
인구통계학적 분포	성별, 연령, 혼인, 직업, 학력, 동거가족 수입, 거주지역 등

○ 설문분석 방법

• 설문 분석은 Editing, Coding/Punching, Date Cleaning, Date Processing의 과정을 통해 진행함

① Editing : 기록 상의 오류 및 누락 검증

② Coding / Punching : 전산처리를 위해 설문지를 부호화(Coding) 입력(Punching)

③ Date Cleaning : 입력된 자료 오류를 사전 검증, 발견된 오류를 설문지와 비교 교정(Editing) 함

④ Date Processing : SPSS Version 15.0과 Excel을 이용하여 자료를 집계하고 통계분석 실행

⑤ 통계분석 방법

- 범주형 자료에 대한 빈도분석, 5점 척도로 측정된 구성 항목별 만족도는 연속형 자료로 가정하여 평균값 산출
- 다중 응답 설문의 경우 항목별 응답의 수를 합하여 전체의 비율로 분석
- 순위형 설문의 경우 1순위에 3점, 2순위에 2점, 3순위에 1점을 배점하여 가중합을 구한 후 총합의 비율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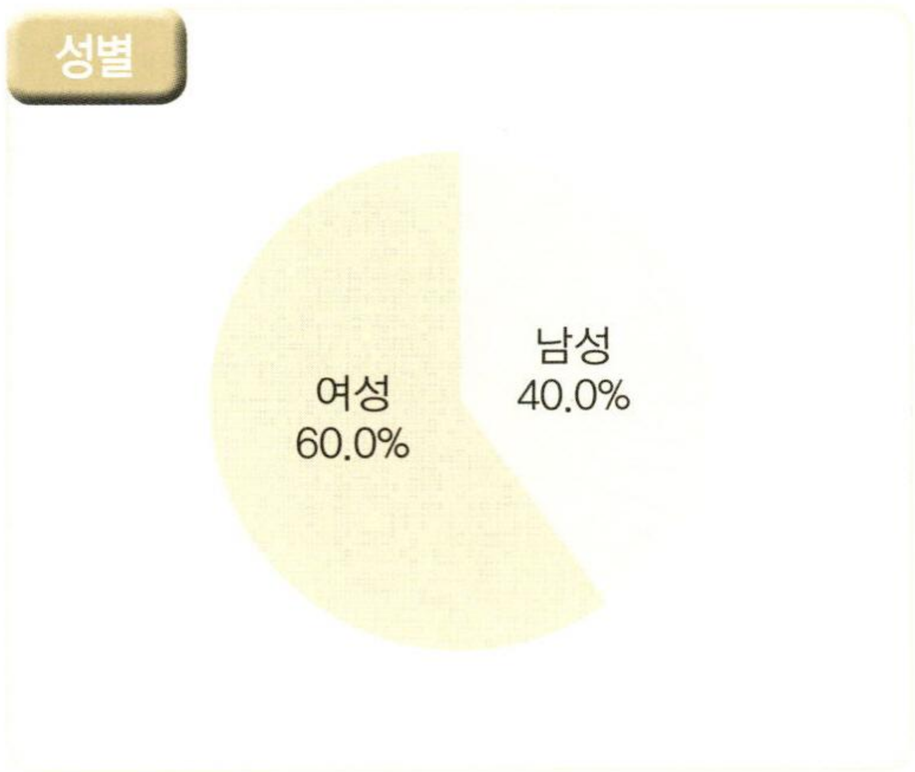
2. 설문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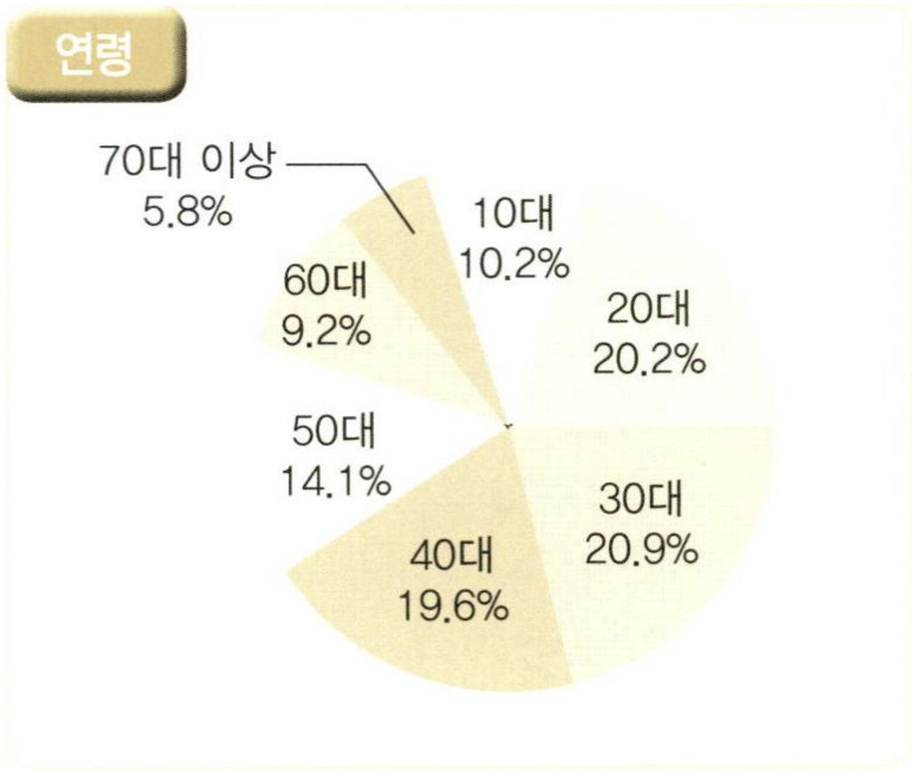
○ 인구통계학적 분포

▶ 조사 대상자의 인구 통계학적 분포는 아래 그래프와 같음

–성별 : 남성(40.0%), 여성(60.0%)로 여성 응답자가 남성에 비해 많음

– 연령 : 10대(10.2%), 20대(20.2%), 30대(20.9%), 40대(19.6%), 50대(14.1%), 60대(9.2%) 70대이상(5.8%)로 문화활동의 주 대상인 20~40대가 전체의 60.7%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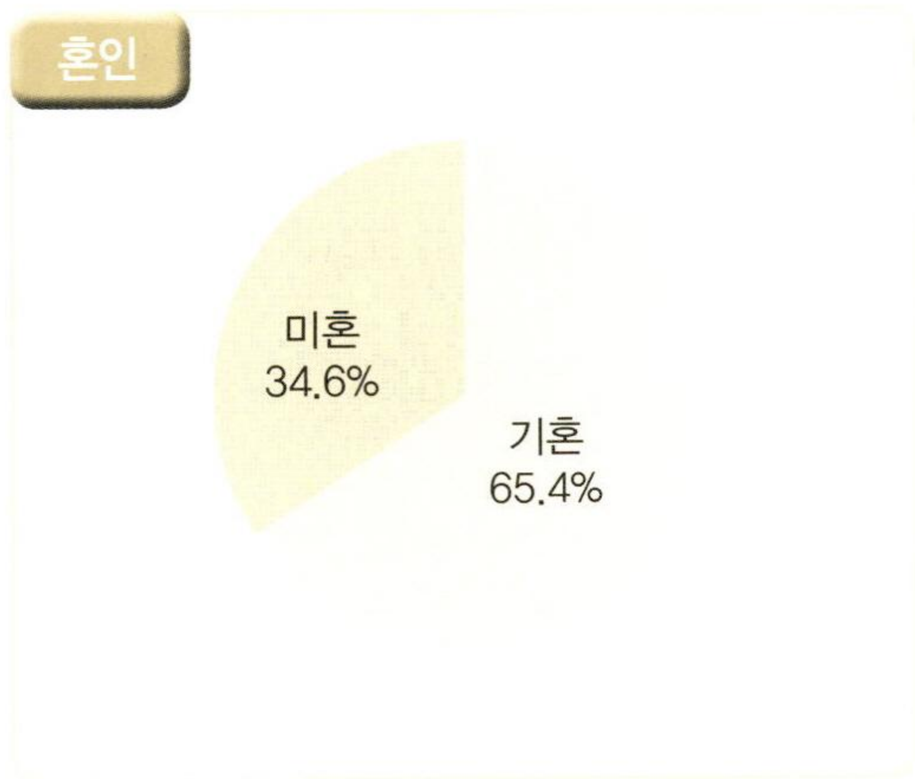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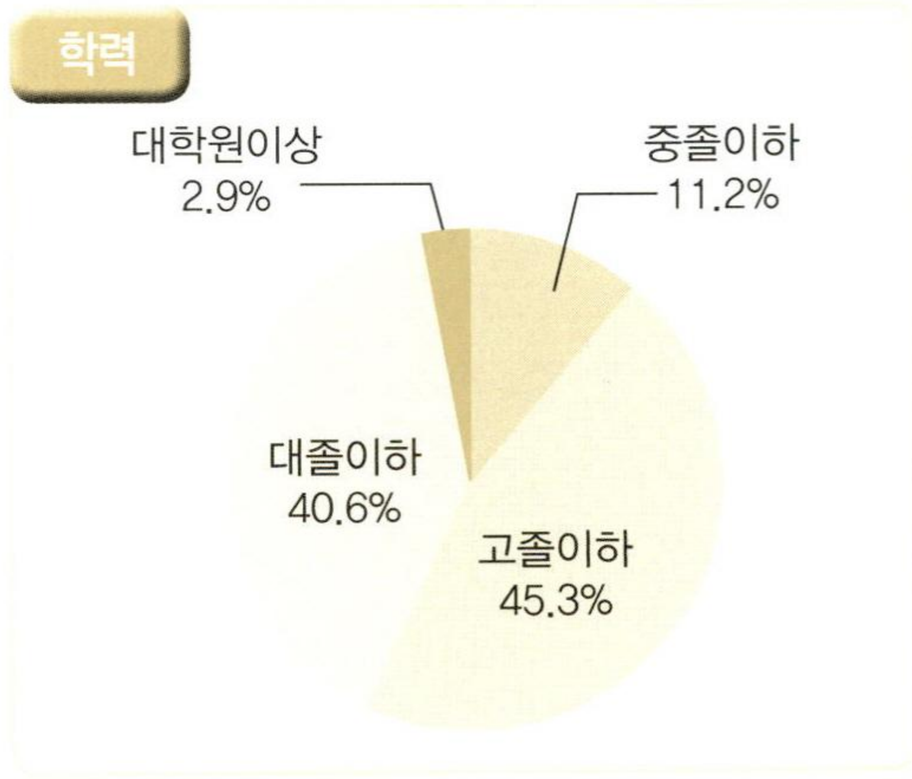


▶ 조사 대상자의 인구 통계학적 분포는 아래 그래프와 같음

– 혼인 : 기혼(65.4%),미혼(34.6%)로 기혼자의 비율이 높음

– 학력 : 중졸이하(11.2%), 고졸이하(45.3%), 대졸이하(40.6%), 대학원이상(2.9%)로 고졸 및 대졸이하 대상자가 전체의 85%를 차지함





▶ 조사 대상자의 직업 및 가계소득은 아래 그래프와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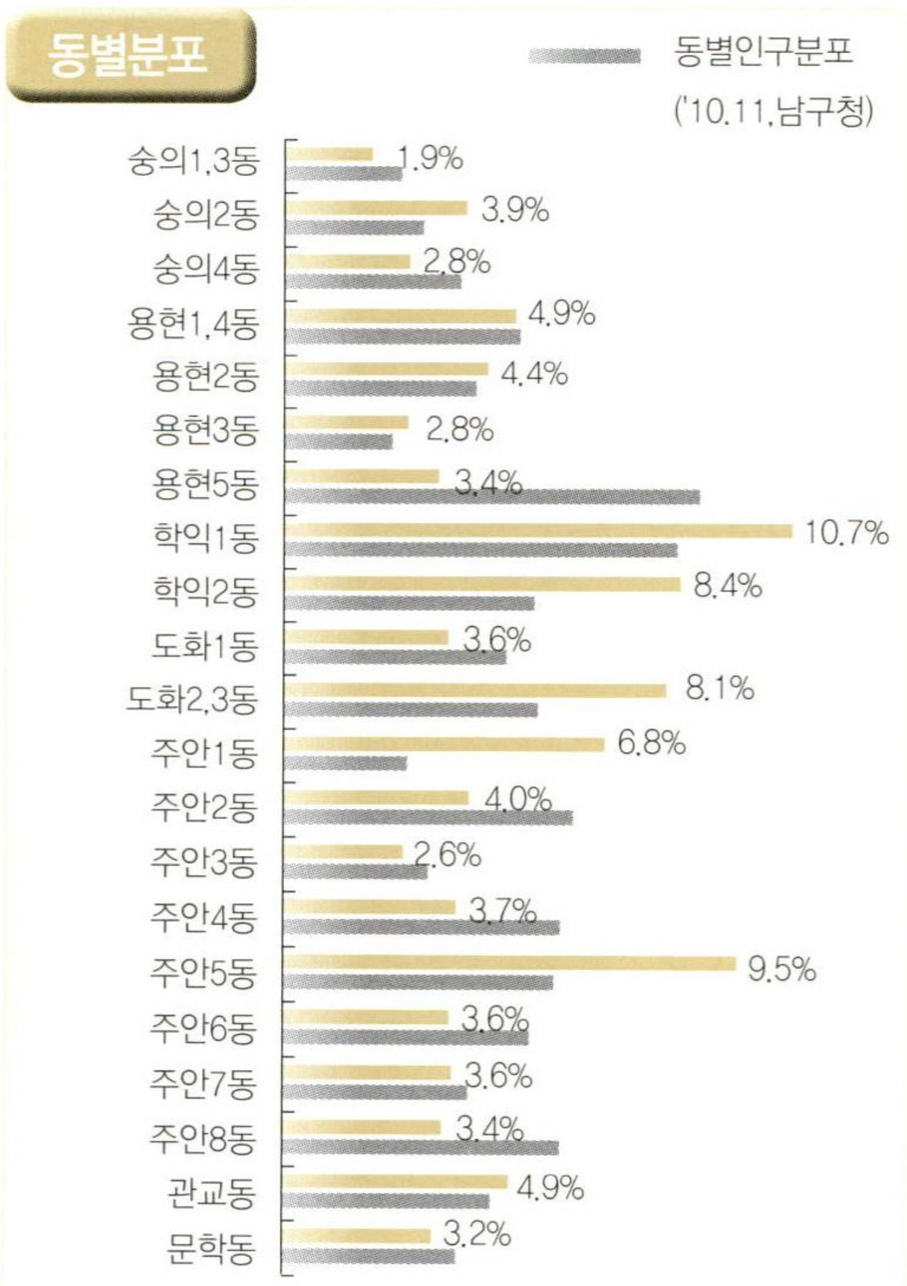
- 직업 : 주부(27.2%), 학생(19.6%), 사무직(13.6%)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문화예술계 종사자(1.5%), 생산직(3.2%), 전문직(4.4%)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음
- 가구소득 : 월 200만원이상(29.9%), 월 300만원이상(24.4%), 월 100만원이상(14.2%)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월 100만원미만(9.7%), 월 500만원이상(9.9%)의 비율이 낮게 나타남





▶ 조사 대상자의 거주 지역은 우측의 그래프와 같음

- 응답자 중 학익1동(10.7%) 거주지가 가장 많았으며 주안5동(9.5%), 학익2동(8.4%)의 순으로 나타남
- 2010년 11월말 현재 남구에 거주하는 인구의 동별 분포(주민등록 기준)와 비교해 보면 용현5동, 도화2,3동, 주안5동의 분포와 일부 차이가 있었으나 전반적으로 큰차이를 보이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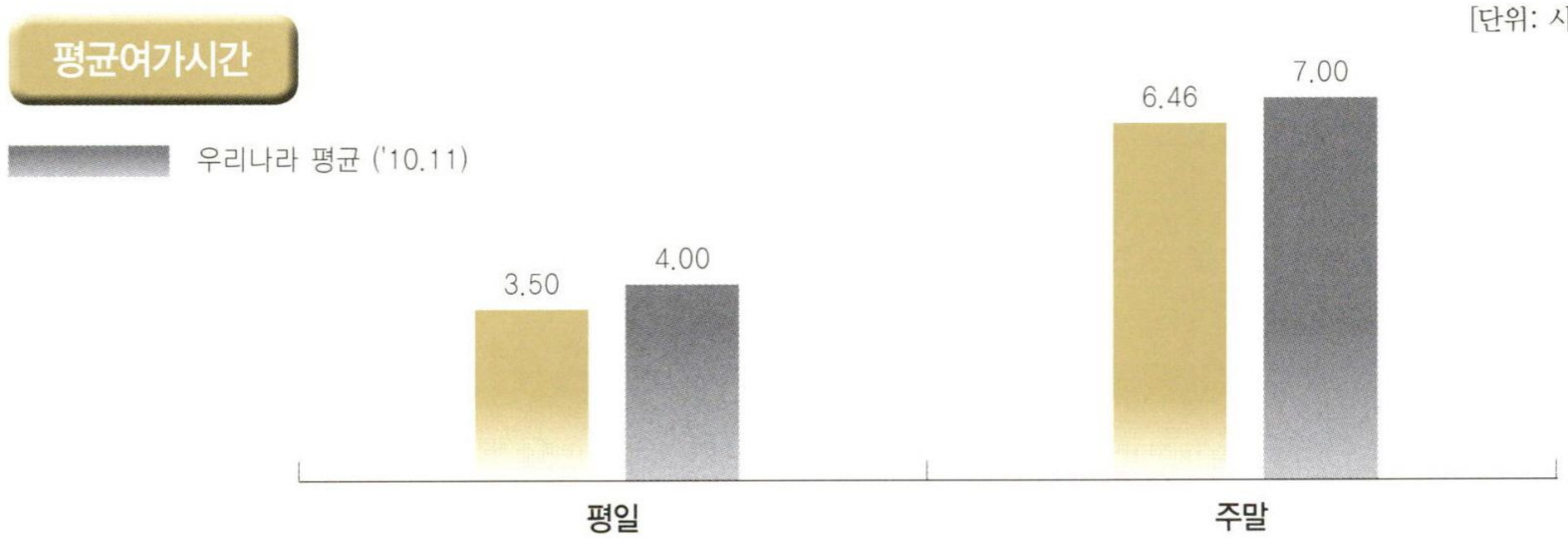


○ 여가생활

▶ 응답자의 여가시간은 아래 그래프와 같음

- 남구 구민의 여가시간은 평일 평균 3.50(±2.55)시간, 주말 평균 6.46(±3.93)시간으로 나타남
- 이는 2010년 11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실시한 국민여가활동조사 결과 중 우리나라 국민의 평균 여가시간인 평일 평균 4시간, 휴일 평균 7시간에 비해 평균 30분 정도 적은 수치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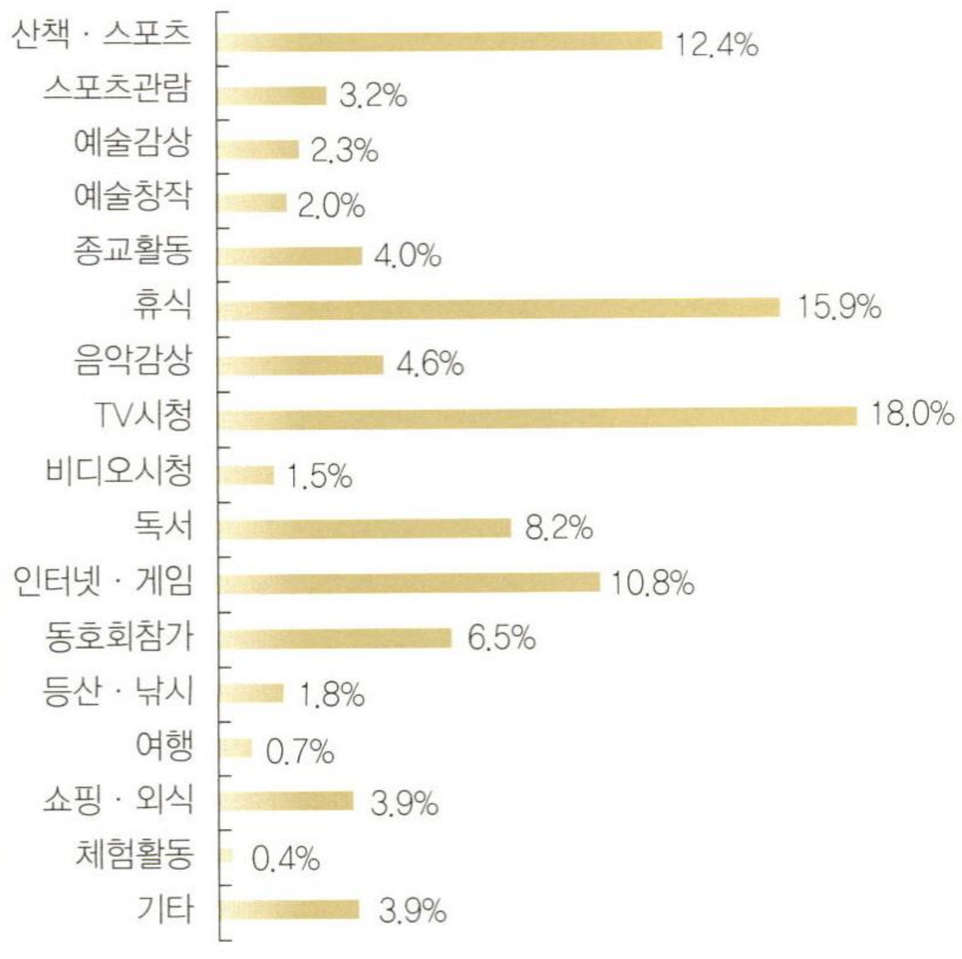
평균여가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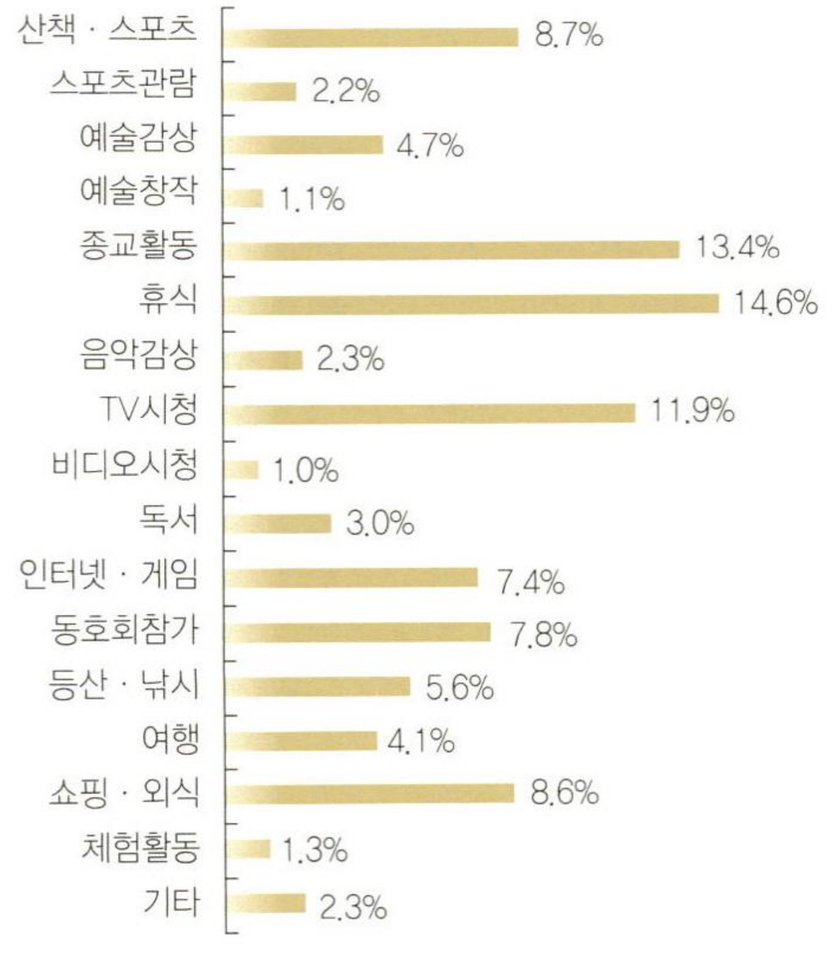
▶ 여가 활동의 종류

- 응답자가 주로 즐기는 여가활동 종류를 우선 순위에 따라 3가지를 선택하게 하고 1순위에 3점, 2순위에 2점, 3순위에 1점을 배점하여 가중합을 구한 후 전체 점수 합에 대한 비율을 구한 결과임
- 평일 여가활동은 TV시청(18.0%), 휴식(15.9%), 산책(12.4%)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휴일 여가활동은 휴식(14.6%), 종교활동(13.4%), 산책(8.7%)가 주를 이뤄 평일과 상이한 모습을 보임

평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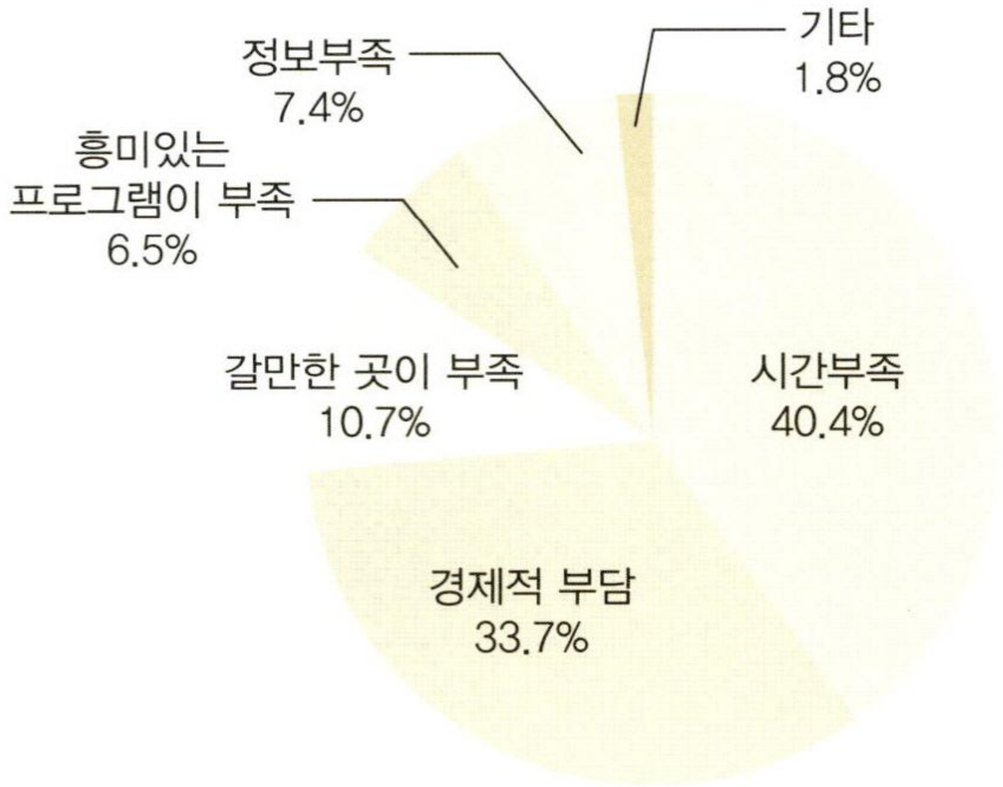
휴일



▶ 여가 생활 참여 어려움

- 응답자의 여가 생활 참여가 어려운 이유는 "시간이 부족하다"가 전체 응답의 40.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경제적으로 부담이 된다."가 33.7%로 나타나 시간과 비용의 문제가 전체의 74.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여가생활의 참여가 어려운 외적 요인인 장소, 프로그램, 정보의 부족이 전체의 24.6%로 나타남

여가생활 참여 어려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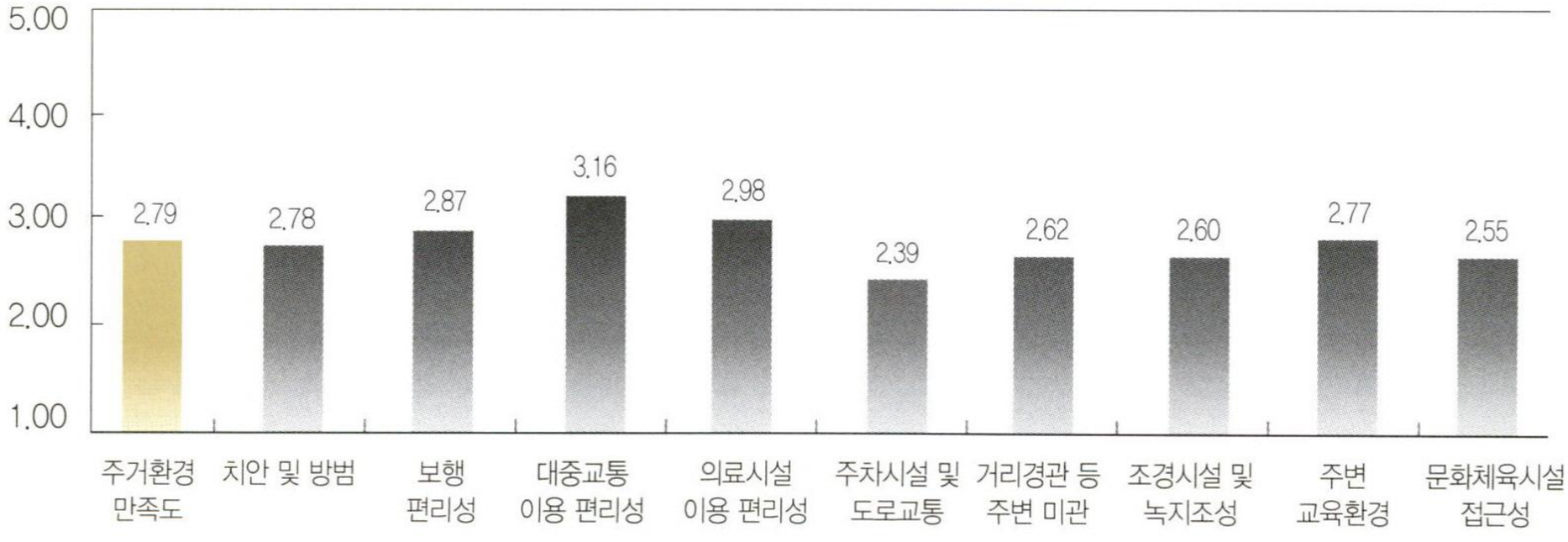


○ 주거 및 생활환경

▶ 남구의 주거환경 만족도

- 전반적인 주거환경 만족도는 5점 척도 측정시 2.79(±0.73)점으로 중간 수준의 만족도를 보임
- 요인별로는 주차 및 도로교통(2.39), 문화체육시설 접근성(2.55)이 낮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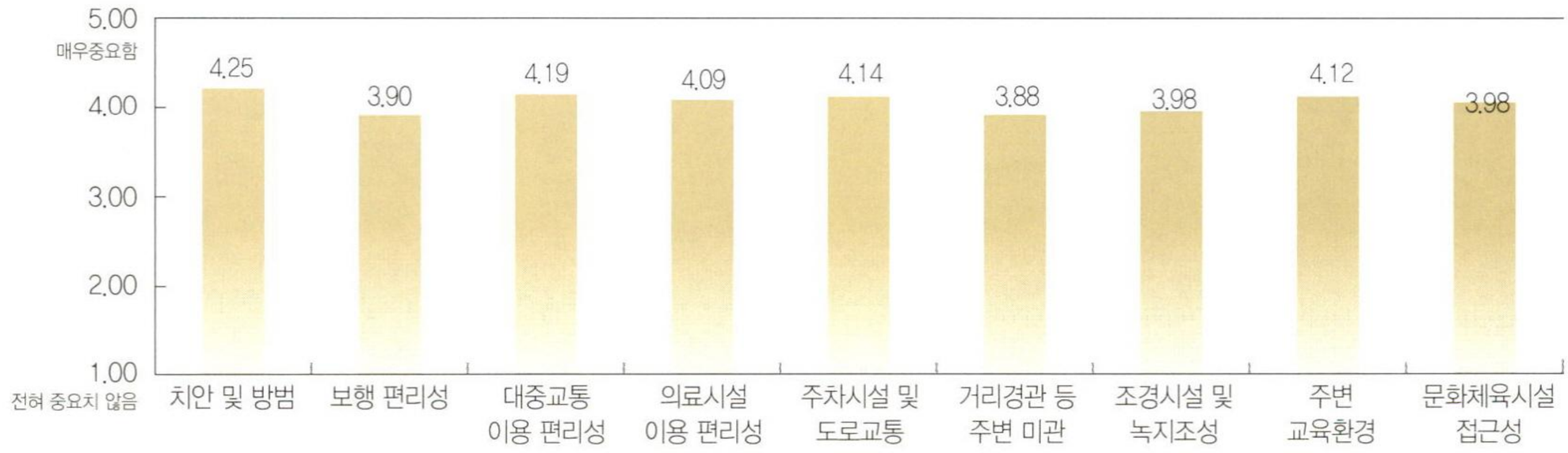
주거환경 만족도



▶ 남구의 주거환경 만족도

– 향후 주거지 결정시 고려사항 별 중요도는 치안 및 방범(4.25), 대중교통 이용편리성(4.19), 주변교육환경(4.12) 순으로 나타남

주거지 결정시 고려사항 중요도



○ 문화시설 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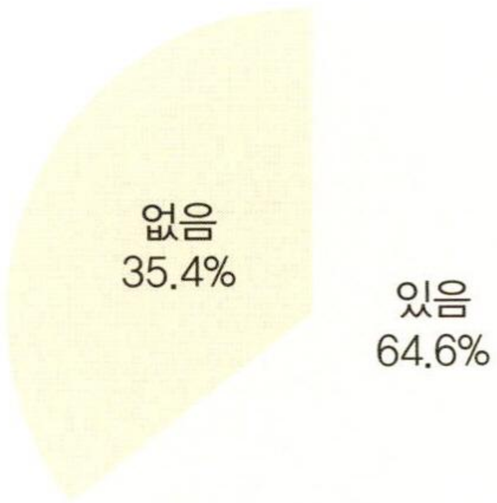
▶ 문화시설 이용 현황

– 응답자가 주로 이용하는 남구의 문화시설을 우선순위에 따라 3가지를 선택하게 하고 1순위에 3점, 2순위에 2점, 3순위에 1점을 배점하여 가중합을 구한 후 전체 점수에 대한 비율을 구한 결과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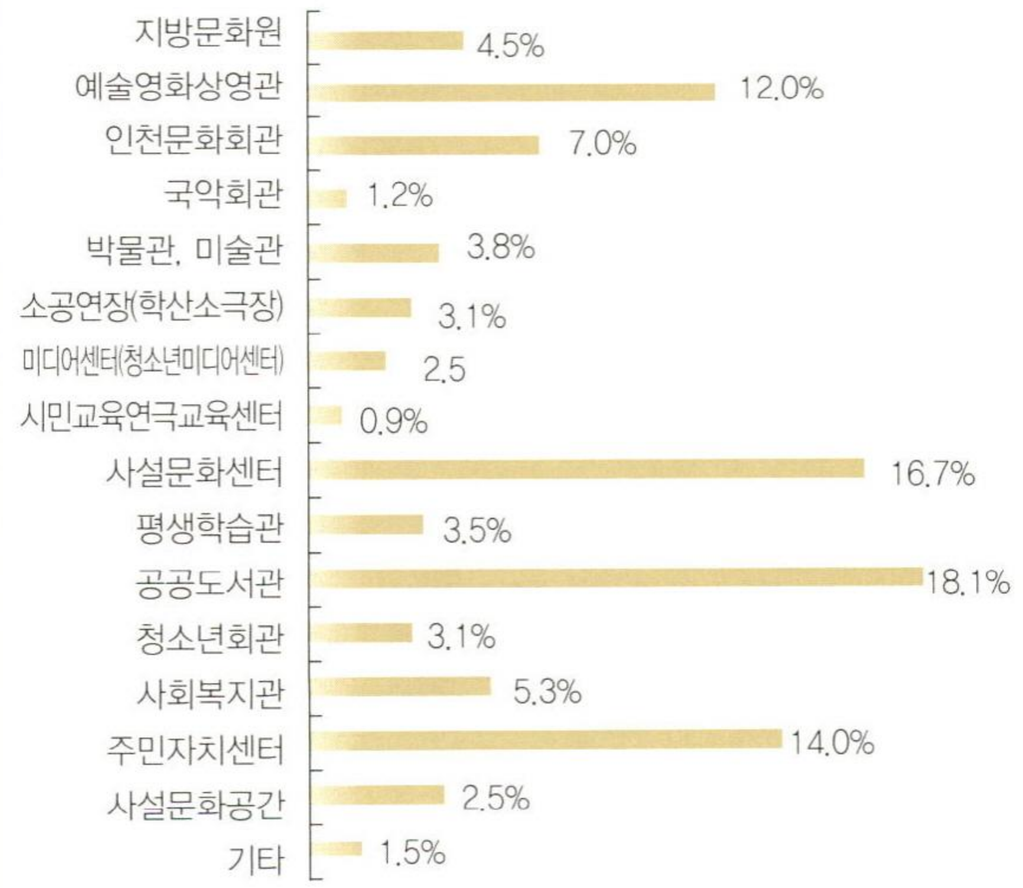
– 응답자 중 남구의 문화시설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전체의 64.6%로 나타남

– 주로 이용하는 문화시설로 공공도서관(18.1%), 사설문화센터(16.7%), 주민자치센터(14.0%)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특화 기관인 시민연극교육센터(0.9%), 국악회관(1.2%), 미디어 센터(2.5%) 등이 낮게 나타남

문화시설 이용경험



이용 문화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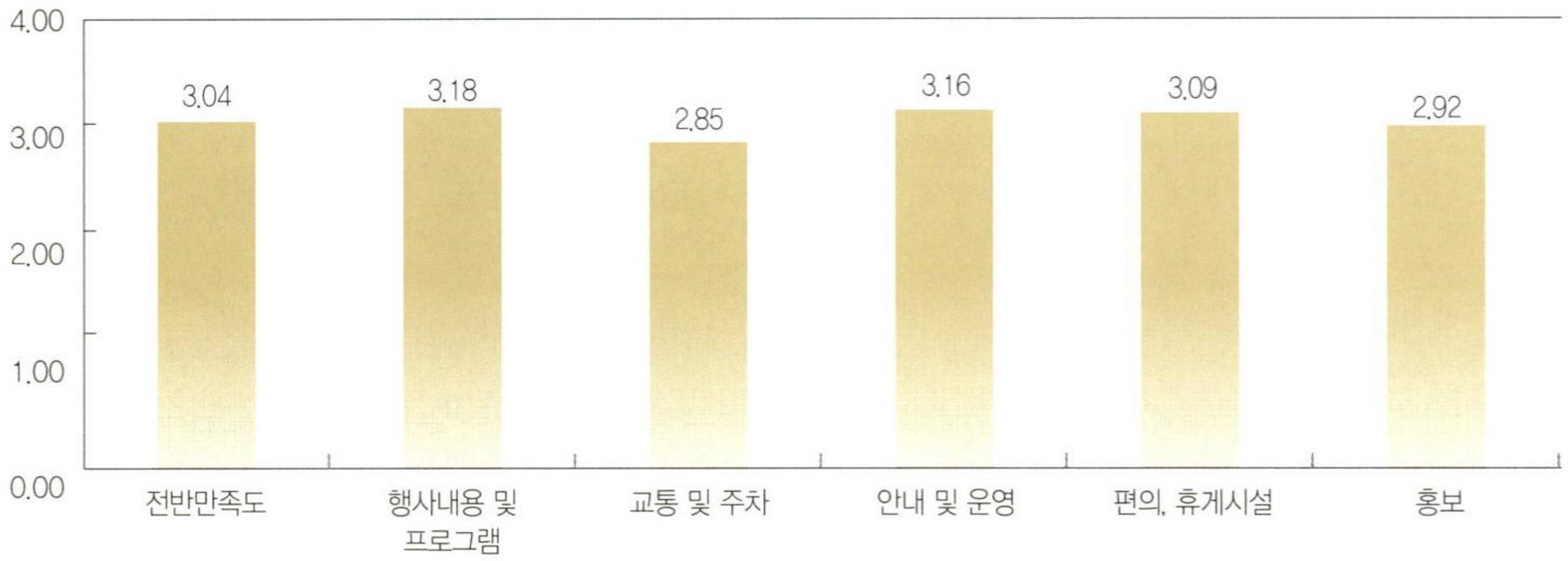


▶ 남구 문화시설 이용 만족도

– 응답자가 1순위로 이용한 문화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3.04로 중간 정도의 만족도를 보임

– 행사내용 및 프로그램(3.18), 안내 및 운영(3.16)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교통 및 주차자(2.85), 홍보(2.92)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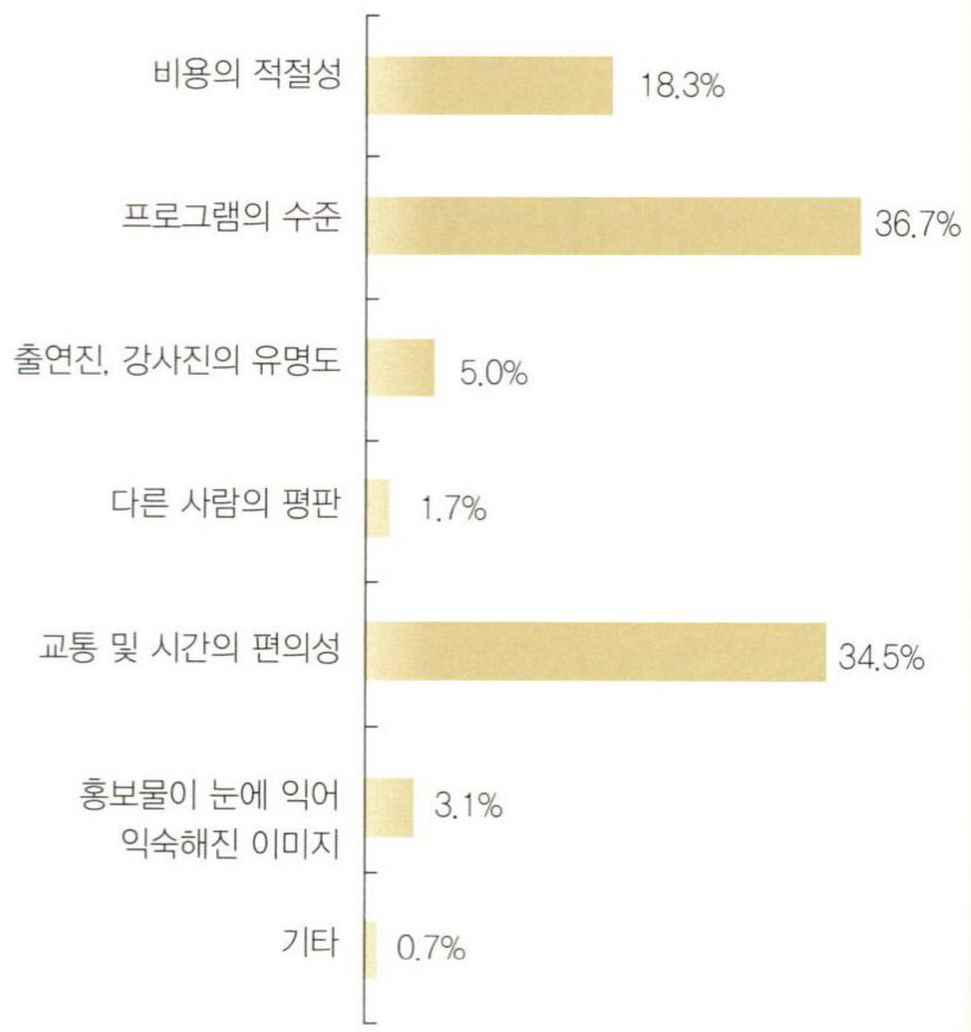
이용시설 만족도



▶ 남구 문화시설 이용시 고려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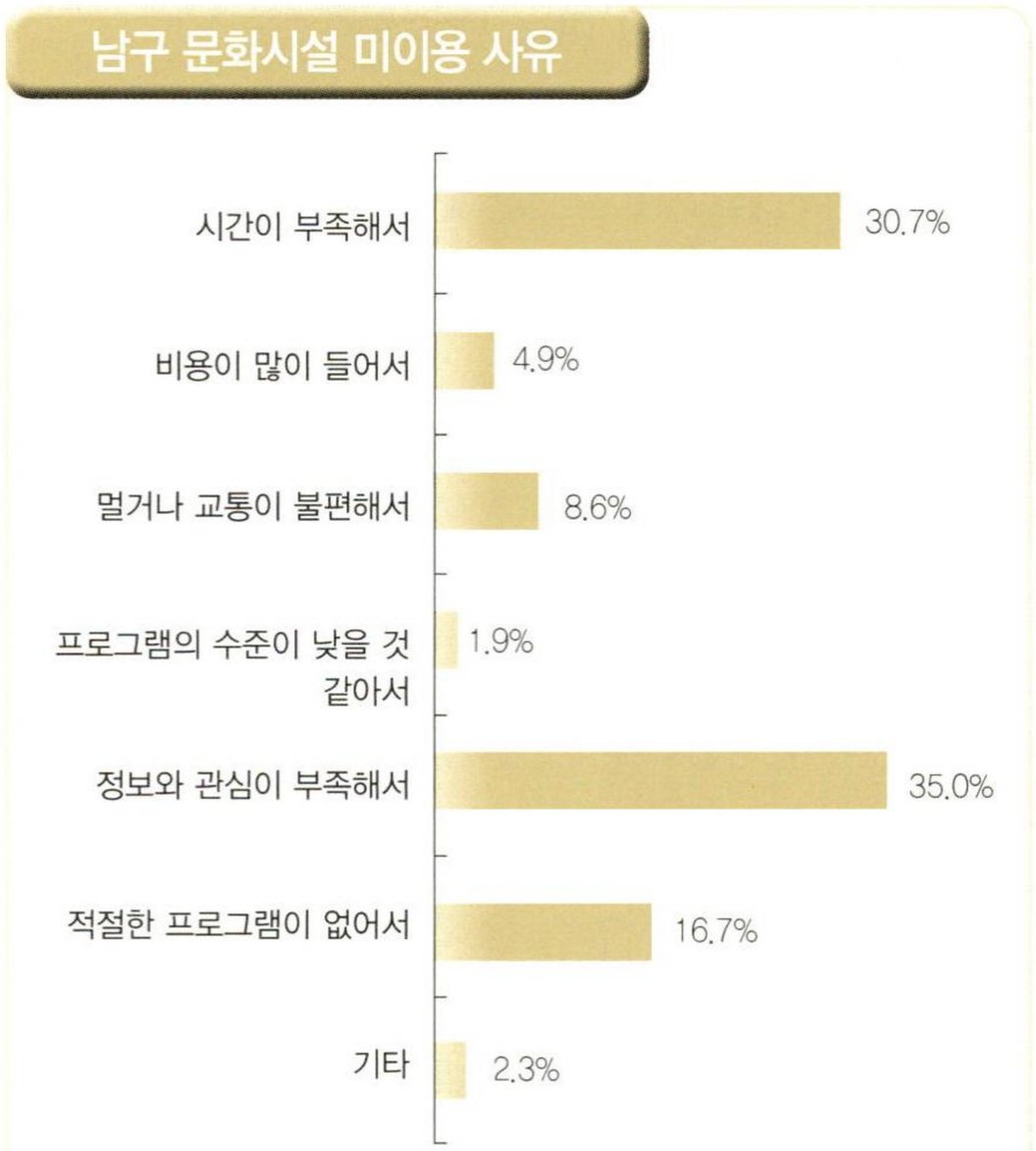
– 남구 문화시설 이용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사항은 "프로그램의 수준(36.7%)", "교통 및 시간의 편의성(34.5%)", "비용의 적절성(18.3%)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다른 사람의 평판(1.7%)", "홍보물이 눈에 익어 익숙해진 이미지(3.1%)가 낮게 나타남

남구 문화시설 이용시 고려사항



▶ 남구 문화시설 미이용 사유

– 남구 문화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이유는 "정보와 관심이 부족해서(35.0%)", "시간이 부족해서(30.7%)", "적절한 프로그램이 없어서(16.7%)"로 나타나 적극적인 홍보와 주민들이 이용하기 편한 시간대의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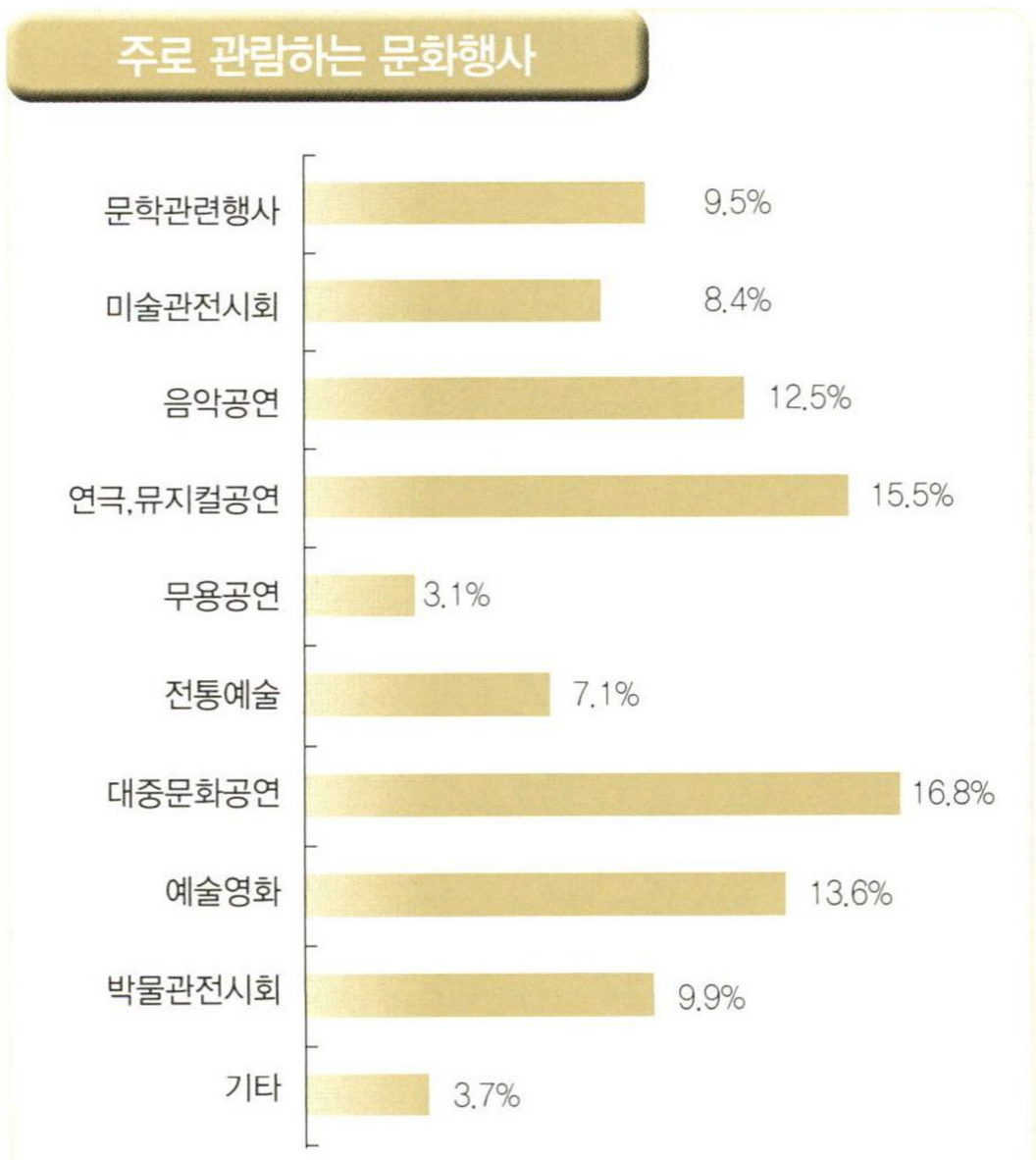


○ 문화행사 관람

▶ 관람하는 문화행사

– 응답자가 주로 관람하는 남구의 문화예술활동을 우선순위에 따라 3가지를 선택하게 하고 1순위에 3점, 2순위에 2점, 3순위에 1점을 배점하여 가중합을 구한 후 전체 점수합에 대한 비율을 구한 결과는 우측 그래프와 같음

– 주로 관람하는 문화행사는 대중문화공연(16.8%), 연극, 뮤지컬공연(15.5%), 예술영화(13.6%)의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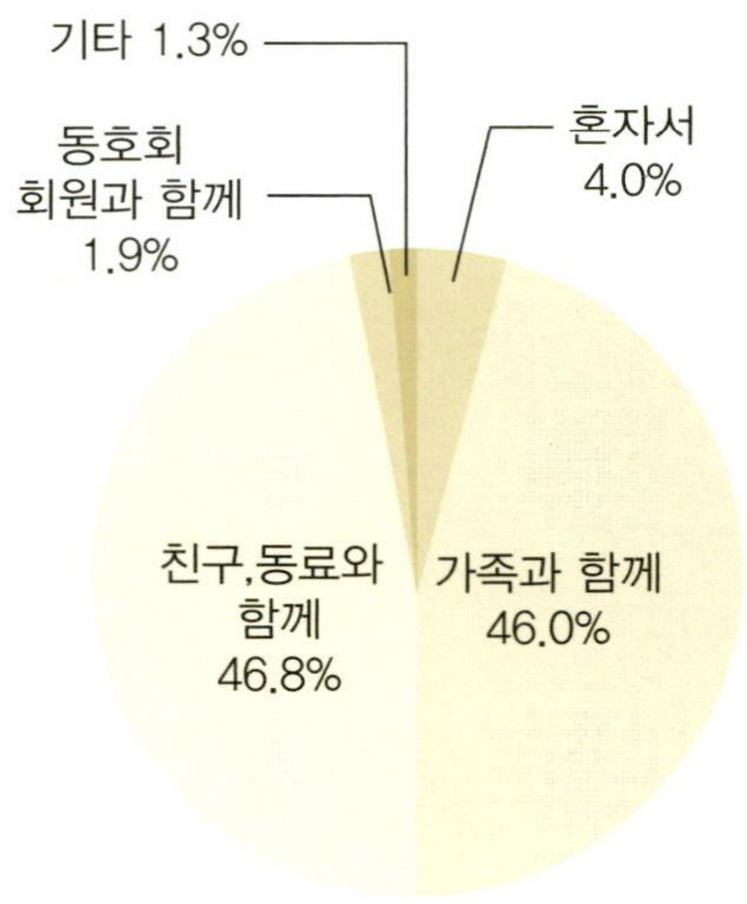


▶ 문화행사 관람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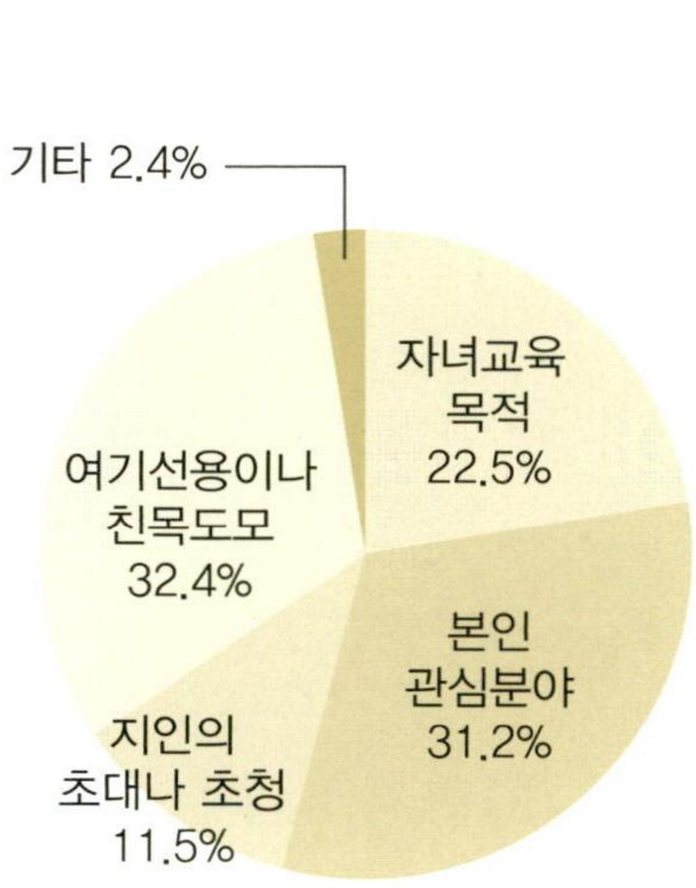
– 관람시 동반하는 사람으로는 가족(46.0%), 친구, 동료(46.8%)가 전체의 92.8%를 차지해 혼자(4.0%) 관람하기 보다는 주변 친지와 함께 관람하는 것으로 나타남

– 관람하는 주된 목적은 친목도모(32.4%) 또는 본인 관심(31.2%)이 주된 이유인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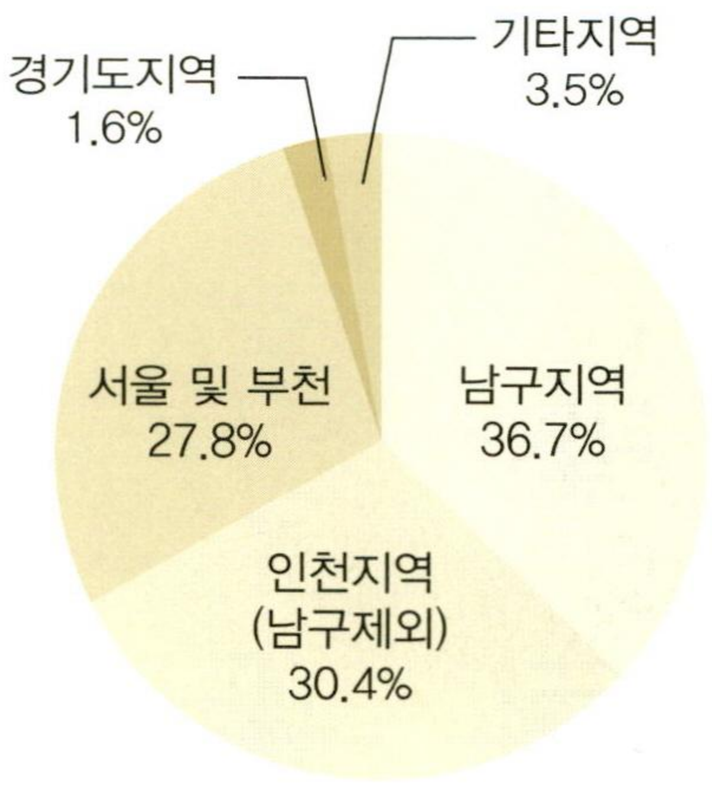
관람시 동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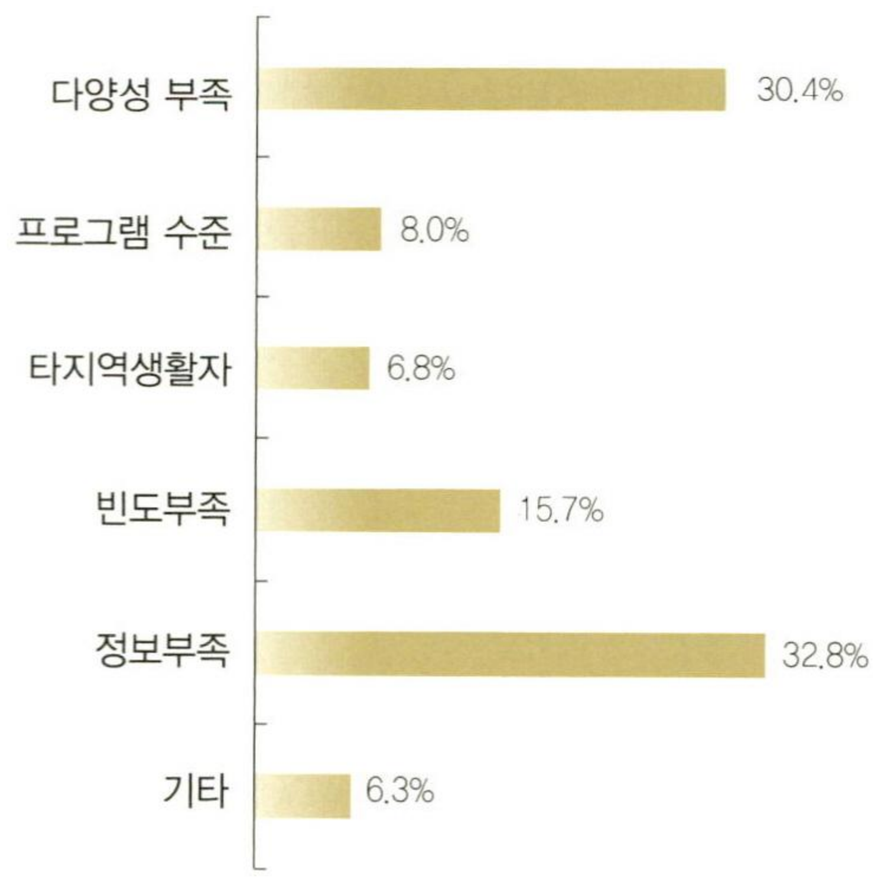
관람 목적



관람 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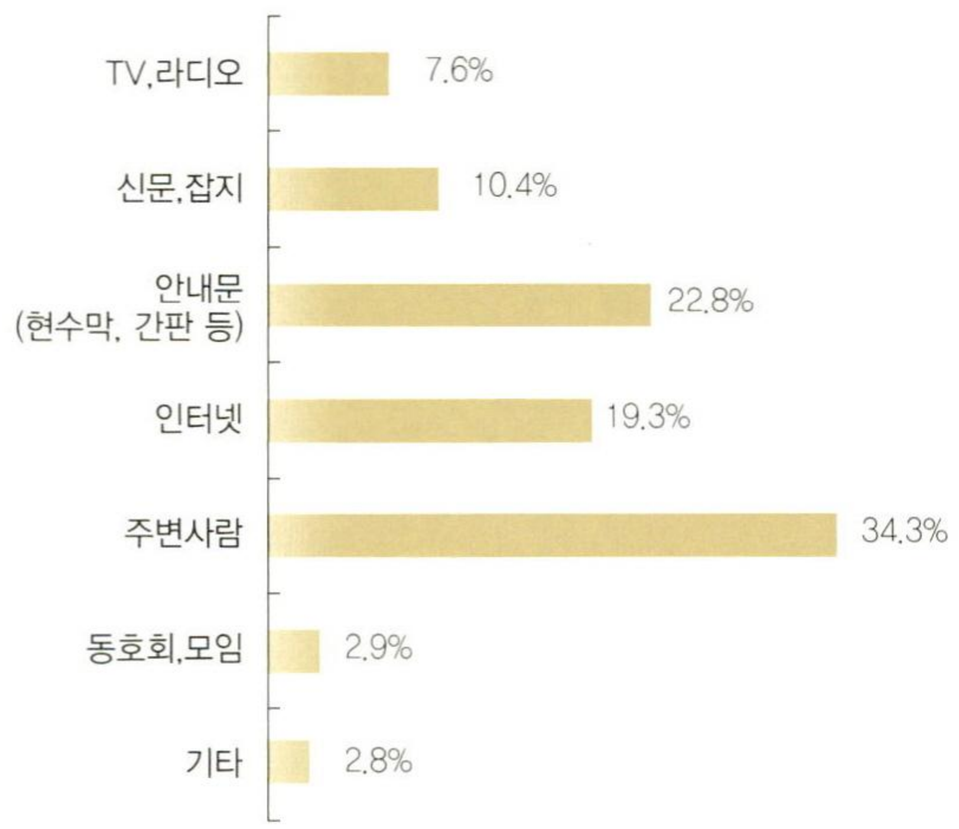
타지역 관람사유



▶ 문화예술행사 정보수집

- 문화예술활동의 정보수집매체는 주변사람(34.3%)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안내문(22.8%), 인터넷(19.3%)의 순으로 나타남
- 따라서 남구 문화예술활동을 효과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주변사람을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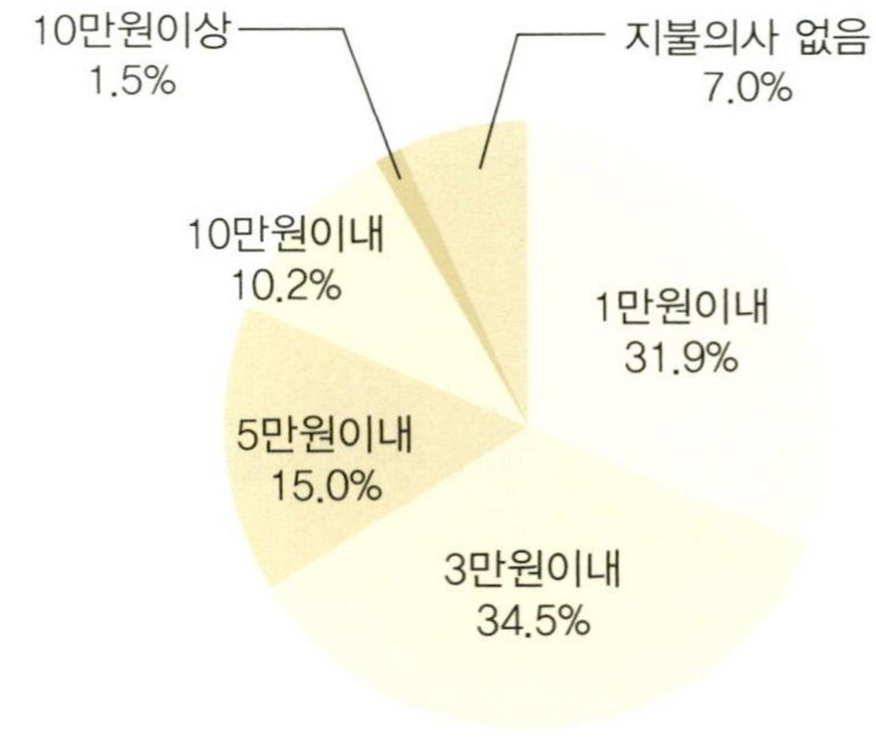
문화예술행사 정보수집 매체



▶ 문화예술활동 지불가능금액

- 문화예술활동에 지불 가능한 금액은 3만원 이내(34.5%)가 가장 높았으며 1만원 이내(31.9%), 5만원이내(15.0%)의 순으로 나타남
- 5만원이내 금액을 지불 가능하다는 응답자가 전체의 81.4%를 차지해 남구 문화행사에 참가하는 비용이 5만원을 넘지 않도록 계획해야 보다 많은 사람이 참가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문화예술활동 지불가능금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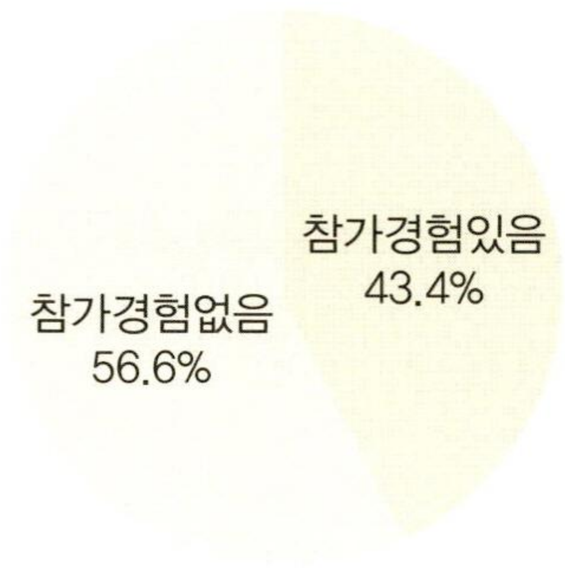
▶ 남구 지역축제 참가현황

– 남구 지역축제에 참가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전체의 43.4%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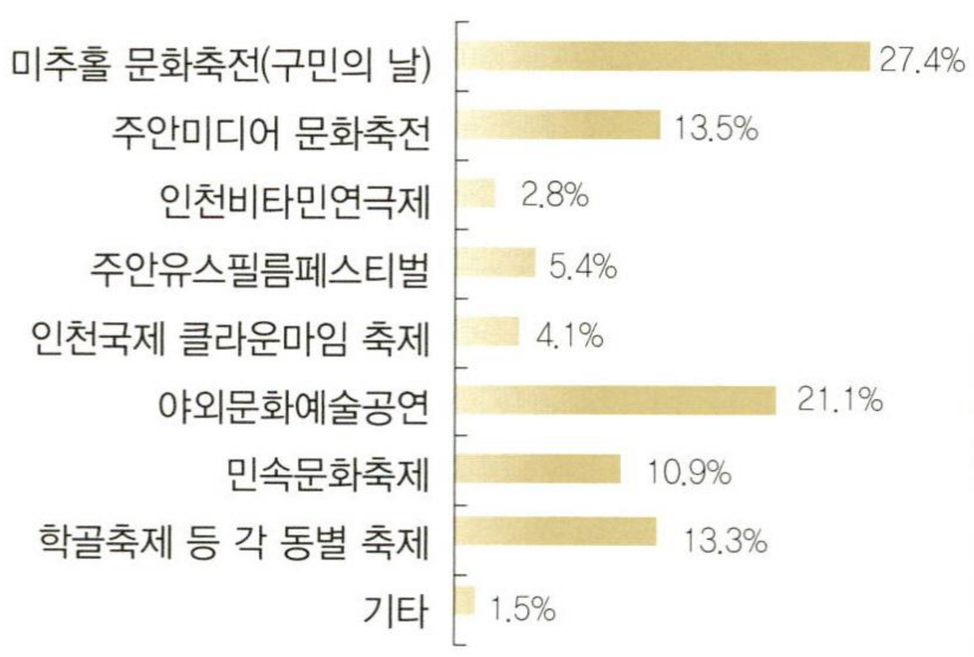
– 참가 경험이 있는 응답자가 참가한 남구지역축제를 모두 선택하게 하여 전체 응답수에 대한 비율을 산정

– 미추홀 문화축전(구민의 날) 행사에 참가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가 (27.4%) 가장 많았으며 야외문화예술공연(21.1%), 주안미디어 문화축전(13.5%)의 순으로 나타남

남구 지역축제 참가경험



참가 남구 지역축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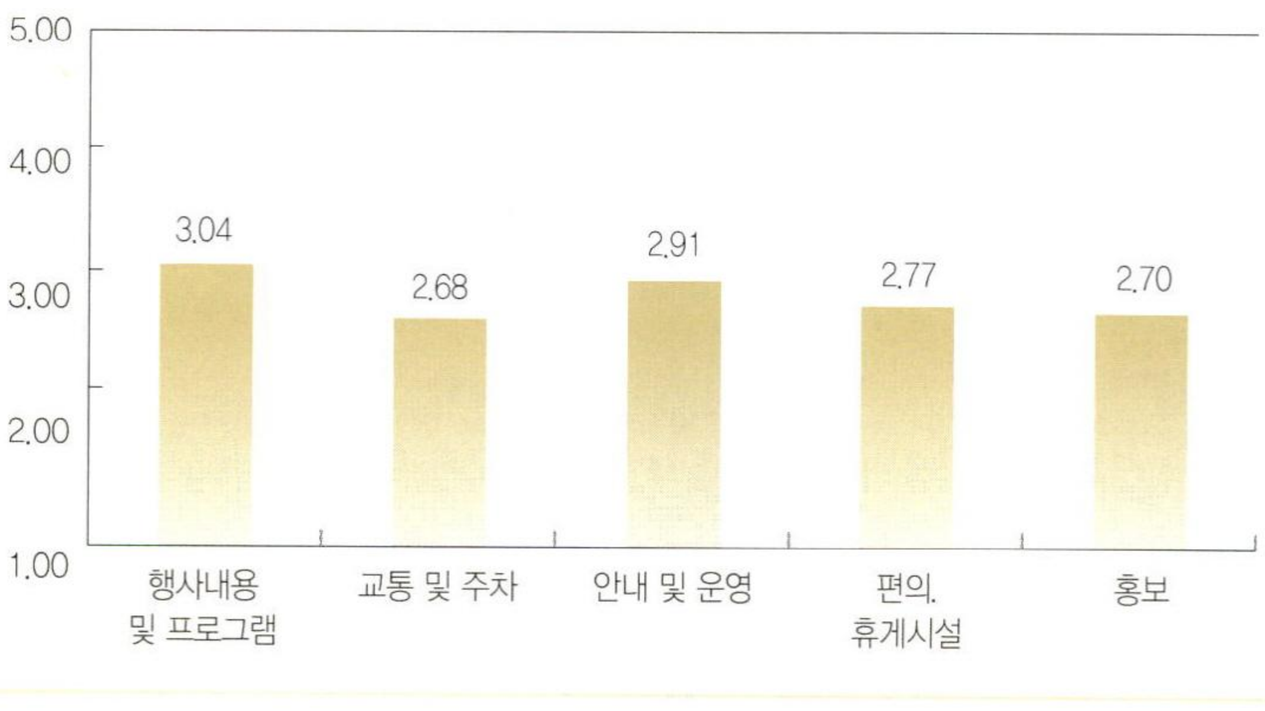


▶ 지역축제 만족도

– 지역축제에 대한 만족도는 행사내용 및 프로그램, 교통 및 주차, 안내 및 운영, 편의 휴게시설, 홍보의 요인으로 나누어 측정하였으며 행사내용 및 프로그램(3.04)이 가장 높은 만족도를 보임

– 지역축제에 대한 만족도는 평균 2.82로 중간 수준의 만족도를 보임

참여 지역축제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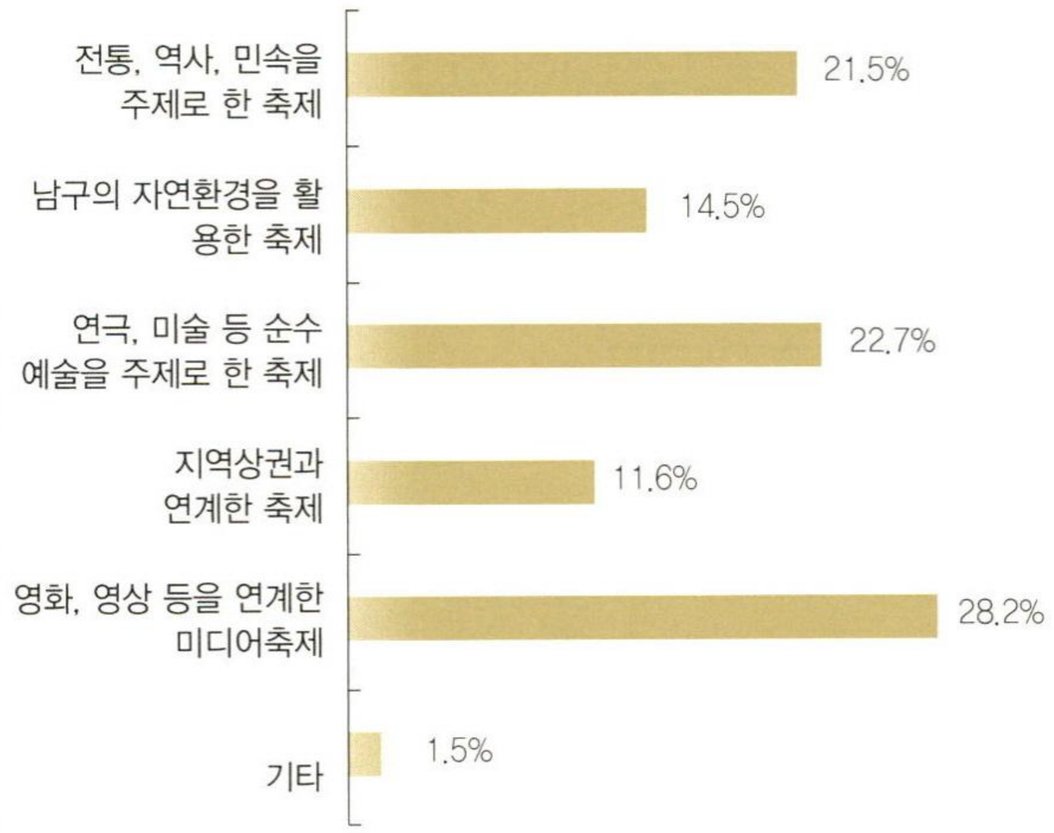


지역축제 만족도

▶ 희망 지역축제

- 남구에서 개최하면 좋을 것 같은 지역축제를 모두 선택하게 하였으며(다중응답) 각 응답의 총합에 대한 비율을 산출함
- 남구에서 개최하면 좋을 것 같은 지역축제에 대하여 전체의 28.2%가 "영화, 영상 등을 연계한 미디어 축제"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 또한 연극, 미술 등 순수예술을 주제로 한 축제(22.7%), 전통, 역사, 민속을 주제로 한 축제(21.5%)의 순으로 나타남

개최 희망 지역축제



○ 문화예술 교육/동호회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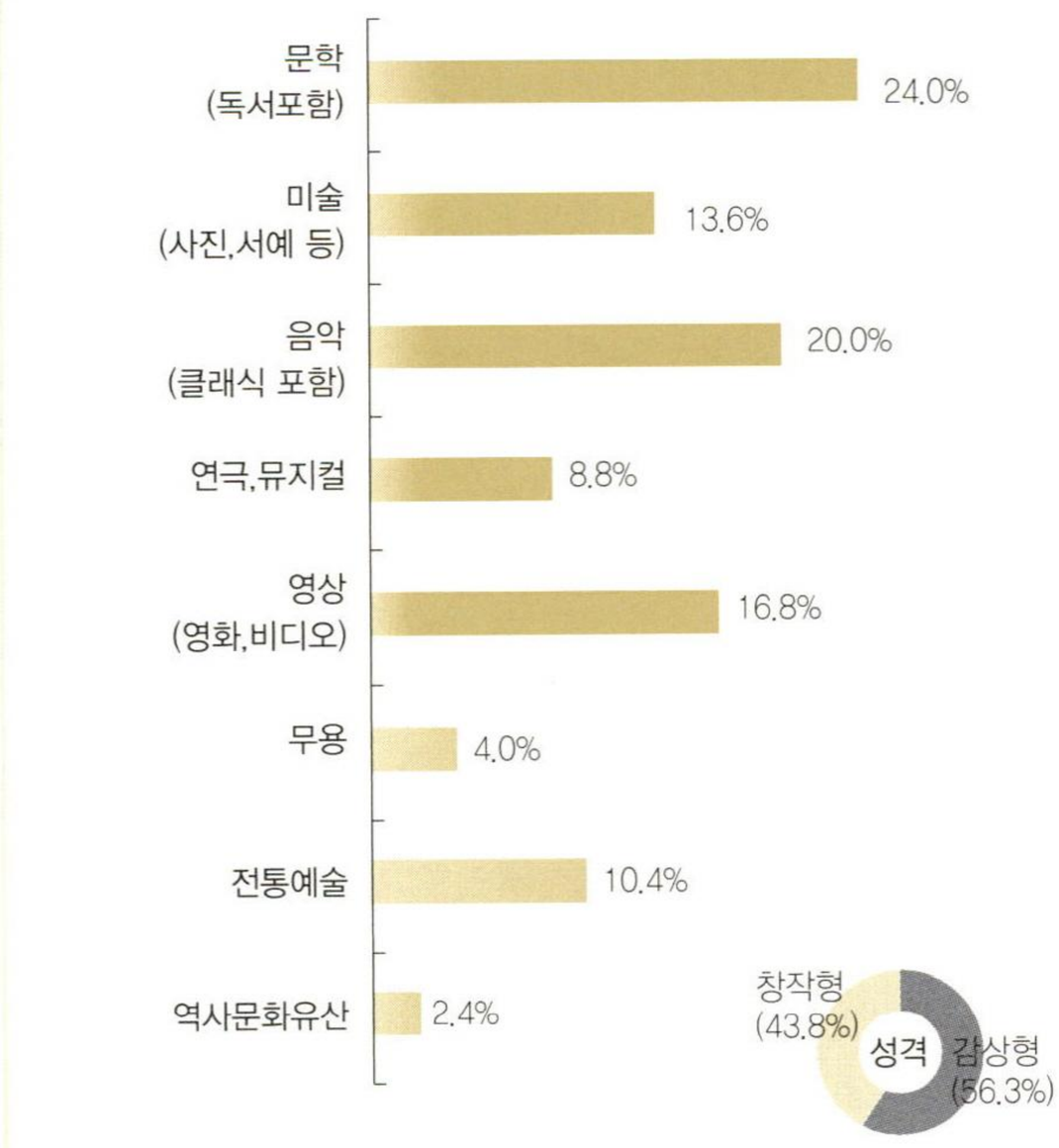
▶ 문화예술 동호회 활동 현황

- 응답자 중 문화예술 동호회 활동을 영위하는 사람은 전체의 20.2%로 나타남
- 동호회활동에 참여 중인 응답자의 24.0%가 문학 관련 동호회에 참여하고 있으며 음악(20.0%), 영상(16.8%)의 순으로 나타남

동호회 활동참여



참여 중인 동호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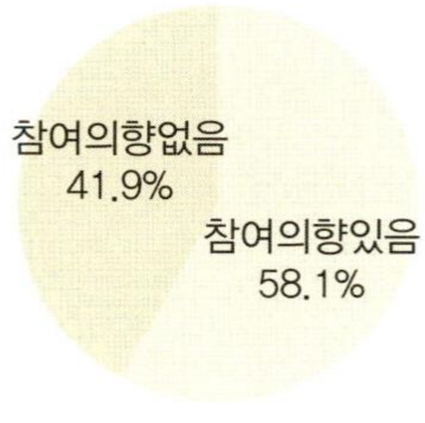


▶ 문화예술 동호회 참여 의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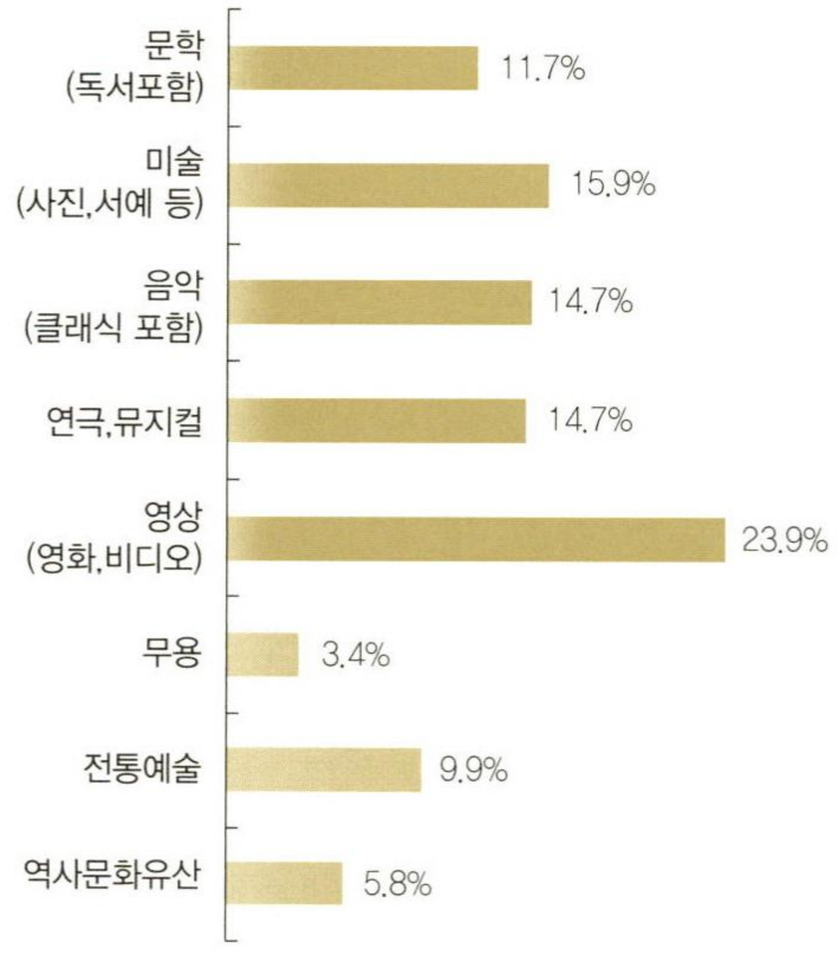
– 참여의향이 있는 응답자는 전체 응답자 중 58.1%로 나타남

– 참여의향이 있는 동호회를 모두 선택하게 하였으며 (다중응답) 각 응답의 총합에 대한 비율을 산출한 결과 영상(23.9%) 관련 활동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동호회활동 참여의향



참여의향이 있는 동호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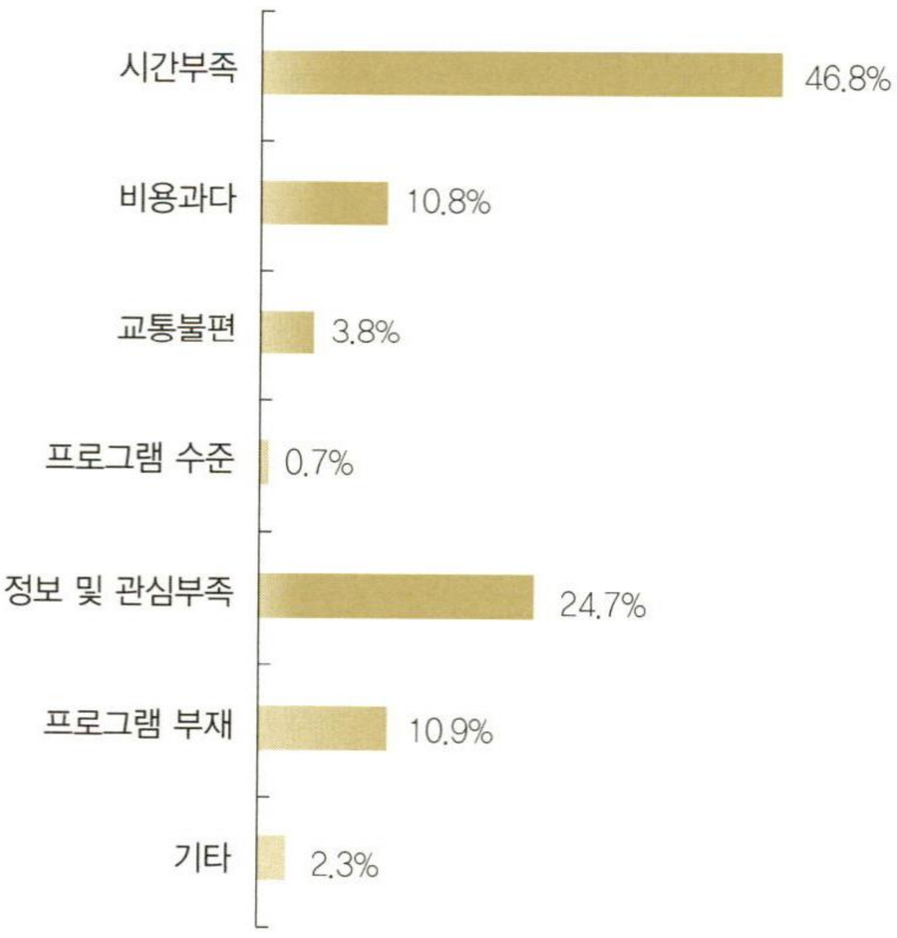
▶ 문화예술 동호회 활동 제약 사유

– 문화예술 동호회 활동에 참여시 어려운 점은 시간부족(46.8%), 정보 및 관심부족(24.7%), 적절한 프로그램이 없어서(10.9%)의 순으로 나타남

– 프로그램 수준(0.7%), 기타(2.3%), 멀거나 교통이 불편해서(3.8%)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따라서 문화예술 동호회 활동을 보다 활성화 하기 위해서는 강좌/활동의 타겟을 설정하여 적정한 시간에 동회 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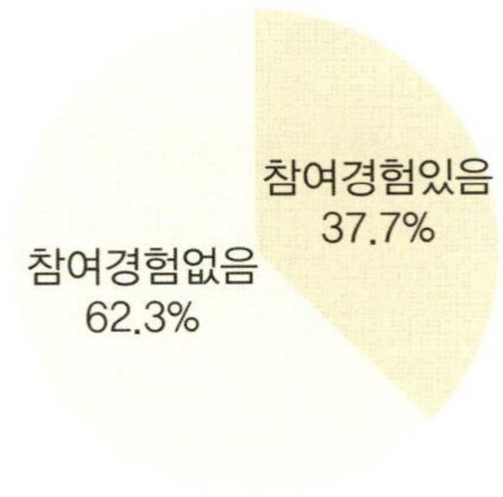
문화예술 동호회 참여시 어려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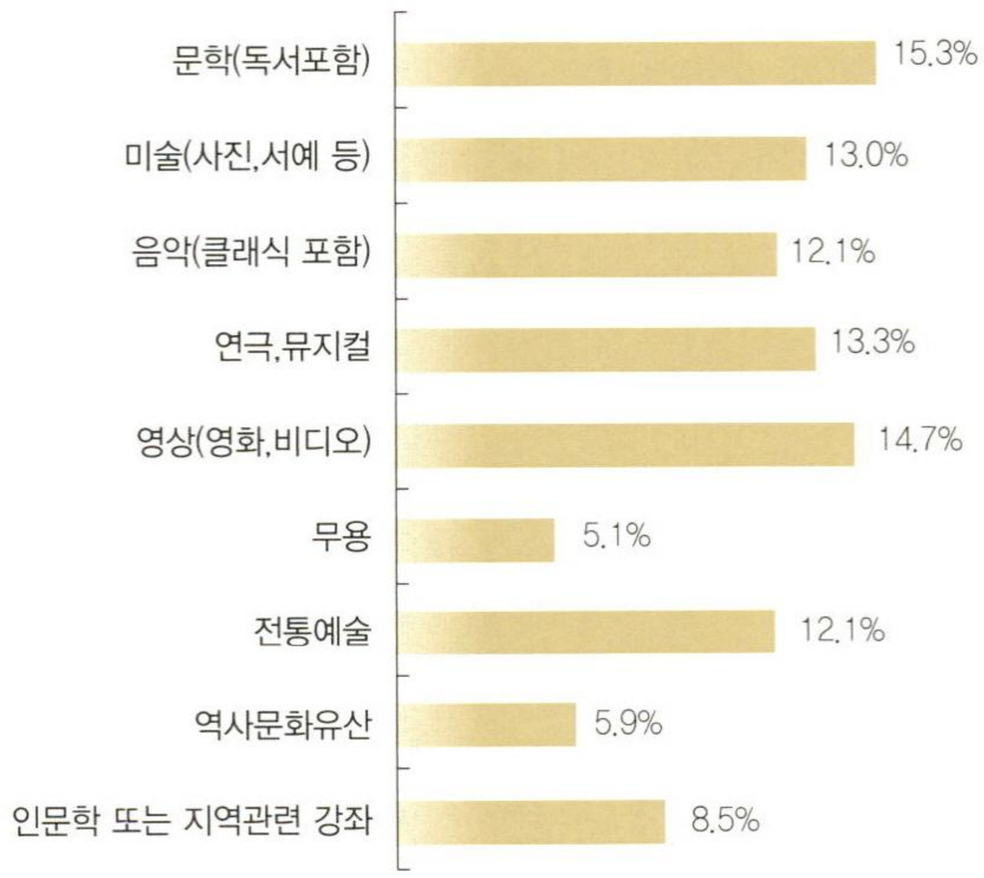
▶ 문화예술 교육 참여 현황

– 응답자 중 학교교육 이외의 문화예술 교육 활동에 참여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전체의 37.7%로 나타났으며 문학(15.3%)에 가장 많은 응답자가 활동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문화예술 교육활동 참여



참여 중인 문화예술 교육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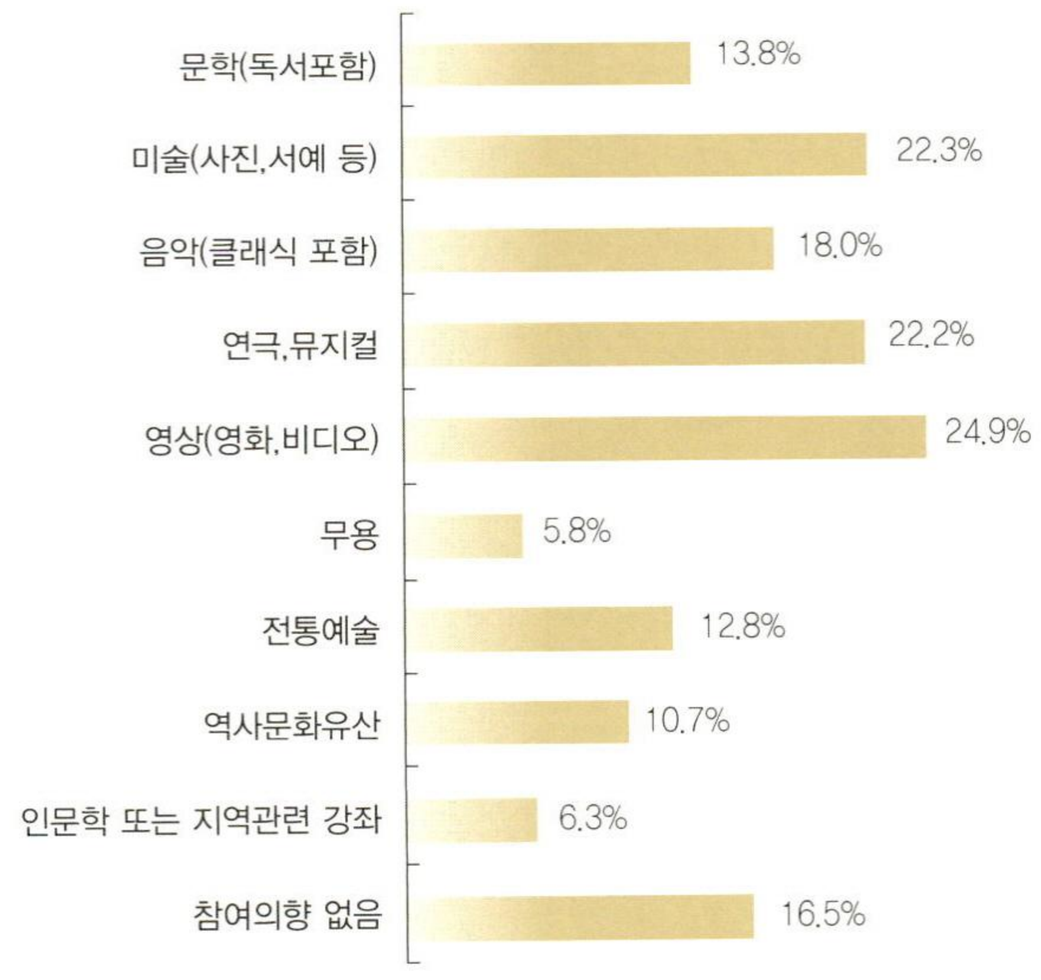
▶ 문화예술 교육 참여의향

– 문화예술 교육활동에 향후 참여의향이 있는 응답자는 전체의 83.5%로 나타났으며 영상(24.9%) 관련 활동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문화예술 교육활동 참여의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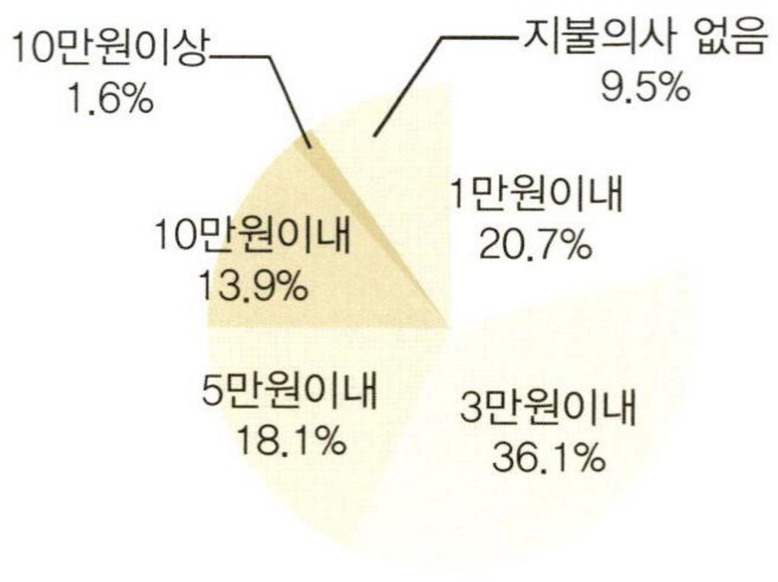
참여의향이 있는 문화예술 교육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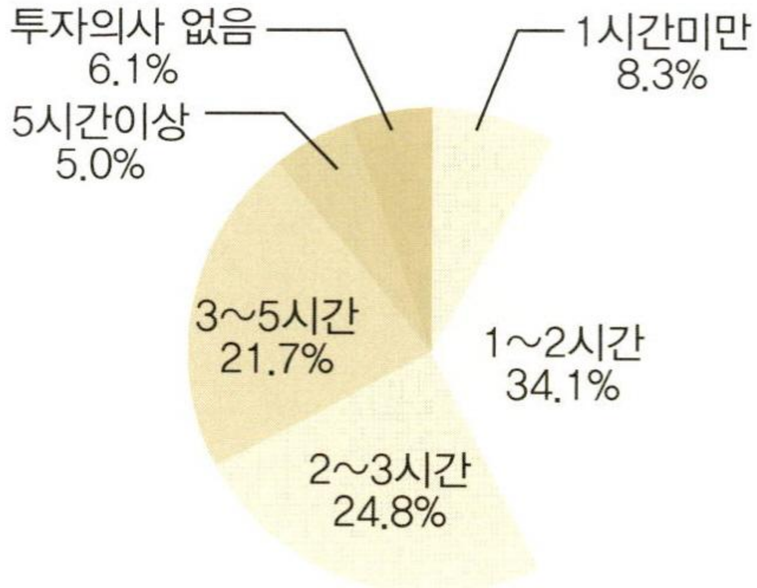
▶ 문화예술 교육 활동 가능 비용 및 시간

- 참여하고 싶은 문화예술 교육활동을 위해 한 달에 부담할 수 있는 최대 비용을 조사한 결과 3만원 이내(36.1%)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1만원 이내(20.7%), 5만원 이내(18.1%)의 순으로 나타남
- 문화예술 교육활동에 할애할 수 있는 시간은 1주일에 1~2시간(34.1%)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1주일에 2~3시간(24.8%), 1주일에 3~5시간(21.7%)의 순으로 나타남

교육활동 부담가능 비용



교육활동 할애가능 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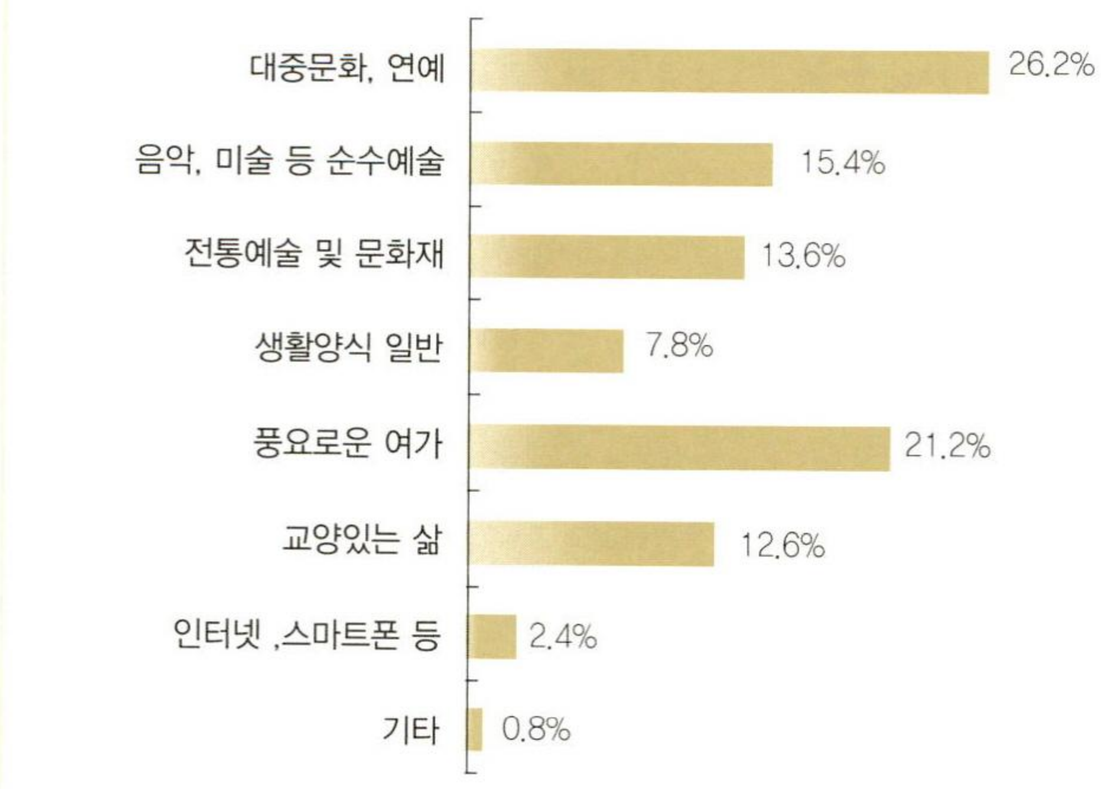


○ 문화의식 및 문화정책

▶ 남구 구민의 문화에 대한 의식

- "문화"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으로 대중문화, 연예(26.2%), 풍요로운 여가(21.2%), 음악, 미술 등 순수예술(15.4%)의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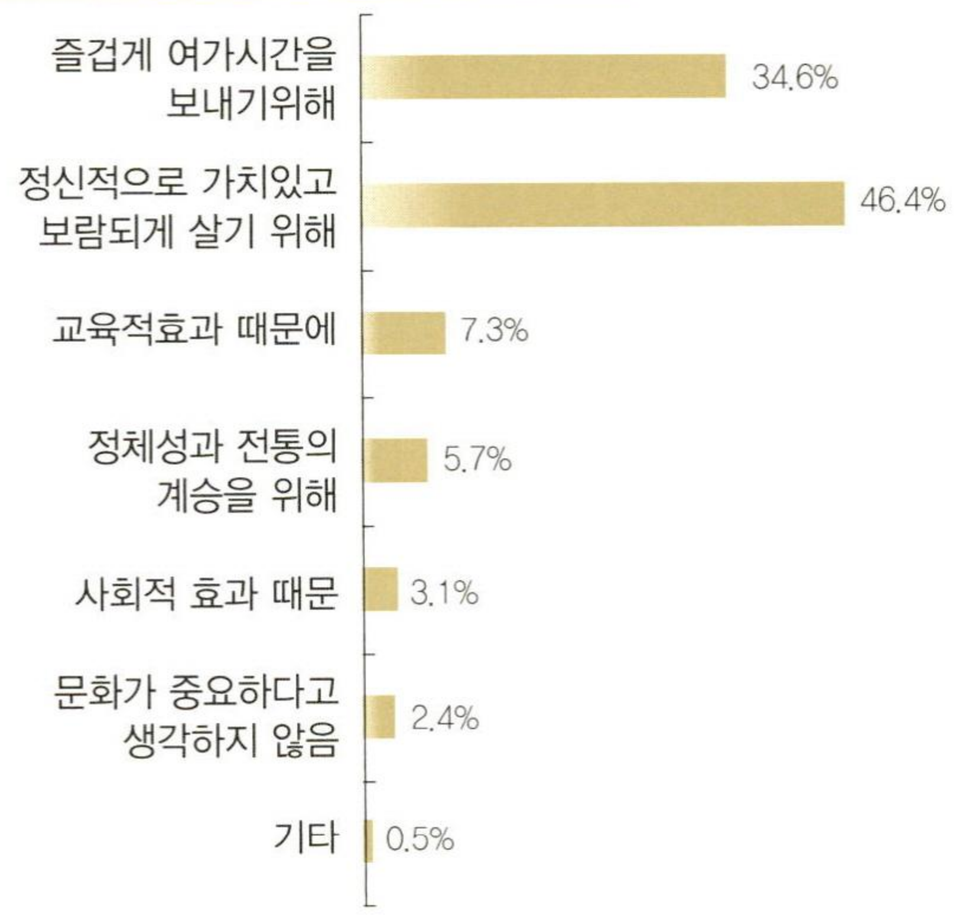
문화의 의미



▶ 남구 구민의 문화에 대한 의식

– 문화가 중요한 이유로 "정신적으로 가치 있고 보람되게 살기 위해(46.4%)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즐겁게 여가를 보내기 위해(34.6%), 교육적 효과 때문에(7.3%)의 순으로 나타남

문화가 중요한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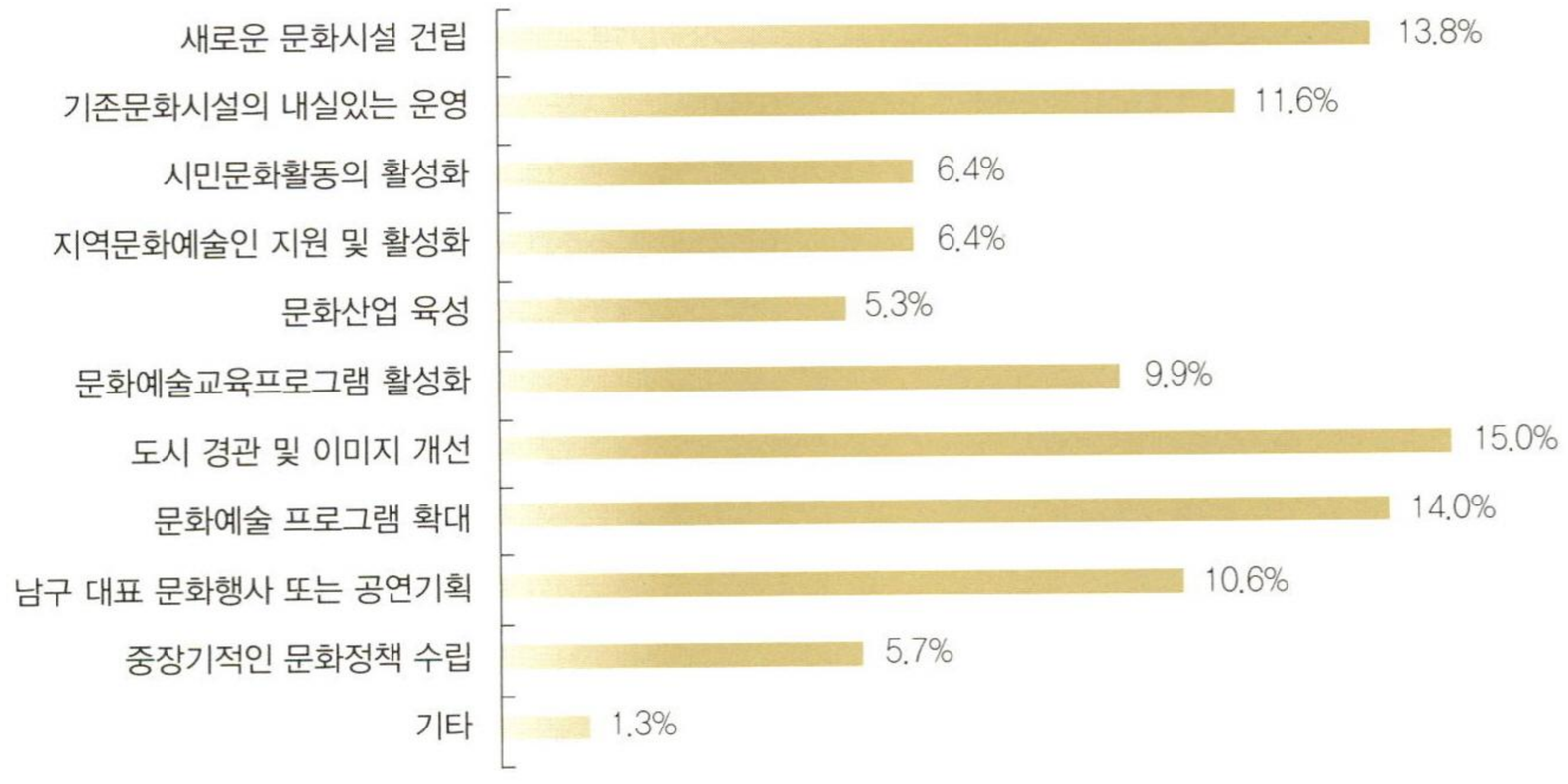


▶ 남구 문화 발전을 위한 방안

– 남구 문화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하여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방안을 2가지 선택하게 하여 빈도의 총합에 비율을 산출함

– "도시경관 및 이미지 개선(15.0%)"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문화예술프로그램 확대 (14.0)", 새로운 문화시설 건립(13.8%)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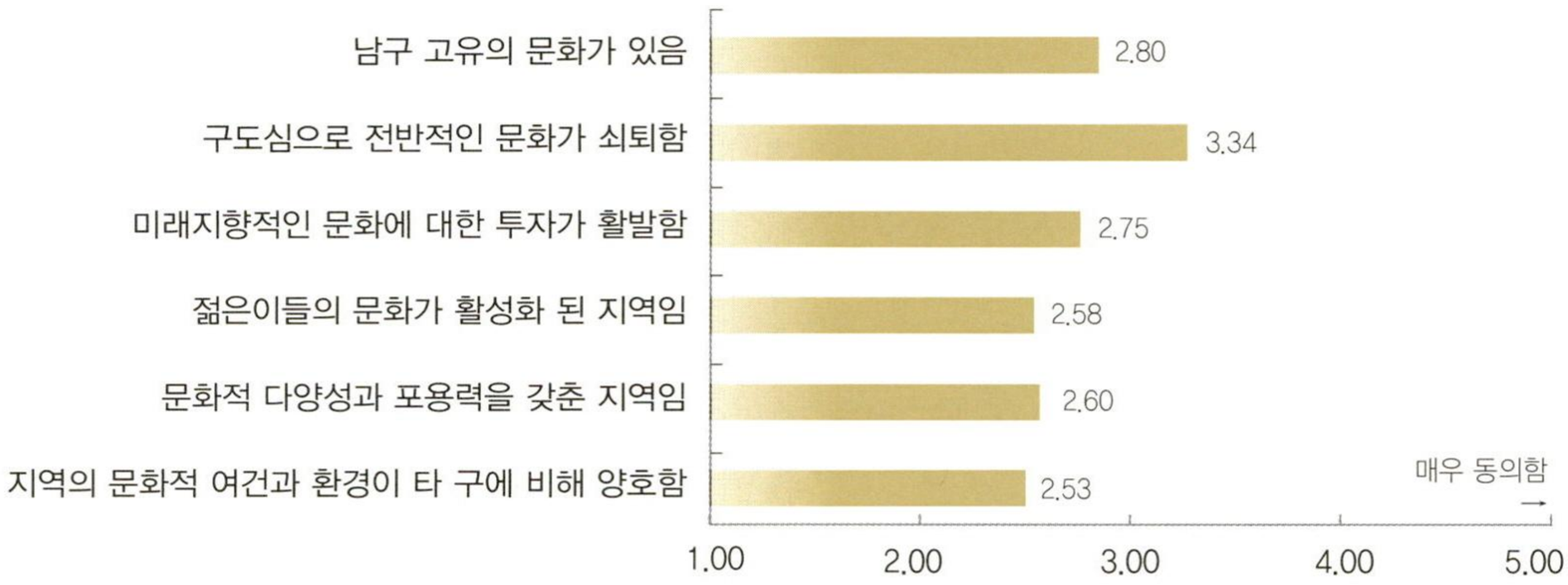
남구 문화 발전을 위한 방안



▶ 남구 문화 특성에 대한 인식

– 남구가 가지는 문화적 특성에 대한 구민들의 인식을 조사한 결과 '구도심으로 문화가 쇠퇴하고 있다.(3.34)는 문항에 동의하고 있으며 고유의 문화가 있음(2.80), 미래지향적(2.75), 젊은이들의 문화(2.58), 다양성과 포용력(2.60), 양호한 문화적 환경(2.53) 등 항목에 동의하지 않아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남구 문화 특성에 대한 인식



제2절 2010 인천남구문화수요조사 결과 분석

1. 여가활동

주민들의 여가시간과 그 활용에 대한 조사로, 여가시간 및 여가활동을 즐기는 데 있어 제한사항, 여가활동의 종류 등을 조사하였다.

① 여가시간

남구주민들의 여가시간의 평균은 평일 3.5시간 주말 6.46시간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2010국민여가활동조사' 결과 나온 우리나라 국민들의 평균 여가시간인 평일 4시간, 휴일 7시간에 비해 30분 가량 적은 수치다. '2010 국민여가활동조사'[1]에서는 전체국민의 절반 이상(50.3%)이 여가시간이 부족하다고 응답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남구 주민들 역시 여가시간의 부족을 느끼고 있을 것으로 추론해 볼 수 있다.

[표55] 평일 및 주말 평균 여가시간

평 일		주 말	
남구	전국	남구	전국
3.50	4.00	6.46	7.00

동별로 살펴보면 도화동 주민의 평일 여가시간이 3.10시간으로 가장 적었고, 주말 여가시간은 문학동이 5.60시간으로 가장 적었다. 도화동이나 용현동 주민의 여가시간은 전국과 비교했을 때도 1시간 가까이 차이가 났다. 관교동 주민의 경우만 주말 여가시간이 7.50시간으로 전국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이를 제외한 모든 동의 평일 및 주말 여가시간이 전국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1]문화관광부 11월 24일, 「2010 국민여가활동조사」 결과 보도자료, "2010년 국민들은 여가를 어떻게 보내고 있는가?"

[표56] 동별 평일 및 주말 평균여가시간

구 분	평 일	주 말
숭의동	3.69	6.84
용현동	3.15	6.10
학익동	3.32	6.40
도화동	3.10	5.63
주안동	3.80	6.72
관교동	3.52	7.50
문학동	3.55	5.60
평 균	3.50	6.46
합 계	3.50	6.46

② 여가활동의 다양성

응답자가 주로 즐기는 여가활동 종류를 우선순위에 따라 3가지를 선택하게 하고 1순위에 3점, 2순위에 2점, 3순위에 1점을 배점하여 전체 점수의 합계에 대한 비율을 구하는 방식으로 정리하였다.
남구 주민들은 주중 여가활동으로 'TV시청' (18.0%), '휴식' (15.9%), '산책 · 스포츠' (12.4%), '인터넷 · 게임' (10.8%), '독서' (8.2%), '동호회 참가' (6.5%) 등을 꼽았다.
주말에는 '휴식' (14.6%), '종교활동' (13.4%), 'TV시청' (11.9%), '산책, 스포츠' (8.7%), '쇼핑 · 외식' (8.6%), '동호회 참가' (7.8%) 등으로 조사되었다. 평일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말에는 종교활동과 산책, 스포츠, 쇼핑 · 외식, 등산 · 낚시, 예술감상, 여행 등 옥외활동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표57] 여가활동 유형

구 분	평일 여가활동	비 율	주말 여가활동	주 말
1순위	TV시청	18.0	휴식	14.6
2순위	휴식	15.9	종교활동	13.4
3순위	산책 · 스포츠	12.4	TV시청	11.9
4순위	인터넷 · 게임	10.8	산책 · 스포츠	8.7
5순위	독서	8.2	쇼핑 · 외식	8.6
6순위	동호회참가	6.5	동호회참가	7.8
7순위	음악감상	4.6	인터넷 · 게임	7.4
8순위	종교활동	4.0	등산 · 낚시	5.6
9순위	쇼핑 · 외식	3.9	예술감상	4.7
10순위	스포츠관람	3.2	여행	4.1

③ 여가활동의 제한요소

응답자들은 여가생활의 제한요소로 '시간부족' (40.0%)을 첫 순위로 꼽았다. 2순위는 '경제적 부담' (33.7%), 3순위는 '갈만한 곳이 부족' (10.7%)이었으며, '정보부족' (7.4%)과 '흥미있는 프로그램이 부족' (6.5%) 등이 뒤를 이었다.

[표58] 여가생활 제한요소

구 분	제한요소	비율(%)
1순위	시간부족	40.0
2순위	경제적 부담	33.7
3순위	갈만한 곳이 부족	10.7
4순위	정보부족	7.4
5순위	흥미 있는 프로그램이 부족	6.5
6순위	기 타	1.8

동별로 살펴보면, 주안동의 경우에만 여가생활의 제한요소 중 '경제적 부담(42.2%)'이 '시간부족(37.3%)' 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59] 동별 여가생활 제한요소

구 분	시간부족	경제적부담	갈 곳 부족	프로그램부족	정보부족	기 타	합계
숭의동	41.5%	32.1%	15.1%	9.4%	1.9%	0.0%	100.0%
용현동	46.3%	25.3%	8.4%	9.5%	9.5%	1.1%	100.0%
학익동	39.0%	30.5%	6.8%	8.5%	11.0%	4.2%	100.0%
도화동	45.8%	34.7%	9.7%	2.8%	6.9%	0.0%	100.0%
주안동	37.3%	42.2%	11.8%	3.7%	3.5%	1.4%	100.0%
관교동	40.0%	16.7%	10.0%	10.0%	16.7%	6.7%	100.0%
문학동	40.0%	30.0%	15.0%	10.0%	5.0%	0.0%	100.0%
평 균	41.4%	30.2%	11.0%	7.7%	7.8%	1.9%	100.0%

2. 문화시설 이용

문화시설 이용과 관련한 전반적인 조사로, 문화시설의 이용경험, 이용경험이 있는 문화시설의 종류, 시설 이용에 대한 만족도, 문화시설을 이용할 때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사항, 문화시설을 이용하는 데 있어 제한사항 등을 조사하였다.

① 문화시설 이용경험

문화시설 이용경험을 묻는 질문에 남구 주민의 64.6%가 시설이용경험이 있다고 답변했다. 이는 2010문화향수 실태조사를 통해 확인된 전국평균 52.2%를 상회하는 결과다. 물론, 여기에는 2010 문화향수 실태조사의 문화시설 이용에 대한 질문이 지난 1년간이라는 기간을 한정해두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이용 시기에 제한을 두지 않은 결과이므로 직접 비교는 통계적으로 의미를 두기 어렵지만, 남구 내에서 문화시설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가 60%를 넘기고 있다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표60] 문화시설 이용경험

있 음		없 음	
남구	전국	남구	전국
64.6%	52.2%	35.4%	47.8%

② 이용 경험이 있는 문화시설

이용 경험이 있는 문화시설의 종류를 묻는 질문에 18.1%의 응답자들이 공공도서관을 꼽았다. 그 뒤를 '사설 문화센터'(16.7%), '주민자치센터'(14.0%), '예술영화상영관'(12.0%), '인천문화회관'(7.0%), '사회복지관'(5.3%), '지방문화원'(4.5%) 등이 있었다. 남구학산문화원이 영화공간주안, 학산소극장 등을 위탁운영하고 있는 것을 고려해 볼 때, 지방문화원의 이용순위는 유연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표61] 이용경험이 있는 문화시설

구 분	이용 문화시설	비율(%)
1순위	공공도서관	18.1
2순위	사설 문화센터	16.7
3순위	주민자치센터	14.0
4순위	예술영화상영관	12.0
5순위	인천문화회관	7.0
6순위	사회복지관	5.3
7순위	지방문화원	4.5
8순위	박물관, 미술관	3.8
9순위	평생학습관	3.5
10순위	소공연장/청소년회관(동률)	3.1

③ 이용시설에 대한 만족도

이용시설의 만족도는 1(매우 불만족)에서 5(매우 만족)까지 항목별 5점척도로 조사하였다. 이를 평균하여 계산한 결과, 남구 문화시설 이용의 전반적인 만족도는 3.04로 나타났다. '행사내용 및 프로그램' (3.18)과 '안내 및 운영' 에서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양호하게 드러났다. 반면, '홍보' (2.92), '교통 및 주차' (2.85) 등은 만족도가 보통 이하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62] 이용시설의 만족도

구 분	시설 만족도 항목	만족도(5점척도)
1순위	행사내용 및 프로그램	3.18
2순위	안내 및 운영	3.16
3순위	편의, 휴게시설	3.09
4순위	홍보	2.92
5순위	교통 및 주차	2.85

동별로 살펴보면, 프로그램 만족도가 가장 높은 곳은 문학동, 관교동이었고, 교통 및 주차에 대한 만족도는 학익동이, 안내 및 운영 만족도는 관교동과 문학동, 편의 및 휴게시설 이용 만족도 및 홍보에 대한 만족도는 문학동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63] 동별 이용시설 만족도

구 분	프로그램	교통/주차	안내/운영	편의시설	홍보
숭의동	2.98	2.57	3.19	2.99	2.75
용현동	3.16	2.69	3.02	2.92	2.66
학익동	3.42	2.99	3.35	3.23	3.20
도화동	2.98	2.89	3.13	3.14	2.97
주안동	3.03	2.84	3.00	2.97	2.78
관교동	3.74	3.11	3.81	3.44	3.37
문학동	3.75	2.88	3.75	3.75	3.75
평 균	3.18	2.85	3.16	3.09	2.92

④ 문화시설 이용시 우선 고려사항

남구 주민들은 '문화시설을 이용할 때 어떤 점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가' 라는 질문에 '프로그램의 수준' (36.7%)과 '교통 및 시간의 편의성' (34.5%), '비용의 적절성' (18.3%)을 가장 많이 선택했다. '출연진, 강사진의 유명도' (5.0%) '다른 사람의 평판(1.7%)' , '홍보물이 눈에 익어 익숙해진 이미지(3.1%)' 등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문화시설을 이용하는 데 있어 프로그램의 질과 관람의 편의성, 비용 등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010 문화향수 실태조사」에서는 문화시설의 문화행사에 참여하는 기준에 대한 질문에 '프로그램수준' (56.4%), '비용의 적절성' (17.9%), '문화행사 기간/시간' (9.1%), '교통의 편의성' (6.1%), '강사진 유명도' (4.0%)[2] 순으로 통계가 도출되었다. 전국 단위와 비교해 보았을 때, 상대적으로 남구에서는 교통의 편의성에 대한 요구가 많은 것으로 볼 수 있다.

[표64] 문화시설 이용시 우선 고려사항

구 분	시설 이용시 우선 고려사항	비율(%)
1순위	프로그램의 수준	36.7
2순위	교통 및 시간의 편의성	34.5
3순위	비용의 적절성	18.3
4순위	출연진, 강사진의 유명도	5.0
5순위	홍보물이 눈에 익어 익숙해진 이미지	3.1
6순위	다른 사람의 평판	1.7
7순위	기타	0.7

동별로 비교해보면 '프로그램의 수준' 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는 응답이 문학동에서 77.8%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교통 및 시간의 편의성' 은 주안동과 학익동, 도화동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2) 「2010 문화향수 실태조사」 116p

[표65] 동별 문화시설 이용시 우선 고려사항

구분	비용	프로그램	출연/강사진	평판	교통/시간편의	홍보 이미지	기타	합계
숭의동	23.8%	45.5%	2.2%	0.0%	24.7%	3.7%	0.0%	100.0%
용현동	12.7%	32.7%	10.7%	4.7%	33.6%	5.7%	0.0%	100.0%
학익동	18.2%	37.1%	3.7%	2.5%	37.1%	0.0%	1.4%	100.0%
도화동	19.5%	41.2%	1.5%	0.0%	36.3%	1.5%	0.0%	100.0%
주안동	16.8%	34.5%	7.3%	0.0%	38.2%	2.8%	0.5%	100.0%
관교동	20.7%	41.4%	0.0%	6.9%	24.1%	6.9%	0.0%	100.0%
문학동	22.2%	77.8%	0.0%	0.0%	0.0%	0.0%	0.0%	100.0%
평 균	18.3%	36.7%	5.0%	1.7%	34.5%	3.1%	0.7%	100.0%

⑤ 문화시설 이용제약 사유

남구 문화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이유는 '정보와 관심이 부족해서' 가 35.0%", '시간이 부족해서' 가 30.7%로 가장 높은 분포를 보였다, 이어 '적절한 프로그램이 없어서' 가 16.7%, '멀거나 교통이 불편해서' 가 8.6%로 나타나고 있다.

[표66] 남구 문화시설 이용제약 사유

구분	미이용 사유	비율(%)
1순위	정보와 관심이 부족해서	35.0
2순위	시간이 부족해서	30.7
3순위	적절한 프로그램이 없어서	16.7
4순위	멀거나 교통이 불편해서	8.6
5순위	비용이 많이 들어서	4.9
6순위	프로그램의 수준이 낮을 것 같아서	1.9
7순위	기타	2.3

동별로는 '시간이 부족해서' 라는 응답은 숭의동과 관교동에서 가장 많았고, 용현동, 학익동, 도화동, 주안동, 문학동은 '정보와 관심이 부족해서' 가 가장 높았다. 특히 숭의동의 경우는 '적절한 프로그램이 없어서' 의 비율이 29.0%로 가장 높게 나타나 관심은 있으나, 시간과 그에 적절한 프로그램이 없다는 점이 문화시설을 이용하는데 큰 제약이 있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문학동은 '비용이 많이 들어서' 라는 응답이 15.0%로 다른 동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났다. 문학동은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문학경기장 등이 근접해 있어, 생활권 문화시설이 많은 다른 동에 비해 비용 부담이 크게 느껴지는 것으로 알 수 있다.

[표67] 동별 남구 문화시설 이용제약 사유

구분	시간	비용	교통불편	프로그램 수준	정보/ 관심부족	프로그램 적합성	기타	합계
숭의동	37.0%	2.0%	4.2%	2.0%	23.9%	29.0%	2.0%	100.0%
용현동	30.0%	1.8%	8.0%	1.7%	37.3%	18.0%	3.3%	100.0%
학익동	32.0%	5.0%	4.7%	4.0%	36.8%	15.8%	1.7%	100.0%
도화동	36.0%	3.0%	5.0%	0.0%	36.6%	17.4%	2.0%	100.0%
주안동	30.2%	6.2%	8.3%	1.3%	38.8%	14.1%	1.0%	100.0%
관교동	30.0%	0.0%	26.7%	0.0%	26.7%	10.0%	6.7%	100.0%
문학동	25.0%	15.0%	10.0%	5.0%	25.0%	15.0%	5.0%	100.0%
평 균	30.7%	4.9%	8.6%	1.9%	35.0%	16.7%	2.3%	100.0%

3. 문화예술활동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문항은 문화행사에 대한 것과 축제에 대한 질문으로 구성하였다. 문항은 주로 관람하는 문화행사, 행사관람 동반자, 문화예술행사의 관람 목적, 관람 지역, 타 지역에서의 관람사유, 남구문화행사의 보완점, 문화행사에 대한 정보습득 경로, 1회 문화행사 관람에 지불가능 금액, 지역축제 참가경험, 참가축제에 대한 만족도, 개최를 희망하는 지역축제의 유형 등으로 짜여 조사가 진행되었다.

① 주로 관람하는 문화행사

주로 관람하는 문화행사를 3순위까지 선택하게 한 후 순위별 가중치를 두어 합산(1순위 3점, 2순위 2점, 3순위 1점)한 결과 '대중문화공연'이 16.8%, '연극, 뮤지컬 공연이' 15.5%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예술영화' (13.6%), '음악공연' (12.5%), '박물관 전시회' (9.9%), '문학관련 행사' (9.5%), '미술관 전시회' (8.4%), '전통예술' (7.1%), '무용공연' (3.1%)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2010 문화향수 실태조사」에서는 영화(60.3%), 연극(11.2%), 미술전시회(9.5%), 대중가요콘서트/연예(7.6%), 전통예술공연(5.7%), 클래식음악회 · 오페라(4.8%), 문학행사(3.8%), 무용(1.4%)순으로 나타났다.[3)]

남구의 경우 일반영화를 예술 관람의 범주에 넣지 않고 예술영화 항목을 따로 설정한 까닭에 전국 단위에서 영화에 쏠린 응답이 분산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3) 「2010 문화향수 실태조사」 10p

[표68] 주로 관람하는 문화행사

구분	주로 관람하는 문화행사	비율(%)
1순위	대중문화공연	16.8
2순위	연극, 뮤지컬 공연	15.5
3순위	예술영화	13.6
4순위	음악공연	12.5
5순위	박물관 전시회	9.9
6순위	문학관련 행사	9.5
7순위	미술관 전시회	8.4
8순위	전통예술	7.1
9순위	무용공연	3.1
10순위	기타	3.7

② 문화예술행사 관람시 동반자

문화예술행사 관람시 동반자를 묻는 질문에는 '친구, 동료'(46.8%), '가족'(46.0%)으로 응답한 경우가 90%를 넘길 정도로 압도적으로 많이 나타났다. 혼자서 본다는 응답(4.0%)이나 동호회 회원과 함께 간다는 응답(1.9%)는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났다.

[표69] 문화예술행사 관람시 동반자

구분	관람시 동반자	비율(%)
1순위	친구, 동료	46.8
2순위	가족	46.0
3순위	혼자서	4.0
4순위	동호회 회원	1.9
5순위	기타	1.3

③ 문화예술행사 관람목적

문화예술행사의 관람목적을 묻는 질문에 '여가선용이나 친목도모'(32.4%), '본인 관심분야'(31.2%)가 가장 높게 나왔다. '자녀교육 목적'(22.5%)와 지인의 초대나 초청(11.5%) 등이 뒤를 이었다.

[표70] 문화예술행사 관람목적

구분	관람목적	비율(%)
1순위	여가선용이나 친목도모	32.4
2순위	본인 관심분야	31.2
3순위	자녀교육 목적	22.5
4순위	지인의 초대나 초청	11.5
5순위	기타	2.4

동별로는 '여가선용이나 친목도모'의 응답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관교동이었고 문학동은 이보다는 '자녀교육 목적'이나 '본인 관심분야'라는 응답이 많았다. 숭의동의 경우는 '본인 관심분야'라는 응답이 44.5%로 다른 동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났다. 또 학익동은 '자녀교육 목적'이라는 응답이 32.1%였다.

[표71] 동별 문화예술행사 관람목적

구 분	자녀교육	관심분야	지인 초청	여가/친목도모	기타	합계
숭의동	22.1%	44.5%	5.6%	25.9%	2.0%	100.0%
용현동	18.6%	31.5%	8.4%	37.4%	4.1%	100.0%
학익동	32.1%	29.4%	12.4%	23.5%	2.7%	100.0%
도화동	24.4%	29.2%	10.5%	35.9%	0.0%	100.0%
주안동	18.4%	30.6%	13.2%	36.0%	1.9%	100.0%
관교동	13.3%	26.7%	16.7%	40.0%	3.3%	100.0%
문학동	30.0%	35.0%	5.0%	20.0%	10.0%	100.0%
평 균	22.5%	31.2%	11.5%	32.4%	2.4%	100.0%

④ 문화예술행사 관람지역

문화예술행사를 주로 관람하는 지역을 묻는 질문에 36.7%가 '남구지역'을 꼽았다. 그 뒤를 '남구를 제외한 인천지역'(30.4%), '서울 및 부천지역'(27.8%), '경기도 지역'(1.6%) 등이었다. 주로 남구에서 문화예술행사를 관람한다는 답변이 가장 많이 나왔지만, 63.3%의 응답자가 주로 남구 이외의 지역에서 문화예술행사를 관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72] 문화예술행사 관람지역

구분	관람지역	비율(%)
1순위	남구지역	36.7
2순위	인천지역(남구 제외)	30.4
3순위	서울 및 부천지역	27.8
4순위	경기도 지역	1.6
5순위	기타	3.5

주로 '남구 지역'에서 문화예술행사를 관람한다는 응답은 문학동과 관교동이 가장 높게 나타나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문학월드컵경기장 등 대규모 문화시설이 밀집해 있는 지역의 특성을 보여준다. '서울이나 부천'이라는 응답은 학익동과 도화동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73] 동별 문화예술행사 관람지역

구 분	남구	인천	서울/부천	경기도	기타	합계
숭의동	33.3%	39.6%	17.4%	3.5%	6.3%	100.0%
용현동	29.2%	29.5%	36.6%	1.5%	3.2%	100.0%
학익동	38.0%	21.1%	34.5%	3.7%	2.6%	100.0%
도화동	38.0%	29.9%	31.1%	0.0%	1.0%	100.0%
주안동	37.8%	31.9%	23.7%	1.4%	5.2%	100.0%
관교동	50.0%	26.7%	23.3%	0.0%	0.0%	100.0%
문학동	55.0%	25.0%	20.0%	0.0%	0.0%	100.0%
평 균	36.7%	30.4%	27.8%	1.6%	3.5%	100.0%

⑤ 문화예술행사 타 지역 관람사유

60%가 넘는 남구의 주민이 남구 이외의 지역에서 문화예술행사를 관람하고 있었다. 문화예술행사의 타 지역 관람사유로는 '정보부족'(32.8%)과 '다양성 부족'(30.4%)이 가장 많이 꼽혔다. 그 밖의 이유는 '빈도 부족'(15.7%), '프로그램 수준'(8.0%), '타지역 생활'(6.8%) 등이 꼽혔다. 이를 종합하면, 프로그램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야 하는 동시에 계층별 프로그램 특성화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표74] 타 지역 관람사유

구분	타 지역 관람사유	비율(%)
1순위	정보부족	32.8
2순위	다양성 부족	30.4
3순위	빈도 부족	15.7
4순위	프로그램 수준	8.0
5순위	타지역 생활(근무처 등)	6.8
6순위	기타	6.3

숭의동에서는 '다양성 부족' 이라는 응답이 51.7%로 동 평균을 크게 웃돌며 가장 높게 나타나 숭의동 주민의 문화적 욕구를 잘 보여주고 있다. 한편, 도화동에서는 '정보부족' 이라는 응답이 43.2%로 다른 동에 비해 문화예술 행사에 관한 정보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표75] 동별 타 지역 관람사유

구분	다양성 부족	프로그램 수준	타지역 생활	빈도부족	정보부족	기타	합계
숭의동	51.7%	2.6%	6.5%	13.2%	22.3%	3.7%	100.0%
용현동	34.8%	10.8%	7.2%	7.0%	32.4%	7.8%	100.0%
학익동	36.0%	9.5%	6.8%	13.3%	29.5%	4.9%	100.0%
도화동	22.4%	1.3%	9.5%	23.6%	43.2%	0.0%	100.0%
주안동	30.8%	5.8%	6.4%	17.3%	33.7%	6.0%	100.0%
관교동	35.3%	5.9%	11.8%	11.8%	35.3%	0.0%	100.0%
문학동	16.7%	8.3%	0.0%	16.7%	25.0%	33.3%	100.0%
평 균	30.4%	8.0%	6.8%	15.7%	32.8%	6.3%	100.0%

⑥ 남구 문화행사 보완점

5점척도를 기준으로 할 때 남구문화행사의 전반적인 만족도는 2.95(±0.71)였다. 이는 보통 수준인 3을 넘나드는 결과로 남구 주민들이 지역에서 열리는 문화행사에 대해 만족스럽지 못하게 생각한다는 뜻이다. 남구 문화행사의 보완할 점은 '관련 정보가 많아야 한다' (36.3%), '가까운 곳에서 열려야 한다' (21.0%), '작품의 질을 높여야 한다' (20.6%), '더욱 자주 개최되어야 한다' (12.6%), '관람비용을 낮춰야 한다' (7.7%)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대체적으로 남구 주민들은 남구 지역의 문화예술 행사에 대한 정보접근성에 대해 문제의식을 느끼는 동시에 지근거리에서의

문화예술행사를 원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 남구에서 열리는 문화예술 행사의 질적 수준을 제고해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표76] 남구문화행사 보완점

구분	보완점	비율(%)
1순위	관련 정보가 많아야 한다	36.3
2순위	가까운 곳에서 열려야 한다	21.0
3순위	작품의 질을 높여야 한다	20.6
4순위	더욱 자주 개최되어야 한다	12.6
5순위	관람비용을 낮춰야 한다	7.7
6순위	기타	1.7

동별로는 '관련정보가 많아야 한다' 는 응답은 도화동, 주안동, 문학동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고, '가까운 곳에서 열려야 한다' 는 응답은 문학동이 33.3%로 가장 높았다. '작품의 질을 높여야 한다' 는 응답은 학익동, 용현동, 숭의동의 순이었고 '관람비용을 낮춰야 한다' 는 문학동에서 26.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77] 동별 남구문화행사 보완점

정보	작품의 질	관람비용 축소	자주개최	접근성	정보	기타	합계
숭의동	24.5%	7.8%	20.0%	18.3%	29.4%	0.0%	100.0%
용현동	24.6%	4.5%	16.9%	15.9%	37.3%	0.9%	100.0%
학익동	26.1%	6.7%	8.1%	25.8%	31.5%	1.8%	100.0%
도화동	15.0%	8.5%	13.5%	17.5%	42.0%	3.5%	100.0%
주안동	16.4%	6.0%	12.9%	21.5%	41.6%	1.5%	100.0%
관교동	23.3%	13.3%	13.3%	20.0%	23.3%	6.7%	100.0%
문학동	0.0%	26.7%	0.0%	33.3%	40.0%	0.0%	100.0%
평 균	20.6%	7.7%	12.6%	21.0%	36.3%	1.7%	100.0%

⑦ 문화예술행사 정보수집 경로

문화예술행사의 정보수집 경로는 '주변사람' (34.3%)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안내문' (22.8%), '인터넷' (19.3%)가 그 뒤를 이었다. '신문, 잡지' 는 (10.4%), 'TV, 라디오' 는

(7.6%), '동호회 모임'을 통해서 정보를 얻는다는 응답은 2.9%로 조사되었다.

「2010 문화향수 실태조사」에서는 '인터넷'에서 정보를 얻는다는 응답이33.7%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 '주변사람' (29.2%), '텔레비전/라디오' (26.6%), '신문/잡지' (5.6%), '안내문' (2.9%), '공공단체/교육기관' (0.8%), '기타' (0.8%), '동호회' (0.5%)의 순서로 나타났다. 종합해 보면, 순서가 가장 크게 바뀐 것은 안내문의 경우다. 상대적으로 안내문을 통한 정보습득 비율이 높게 나타난 것은 기초지자체의 특성이 드러난 지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표78] 문화예술행사 정보수집 경로

구분	정보수집경로	비율(%)
1순위	주변사람	34.3
2순위	안내문(현수막, 간판 등)	22.8
3순위	인터넷	19.3
4순위	신문, 잡지	10.4
5순위	TV, 라디오	7.6
6순위	동호회, 모임	2.9
7순위	기타	2.8

⑧ 문화예술활동 지불가능 금액

문화예술활동에 지불가능 금액을 묻는 질문에는 '3만원 이내' (34.5%)와 '1만원 이내' (31.9%)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5만원 이내' (15.0%)까지 합산하면 81.4%에 달하는 높은 수치가 나온다. 관람비용만을 두고 판단하자면 중저가형 문화예술행사가 남구 주민들에게 어필할 가능성이 높은 셈이다. 한편, '10만원 이내'도 10.2%로 적지 않은 수치가 나왔으며 1.5%만이 '10만 원 이상'을 선택했다. 문화예술행사에 지불의사가 없다는 응답은 7.0%에 달했다.

[표79] 문화예술활동 지불가능 금액

구분	지불가능금액	비율(%)
1순위	3만원 이내	34.5
2순위	1만원 이내	31.9
3순위	5만원 이내	15.0
4순위	10만원 이내	10.2
5순위	10만원 이상	1.5
6순위	지불의사 없음	7.0

⑨ 참여 지역축제

설문응답자의 43.4%가 남구 지역 축제에 참가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절반을 넘어선 56.6%에 달했다. 이 가운데 '미추홀 문화축전(구민의 날)' (27.4%), '야외문화예술공연' (21.1%)이 참여 지역축제 1, 2순위에 꼽혔으며 '주안미디어문화축전' (13.5%)과 '학골축제 등 동별축제' (13.3%), '민속문화축제' (10.9%)가 그 뒤를 이었다. 상대적으로 특성화되지 않은 관 주도 축제 사이에서 주안미디어문화축전의 강세가 눈에 띈다.

[표80] 참여 지역축제

구분	축제명	비율(%)
1순위	미추홀 문화축전(구민의 날)	27.4
2순위	야외문화예술공연	21.1
3순위	주안미디어문화축전	13.5
4순위	학골축제 등 동별축제	13.3
5순위	민속문화축제	10.9
6순위	주안유스필름페스티벌	5.4
7순위	인천국제클라운마임축제	4.1
8순위	인천비타민연극제	2.8
9순위	기타	1.5

⑩ 참여 지역축제 만족도

5점척도 항목으로 조사한 결과 지역축제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2.8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중간 수준의 만족도를 나타낸 가운데 '행사내용 및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가 3.04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안내 및 운영' (2.91), '편의, 휴게시설' (2.77), '홍보' (2.70), '교통 및 주차' (2.68) 등으로 조사되었다.

[표81] 참여 지역축제 만족도

구분	만족도 항목	만족도(5점척도)
1순위	행사내용 및 프로그램	3.04
2순위	안내 및 운영	2.91
3순위	편의, 휴게시설	2.77
4순위	홍보	2.70
5순위	교통 및 주차	2.68

지역축제에 대한 만족도는 '행사내용 및 프로그램', '안내 및 운영'과 '편의 및 휴게시설'에 대한 만족도는 도화동이 가장 높았고, '교통 및 주차'와 '홍보'에 대한 만족도는 문학동이 가장 높았다.

[표82] 동별 참여 지역축제 만족도

구 분	행사/프로그램	교통/주차	안내/운영	편의시설	홍보
숭의동	2.88	2.05	2.63	2.46	2.74
용현동	3.03	2.57	2.93	2.73	2.35
학익동	3.17	2.81	2.94	2.91	2.96
도화동	3.35	2.82	3.15	2.92	2.67
주안동	3.03	2.76	2.97	2.78	2.65
관교동	3.22	2.94	3.11	2.89	2.89
문학동	3.00	3.00	3.00	2.67	3.33
평 균	3.04	2.68	2.91	2.77	2.70

⑪ 개최 희망 지역축제

남구에서 개최되었으면 하는 지역축제의 유형을 묻는 질문에 대해 '영화, 영상 등을 연계한 미디어 축제'를 선택한 비율이 28.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연극, 미술 등 순수예술을 주제로 한 축제'(22.7%), '전통, 역사, 민속을 주제로 한 축제'(21.5%) 등도 20%가 넘는 비율을 보였으며 '남구의 자연환경을 활용한 축제'(14.5%), '지역 상권과 연계한 축제'(11.6%) 등이 뒤를 이었다. 이는 앞의 참여 지역축제들이 대부분 특성화되지 않은 종합축제의 성격을 띠고 있는 것과도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표83] 개최 희망 지역축제

구분	축제내용	비율(%)
1순위	영화, 영상 등을 연계한 미디어 축제	28.2
2순위	연극, 미술 등 순수예술을 주제로 한 축제	22.7
3순위	전통, 역사, 민속을 주제로 한 축제	21.5
4순위	남구의 자연환경을 활용한 축제	14.5
5순위	지역 상권과 연계한 축제	11.6
6순위	기타	1.5

4. 문화예술교육 및 동호회

문화예술교육 및 동호회에 대한 조사는 현재 참여중인 동호회, 향후 참여의향이 있는 동호회, 동호회 참여의 제약사항,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경험, 향후 참여의사가 있는 문화예술교육 영역, 문화예술교육활동에 투자할 수 있는 금액과 시간 등을 묻고 그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였다.

① 참여중인 동호회

조사대상 시민들 중 동호회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고 답한 비율은 20.2%였다. 이 중 자신이 실제로 창작활동을 하는 형태의 동호회 활동을 하고 있는 비율은 43.3%였다. 나머지 56.3%는 음악이나, 영화 등 문화예술 생산물을 감상하는 형태의 동호회에 참여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참여중인 동호회를 묻는 질문에는 24.0%가 '문학(독서포함)', 20.0%가 '음악(클래식 포함)', 16.8%가 '영상(영화 비디오)', 13.6%가 미술(사진, 서예 등)을 꼽았다. 이 외에 '전통예술'(10.4%), '연극, 뮤지컬'(8.8%), '무용'(4.0%), '역사문화유산'(2.4%) 등으로 조사되었다.

20%가 넘는 동호회 참여비율은 이례적으로 높은 것이다. 「2008 인천문화지표 조사연구」에 드러난 인천시민의 문화예술 관련 동호회 활동비율은 2.2%에 불과했고, 「2010 문화향수 실태조사」에서 나타난 전국의 문화관련 동호회 참여율도 역시 3.1%에 머물렀다. 인천과 서울 모두 각 분야별 분석을 별도로 실시하지 않았을 정도로 동호회 참여자의 샘플은 희소했다. 동호회 활동 참여비율에 대해서는 단순히 통계조사상의 오류가 발생한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유의미한 수치인 것인지에 대해 차후에 별도의 추가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표84] 참여중인 동호회

구분	분야	비율(%)
1순위	문학(독서포함)	24.0
2순위	음악(클래식 포함)	20.0
3순위	영상(영화, 비디오)	16.8
4순위	미술(사진, 서예 등)	13.6
5순위	전통예술	10.4
6순위	연극, 뮤지컬	8.8
7순위	무용	4.0
8순위	역사문화유산	2.4

② 참여의향이 있는 동호회

향후 동호회 활동의 참여의향을 묻는 질문에 58.1%가 '참여의향이 있다' 고 답변했다. 이들에게 참여의향이 있는 동호회의 분야를 질문한 결과 '영상(영화, 비디오)' (23.9%), '미술(사진, 서예 등)' (15.9%), '음악(클래식 포함)', '연극, 뮤지컬' (14.7%, 이상 동률), '문학(독서포함)' (11.7%) 순으로 나타났다.

「2010 문화향수 실태조사」에서 향후 동호회 활동 참여의향을 밝힌 답변의 비율은 14.4%였다. 현재 동호회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비율과 마찬가지로 남구와 전국 사이의 통계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문화향수 실태조사에서 나타난 향후 참여의향이 있는 동호회의 1순위는 미술 동호회로 25%를, 2순위는 영화로 20.8%를 기록했다. 남구의 경우 1순위가 영상(영화, 비디오)로 나와 전국 순위와 차이를 보인다.

[표85] 참여의향이 있는 동호회

구분	분야	비율(%)
1순위	영상(영화, 비디오)	23.9
2순위	미술(사진, 서예 등)	15.9
3순위(동률)	음악(클래식 포함) / 연극, 뮤지컬	14.7
5순위	문학(독서포함)	11.7
6순위	전통예술	9.9
7순위	역사문화유산	5.8
8순위	무용	3.4

③ 동호회 참여 제약사항

문화예술 동호회 활동에 참여시 어려운 점은 '시간부족' (46.8%), '정보 및 관심부족' (24.7%), '적절한 프로그램이 없어서' (10.9%), '비용과다' (10.8%)의 순으로 나타났다. 프로그램 수준(0.7%), 기타(2.3%), 멀거나 교통이 불편해서(3.8%)는 상대적으로 낮게 조사되었다.

[표86] 동호회 참여 제약사항

구분	참여 제한 사유	비율(%)
1순위	시간부족	46.8
2순위	정보 및 관심부족	24.7
3순위	프로그램 부재	10.9
4순위	비용과다	10.8
5순위	교통불편	3.8
6순위	프로그램 수준	0.7
7순위	기타	2.3

④ 문화예술교육 경험

학교문화예술교육을 제외한 문화예술 교육활동에 대해서는 37.7%가 참여해본 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나타났다. 참여 경험자들이 받은 문화예술교육 분야는 '문학(독서포함' (15.3%), '영상(영화, 비디오)' (14.7%), '연극, 뮤지컬' (13.3%), '미술(사진, 서예 등)' (13.0%), '음악(클래식 포함)' , '전통예술' (이상 12.1% 동률) 등으로 비교적 고르게 분포되었다. '인문학 또는 지역관련 강좌' 는 8.5%, '역사문화유산' 은 5.9%, 무용은 5.1%로 나타났다.

「2010 문화향수 실태조사」에서 문화예술교육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9.2%로 나타났다. 동호회 활동과 마찬가지로 전국 통계에 비해 남구 문화예술교육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남구의 문화예술강좌 수가 180여개로 인천의 기초지자체 가운데 가장 많은 강좌를 진행하고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또한, 일 년 단위로 기간을 특정한 문화향수실태조사와는 달리 남구문화수요조사는 기간을 설정하지 않았다는 점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여겨진다. 향후 추가적인 조사를 통해 더욱 자세한 현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지점이다.

[표87] 문화예술교육 경험

구분	분야	비율(%)
1순위	문학(독서포함)	15.3
2순위	영상(영화, 비디오)	14.7
3순위	연극, 뮤지컬	13.3
4순위	미술(사진, 서예 등)	13.0
5순위(동률)	음악(클래식 포함)/전통예술	12.1
7순위	인문학 또는 지역관련 강좌	8.5
8순위	역사문화유산	5.9
9순위	무용	5.1

⑤ 참여 의향이 있는 문화예술교육 활동

향후 문화예술 교육활동에 참여할 의사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83.5%가 참여를 희망한다고 답변했다. 가장 선호하는 분야는 '영상(영화, 비디오)' 으로 24.9%의 답변률을 보였으며, '미술(사진, 서예 등)' (22.3%)과 '연극, 뮤지컬' (22.2%)도 높은 수치로 조사되었다. '음악(클래식 포함)' (18.0%)과 '문학(독서포함)' (13.8%), '전통예술' (12.8%)과 '역사문화유산' (10.7%) 등이 뒤를 이었다. 동호회 활동을 원하는 분야와 마찬가지로 영상에 대한 선호가 이어지고 있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표88] 참여 의향이 있는 문화예술교육 활동

구분	분야	비율(%)
1순위	영상(영화, 비디오)	24.9
2순위	미술(사진, 서예 등)	22.3
3순위	연극, 뮤지컬	22.2
4순위	음악(클래식 포함)	18.0
5순위	문학(독서포함)	13.8
6순위	전통예술	12.8
7순위	역사문화유산	10.7
8순위	인문학 또는 지역관련 강좌	6.3
9순위	무용	5.8
10순위	참여의향 없음	16.5

⑥ 문화예술교육 활동 지불가능 금액

참여하고 싶은 문화예술 교육활동을 위해 한 달에 부담할 수 있는 최대 비용을 조사한 결과 '3만원 이내' (36.1%)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1만원 이내' (20.7%), '5만원 이내' (18.1%)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10만원 이내' 는 13.9%, 10만 원 이상은 1.6%로 나타났으며 지불의사가 없다는 답변은 9.5%로 나타났다.

[표89] 문화예술교육 활동 지불가능 금액

구분	지불가능 금액	비율(%)
1순위	3만원 이내	36.1
2순위	1만원 이내	20.7
3순위	5만원 이내	18.1
4순위	10만원 이내	13.9
5순위	10만원 이상	1.6
6순위	지불의사 없음	9.5

⑦ 문화예술교육 활동 투자 가능 시간

문화예술 교육활동에 할애할 수 있는 시간은 1주일에 '1~2시간' (34.1%)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2~3시간' (24.8%), '3~5시간' (21.7%)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투자의사가 없다' 는 응답은 6.1%였다.

[표90] 문화예술교육활동 투자 가능 시간

구분	투자 가능 시간	비율(%)
1순위	1~2시간	34.1
2순위	2~3시간	24.8
3순위	3~5시간	21.7
4순위	1시간 미만	8.3
5순위	5시간 이상	5.0
6순위	투자의사 없음	6.1

5. 문화의식 및 문화정책

남구 주민들의 문화의식 및 문화정책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기 위해 문화에 대한 이미지, 문화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 남구문화의 특성에 대한 인식, 남구문화 발전을 위한 방향 등을 묻고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① 문화에 대한 이미지

남구 주민들이 문화라는 말을 들었을 때 처음 떠올리는 이미지는 '대중문화, 연예' 가 26.2%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풍요로운 여가' 라고 답한 비율도 21.2%에 달해 높게 나타났으며, '음악, 미술 등 순수예술' (15.4%), '전통예술 및 문화재' (13.6%), '교양 있는 삶' (12.6%) 등이 뒤를 이었다. '생활양식 일반' (7.8%)이나 '인터넷, 스마트폰 등 뉴미디어' (2.4%) 등은 상대적으로 낮게 조사되었다.

[표91] 문화에 대한 이미지

구분	이미지	비율(%)
1순위	대중문화, 연예	26.2
2순위	풍요로운 여가	21.2
3순위	음악, 미술 등 순수예술	15.4
4순위	전통예술 및 문화재	13.6
5순위	교양 있는 삶	12.6
6순위	생활양식 일반	7.8
7순위	인터넷, 스마트폰 등 뉴미디어	2.4
8순위	기타	0.8

동별로는 '대중문화, 연예' 의 비율이 용현동에서 가장 높았고, '순수예술' 이라는 응답은 관교동이 가장 높았다. '풍요로운 여가' 라는 응답은 도화동에서, '교양 있는 삶' 이라는 응답은 주안동에서 그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표92] 동별 문화에 대한 이미지

교통	대중문화	순수예술	전통예술	생활양식	여가	교양	뉴미디어	기타	합계
숭의동	29.5%	12.0%	19.0%	8.3%	13.6%	10.3%	7.3%	0.0%	100.0%
용현동	37.7%	12.1%	9.7%	7.1%	19.1%	10.9%	1.2%	2.3%	100.0%
학익동	25.6%	20.0%	13.9%	5.9%	19.1%	11.1%	3.4%	1.0%	100.0%
도화동	27.9%	9.5%	12.5%	9.8%	26.6%	12.5%	1.0%	0.0%	100.0%
주안동	23.4%	15.5%	14.6%	7.1%	22.6%	15.1%	1.1%	0.5%	100.0%
관교동	23.3%	30.0%	6.7%	10.0%	13.3%	13.3%	3.3%	0.0%	100.0%
문학동	15.0%	20.0%	10.0%	25.0%	25.0%	0.0%	0.0%	5.0%	100.0%
평 균	26.2%	15.4%	13.6%	7.8%	21.2%	12.6%	2.4%	0.8%	100.0%

② 문화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

남구 주민들은 문화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 '정신적으로 가치 있고 보람되게 살기 위해' (46.4%), '즐겁게 여가시간을 보내기 위해'(34.6%) 등의 항목을 가장 많이 꼽았다. '교육적 효과 때문에'가 7.3%, '정체성과 전통의 계승을 위해'가 5.7%, '시각적 효과 때문에'가 3.1%로 나타났으며 '문화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음'으로 답한 응답자는 2.4%였다.

[표93] 문화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

구분	이유	비율(%)
1순위	정신적으로 가치 있고 보람되게 살기 위해	46.4
2순위	즐겁게 여가시간을 보내기 위해	34.6
3순위	교육적 효과 때문에	7.3
4순위	정체성과 전통의 계승을 위해	5.7
5순위	시각적 효과 때문에	3.1
6순위	문화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음	2.4
7순위	기타	0.5

③ 남구문화 특성에 대한 인식

남구가 가지고 있는 문화적 특징에 대한 5점척도 질문에 '구도심으로 전반적인 문화가 쇠퇴함'이라는 항목에 대한 동의가 3.34로 가장 높았다. '남구 고유의 문화가 있음' (2.80), '미래지향적인 문화에 대한 투자가 활발하다' (2.75), '문화적 다양성과 포용력을 갖춘 지역이다' (2.60), '젊은이들의 문화가 활성화된 지역이다' (2.58), '지역의 문화적 여건과 환경이 타구에 비해 양호' (2.53) 등 다른 항목들에 대해서는 대부분 동의하지 않아 전반적으로 남구 문화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94] 남구 문화 특성에 대한 인식

구분	인식내용	동의정도 (5점척도)
1순위	구도심으로 전반적인 문화가 쇠퇴함	3.34
2순위	남구 고유의 문화가 있음	2.80
3순위	미래지향적인 문화에 대한 투자가 활발함	2.75
4순위	문화적 다양성과 포용력을 갖춘 지역임	2.60
5순위	젊은이들의 문화가 활성화된 지역임	2.58
6순위	지역의 문화적 여건과 환경이 타구에 비해 양호함	2.53

'구도심으로 전반적인 문화가 쇠퇴함' 은 도화동이 3.62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남구 고유의 문화가 있음' 은 문학동이 3.30점, 관교동이 3.17점으로 다른 동에 비해 높았고, '지역의 문화적 여건과 환경이 타구에 비해 양호' , '미래지향적인 문화에 대한 투자가 활발하다' 와 '젊은이들의 문화가 활성화된 지역이다' 는 관교동이 가장 높았다. 특히 문화적 여건에 대한 점수는 관교동이 다른 동에 비해 많게는 1점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백화점, 문화센터, 문학월드컵경기장 등이 인접해 있는 관교동 주민들이 문화적 여건 및 환경에 대해 높은 점수를 준 것을 알 수 있다.

[표95] 동별 남구 문화 특성에 대한 인식

구분	고유의문화	구도심쇠퇴	미래지향적 문화투자	젊은이 문화	문화적 다양성	문화적여건
숭의동	2.74	3.49	2.52	2.28	2.23	2.09
용현동	2.86	3.19	2.85	2.78	2.65	2.64
학익동	2.65	3.40	2.55	2.33	2.50	2.30
도화동	2.73	3.62	2.67	2.35	2.35	2.26
주안동	2.78	3.34	2.80	2.67	2.67	2.65
관교동	3.17	3.30	3.13	2.93	3.17	3.40
문학동	3.30	3.30	2.85	2.80	2.95	2.65
평 균	2.80	3.34	2.75	2.58	2.60	2.53

④ 남구문화 발전을 위한 방향

남구문화의 발전을 위한 방향에 대한 질문에는 두 가지의 답변을 선택하게 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남구 주민들은 '도시경관 및 이미지 개선' (15.0%)을 가장 많이 선택했다. '문화예술 프로그램 확대' (14.0%), '새로운 문화시설 건립' (13.8%) 등도 상대적으로 높은 수치를 기록했으며 '기존 문화시설의 내실 있는 운영' (11.6%), '남구 대표 문화행사 또는 공연기획' (10.6%),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활성화' (9.9%) 등이 뒤를 이었다. '중장기적인 문화정책 수립' (5.7%)이나 '문화산업육성' (5.3%)은 상대적으로 낮게 조사되었다.

[표96] 남구 문화 발전을 위한 방안

구분	분야	비율(%)
1순위	도시경관 및 이미지 개선	15.0
2순위	문화예술 프로그램 확대	14.0
3순위	새로운 문화시설 건립	13.8
4순위	기존 문화시설의 내실 있는 운영	11.6
5순위	남구 대표 문화행사 또는 공연기획	10.6
6순위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활성화	9.9
7순위(동률)	시민문화활동의 활성화 지역문화예술인 지원 및 활성화	6.4
9순위	중장기적인 문화정책 수립	5.7
10순위	문화산업 육성	5.3
11순위	기타	1.3

제4장

정책제안 및 과제



제1절 문화기반시설 확충 및 활용

제2절 문화예술창작 및 발표활동 활성화

제3절 시민문화예술활동 활성화

제4절 후속 연구과제

제4장 정책제안 및 과제

이번 장에서는 남구의 문화지표에 대한 검토를 통해 나타난 과제 및 정책제안을 정리했다. 남구의 문화환경과 주민수요조사를 통해 현재 남구의 문화정책에서 필요한 지점들을 '문화기반시설 확충 및 활용', '문화예술창작 및 발표활동 활성화', '시민문화예술활동 활성화 등으로 제안했다.

그러나 이 정책들의 바탕이 되어야 할 것은 주민들의 문화적 인식의 변화를 위한 노력이다. 남구 주민들은 문화라는 말에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로 "대중문화, 연예 부분"을 꼽았다. 그러나 문화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의 1순위는 "정신적으로 가치 있고 보람되게 살기 위해"라고 선정했다. 얼핏 상반되어 보이는 이 결과의 간격을 좁히기 위한 노력이 정책단위에서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매스미디어의 강력한 영향력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으나, 문화가 정신적인 가치와 보람을 균형 있게 추구하는 것이라면 대중문화와 연예에 치우친 문화적 이미지를 다양한 문화적 산물과 활동들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는 남구의 문화특성에 대한 조사에서 가장 많은 응답을 기록한 '구도심으로 전반적인 문화가 쇠퇴함'이라는 결과와 남구 문화발전을 위한 첫 번째 방안이 '도시경관 및 이미지 개선'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남구가 구도심으로서 도심의 인프라가 낙후되어 있다는 것에 대해 단순히 물리적인 외형만의 개선을 요구하는 것은 자칫 뉴타운 방식의 재개발·재건축으로 수렴될 가능성이 높다. 도시의 역사와 가치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새롭게 문화적 가능성을 발굴하고 조성하는 경관과 이미지 개선방안에 대한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제1절 문화기반시설 확충 및 활용

문화기반시설은 시민들이 일상적으로 문화활동을 영위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인프라다. 문화시설을 어디에 어떻게 얼마나 배치하는가의 문제 역시 정책의 영역에서 중요한 문제일 수밖에 없다. 지역은 필연적으로 서울에 비해서 인구도 적고, 도시의 재정도 열악한데다 그간 정책우선순위도 많이 뒤로 밀려있었기에 문화기반시설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가 많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문예회관, 박물관·미술관, 공공도서관 등의 신축에 대해 제시하고 있는 확충기준에 맞추어 현재 남구의 문화시설 현황을 표현하면 아래의 표와 같다. 문예회관의 경우 2011년까지 광역 및 기초지자체별 1개관 건립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박물관·미술관은 2012년까지 900관(인구 5.3만 명당 1개관)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 공공도서관의 경우 2013년까지 900개관, 봉사대상 인구 5만 명당 1관 수준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을 세우고 있다.

[표97] 문화시설 확충 기준 및 현재 건립율

구분	확충기준	현재시설수	목표시설수	필요시설수	현재건립율
문예회관	기초지자체당 1개관	1관(인천문화회관)	1관	·	100%
박물관 · 미술관	인구 5.3만 명당 1개관	4관	8관	4관	50%
공공도서관	인구 5만명당 1개관	7관	8관	1관	88%

위에 제시된 '현재시설수' 에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소관하고 있는 문화시설만이 포함되어있다. 그 외 등록되지 않은 공연장이나 전시시설, 여러 도서관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수치만을 가지고 문화시설의 확충목표를 세우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다만, 가장 기본적인 문화시설의 확충기준이기 때문에 이 최소한의 기준을 중심으로 문화기반시설을 확충해나가는 것과 동시에 지역의 현실과 특성을 반영한 문화시설 확충방안이 필요하다. 특히 남구의 경우는 예술영화 전용관인 '영화공간 주안', 공공미디어센터인 '주안영상미디어센터' 등 특성화된 문화시설들이 운영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공간의 운영 및 위치 등을 감안하여 향후 문화시설 확충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① 공공도서관

문화체육관광부의 기준으로 기초자자체당 1개관으로 정해져 있는 문예회관을 제외하면, 현재 남구에서 가장 건립 운영률이 높은 시설은 공공도서관이다. 여기에는 작은도서관(어린이도서관) 수까지 모두 합쳐져 있어 남구는 인천의 자치구 중 도서관 수가 가장 많은 지역으로 드러나 있다. 그러나 이는 남구에 도서관이 가장 많다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구의 도서관 수에는 작은도서관(어린이도서관)이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더욱이 작은도서관(어린이도서관)까지 합산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좌석 수나 도서자료 수 등을 살펴보면 다른 구에 비해 부족한 수준이고 도서관 수에 비해 사서의 수도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점은 도서관 운영상의 열악함을 잘 보여준다. 작은도서관(어린이도서관)이 생활권역 내에 더 많이 생기는 것은 정책의 효과와 연동해 볼 때 바람직한 일이다. 다만, 작은도서관(어린이도서관)정책이 도서관 서비스의 질 하락으로 이어지는 것은 곤란한 만큼, 충분한 장서수의 확보와 전문 인력의 충원이 필요하다 하겠다. 도서관의 분포를 남구의 각 동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도화동과 주안동에는 각각 3개씩의 도서관이 있고 숭의동, 용현동, 학익동, 관교동에도 1개씩의 도서관이 있다. 문학동에는 도서관이 없었다.

[표98] 동별 도서관 1개소당 인구

구분	도서관 수(개소)	도서관 1개소당 인구(명)
숭의동	1	40,239
용현동	1	85,637
학익동	1	57,244
도화동	3	15,383
주안동	3	54,300
관교동	1	18,347
문학동	0	0

도서관은 삶의 질을 드러내는 중요한 지표가 된지 오래다. 도서관은 단순히 책을 읽는 공간이 아니라 다양한 문화적 활동들이 기획되고 벌어지는 복합문화공간이 되어가고 있다. 나아가 지역사회의 각종 모임들이 활성화되는 공동체의 거점이기도 하다. 생활권역 내에서 이러한 문화적 활동들이 가능할 수 있도록 문학동에 대한 도서관 확충을 도모하는 한편으로 1개소 당 인구가 높게 나타나는 지역들에 대해서도 규모의 확충이나 신규도서관 정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② 공연장

남구의 등록공연장은 모두 4곳이다. 이는 인천 내 자치구 중에서 중구, 남동구, 서구 다음으로 많은 숫자다. 그러나 단순 숫자가 아닌 인구 천 명당 객석 수를 따져보면 2석에 불과해 규모 면에서 열악함을 드러낸다.

공연장 현황을 인구 천 명당 좌석수로 환산해 동별로 분류해 보면 다음과 같다.

[표99] 동별 공연장 수 및 좌석 수

구분	공연장 수(개소)	좌석 수(석)	공연장 1개소당 인구(명)	인구 천명당 좌석 수(석)
숭의동	3	363	13,413	9
용현동	3	400	28,546	5
학익동	–	–	–	
도화동	2	–	23,074	–
주안동	3	480	54,300	3
관교동	–	–	–	
문학동	3	96	5,311	6

※ 야외공연장 좌석 수 및 이동식 좌석 불포함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이 인접해 있는 관교동과 공연장이 아예 없는 학익동에 대해서는 정책적 고려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공연장이 있는 경우라도 주안동이나 용현동의 경우 인구 천 명당 좌석수가 3석과 5석에 불과해 규모의 확충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공연장의 경우 지역별 분포 확인을 통한 시설확충 정책 뿐 아니라 관객들을 공연장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별도의 전략이 필요해 보인다. 2010 남구문화수요조사에서 이용경험이 있는 문화시설에 대한 질문에 공연장을 선정한 이는 그리 많지 않았다. 인천문화회관을 꼽은 이들이 7%였고, 소공연장을 꼽은 이들이 3.1%에 그쳤다. 시설확충의 근본적인 목적이 문화예술을 활성화하고 향수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이라는 점을 환기해보면, 공연장의 경우는 시설 확충보다는 공연예술 콘텐츠의 확보와 이를 통한 기존 공연장의 가동률 향상, 홍보 강화를 통한 이용률 확대에 관한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③ 전시시설

전시시설은 박물관 · 미술관 뿐 아니라 일반 갤러리도 포함시켜 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동별로 전시시설 수가 가장 많은 곳은 5곳을 보유한 주안동이었고, 도화동의 경우는 전시시설이 하나도 없었다. 이 역시도 단순 숫자가 아닌 시설별 인구를 집계해 보면 아래의 표와 같다

[표100] 동별 전시시설 1개소 당 인구

구분	전시시설 수(개소)	전시시설 1개소당 인구(명)
숭의동	2	20,120
용현동	1	85,637
학익동	1	57,244
도화동	0	–
주안동	5	32,580
관교동	1	18,347
문학동	2	7,968

주안동의 경우 전시시설이 가장 많았지만, 인구비례로 살펴볼 때 다른 동에 비해 충분한 시설이 확보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수준이었다. 지역별로 전시시설을 확충한다면 전시시설이 전혀 없는 도화동이 우선고려 대상일 것이고 전시시설 당 인구가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된 용현동과 학익동이 그 뒤를 이을 것이다.

인천광역시 내 타 군구와 비교했을 때 남구의 문화시설이 부족하다고 할 수는 없다. 시설이용 경

험 역시 64.6%로 낮지 않게 나타났다. 그러나 이 결과는 기간을 한정하지 않은 것이므로 실제 활용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시설 이용과 관련해서는 문화시설 이용 시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사항에 대한 질문에서 '프로그램의 수준'(36.7%)과 '교통 및 시간의 편의성'(34.5%)을 꼽은 것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이는 시설 이용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프로그램의 내용을 내실화하는 것이 가장 필요함을 보여준다. 이를 위해서는 시설 종사자들의 전문성 함양을 위한 별도의 투자와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물론 시설의 절대적인 수가 부족하고 문화시설 종류에 따라 동별 불균형이 존재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균형적인 확충을 추진해나가야 할 필요는 분명하다. 시설에 대한 접근성이라는 측면에서 물리적 개선의 수요 역시 현저하다. 다만, 앞서 인문사회환경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남구는 인구밀도, 도로, 특히 재정 면에서 타 군구에 비해 매우 열악한 실정이기 때문에 시설의 건립, 확충과 같은 대규모 예산이 필요한 사업은 장기계획으로 수립하고 시설 운영을 내실화 하는 목표를 지속적으로 수립해야 할 필요가 있다.

시설확충이라는 장기적 목표 외에 공간의 활용을 효율화하기 위해 생활권역 내의 시설운영에 내실을 기하는 전략이 병행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정보접근에 한계를 느끼는 주민들을 위한 계층별, 연령대별 홍보 전략도 뒤따라야 할 것이다. 기존 시설들의 콘텐츠와 전문성 확충을 통해 운영기반을 공고히 하고 공간 이용률 및 활용을 위한 시설 홍보 등 정보전달체계 개선방안이 필요하다.

제2절 문화예술창작 및 발표활동 활성화

남구의 문화예술창작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우선 예술인들에 대한 정확한 통계와 예술활동에 대한 근거자료들을 수집하는 일이 우선되어야 한다. 일단 남구의 예술인 숫자는 아래와 같다.

[표101] 남구 문화예술인 현황

구 분	문화예술인 수(명)
문 학	48
공 연 예 술	22
시 각 예 술	27
전 통 예 술	14
영 상 / 미 디 어	2
다 원 예 술	5
기 타	5
합 계	123

남구청에서 파악하고 있는 남구의 문화예술인 수는 모두 123명이다. 영상/미디어와 다원예술분야의 작품창작 및 발표는 별도 통계가 없으므로 이를 제외하고 분야별로 창작활동의 횟수를 뽑으면 아래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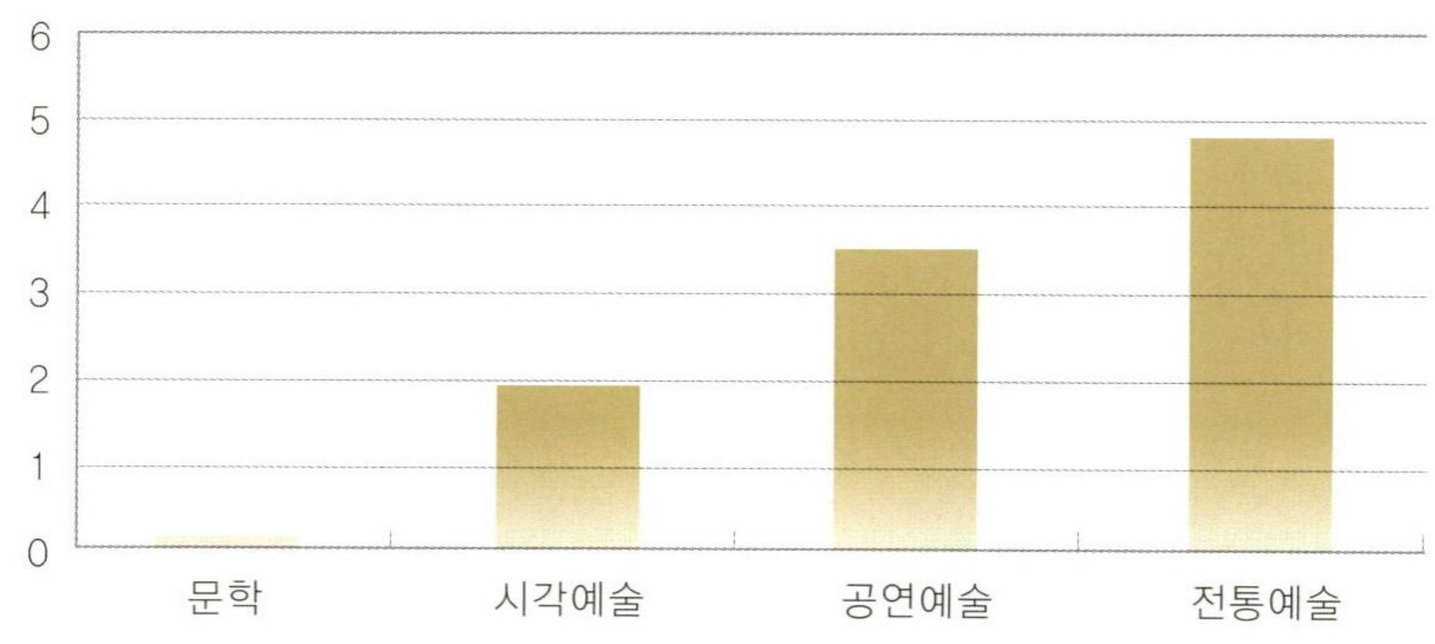
[표102] 남구 문화예술인 활동 현황

구분	공연예술	문학	시각예술	전통예술	합계
창작활동 수/비율	78	4	54	68	204
	38.2%	1.9%	26.4%	33.3%	99.8%

문학분야의 경우 문화예술인 비율은 48명으로 전체 문화예술인 중 40%에 육박하는 비중을 차지하지만, 작품발표를 통한 활동비율은 4회(1.9%)에 머물고 있다. 사실 문학분야의 특성 상 창작활동이 발표활동이나 행사, 프로그램 등으로 연결되는 사례가 많지 않기 때문으로 볼 수 있으나, 남구 내 문학분야 문화예술인 수에 대비해 보면 문학분야의 활동이 비교적 저조하다는 사실은 분명해 보인다. 공연예술이 가장 높은 78회(38.2%)를 기록했고 전통예술(68회, 33.3%)과 시각예술(54회, 26.4%)이 그 뒤를 이었다.

예술인의 숫자와 실제 작품 창작의 관련성을 보기 위해 예술인 대비 작품 창작/발표활동 비율은 전통예술 4.9회, 공연예술 3.5회, 시각예술 2회, 문학 0.1회로 나타났다. 이를 도표로 만들면 다음과 같다. 전통예술 분야의 창작과 발표가 가장 활발한 편이고 그 뒤를 공연예술과 시각예술이 잇고 있다.

[그림 30] 문화예술인 대비 창작 및 발표활동 비율



남구에서 진행된 예술 활동이 모두 남구에 거주하는 예술인들이 진행한 것이라 보기는 어렵다. 다만, 남구에서 진행되는 예술행사와 남구에 거주하는 예술인 숫자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을 것이라고 보는 것은 자연스러운 귀결이다. 이 같은 결과를 통해 볼 때, 향후 문학 분야의 활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또한 문화수요조사 결과 남구 구민의 문화예술창작 욕구가 높게 나타난 점을 감안하여 '문화예술인-문화시설-구민' 의 연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문화예술인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눈여겨 볼 것은 남구 주민들의 동호회 활동현황과 욕구에서 문학과 시각예술분야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 두 분야가 예술인의 숫자는 많고 창작비율은 낮은 것을 감안하면 예술인과 구민을 연결해주는 매개가 더 많이 필요해 보인다. 예술인과 예술단체가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해 예술가들의 창작활동과 구민들의 창작 욕구를 동시에 충족시키는 것을 통해 지역문화 활성화를 유도해야 할 것이다.

제3절 시민문화예술활동 활성화

2010 인천남구문화수요조사를 통해 본 남구의 시민문화예술활동은 복합적인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우선 여가생활의 경우 전국평균보다 낮은 수치로 나타났다. 주중에 예술 감상이나 창작활동을 한다는 응답은 4.3%였으며 주말에는 5.8%로 조사되었다.

① 문화예술관련 동호회 지원 강화

문화예술관련 동호회에 참여중이라고 답한 남구 주민의 비율은 20.2%였다. 이는 매우 파격적인 비율이다. 설문조사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남구 주민의 다섯 명 중 한명은 문화예술관련 동호회에 가입이 되어있다는 이야기다. 이 부분은 인천시 통계, 그리고 전국통계와의 격차가 상당히 크게 벌어지고 있어 향후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해 보인다. 남구청에서 현재 남구에서 운영되고 있는 동아리들을 조사한 결과 38개의 동아리가 조사되었다는 결과를 놓고 보면 추가조사의 필요성은 더욱 커진다. 물론, 이는 주민자치센터나 문화원, 복지관 등 주로 시설과 연계되어 있는 동아리들의 숫자를 나타낸 것이어서 전체적인 경향을 모두 포괄한다고 보기에는 어렵다는 점은 밝혀두어야 할 것이다.

이는 문화예술교육 경험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났다. 38%라는 문화예술교육 참여 경험 비율은 「2010 문화향수 실태조사」에서 문화예술교육 경험이 있다는 응답 9.2%에 비하면 세 배 이상 높은 것이다. 물론, 기간을 한정하지 않은 조사결과이기는 하지만, 이는 한편으로 남구의 문화예

술강좌 수가 180여개로 인천의 기초지자체 가운데 가장 많은 강좌를 진행하고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물론, 문화예술교육과 관련해서도 향후 추가적인 조사를 통한 정확한 실태확인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남구의 시민문화예술활동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선 문화예술 관련 동호회와 문화예술교육 분야에 대한 더 자세한 조사를 통해 구체적인 계획을 입안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일단 이번 조사를 통해 드러난 주민들의 의견을 보자면 영상문화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의 필요성과, 연령 혹은 계층별 맞춤형 프로그램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성급하게 동아리를 육성한다고 현금 지원의 비율을 높이거나 단시간 조직을 위한 인위적인 과정을 밟는 것은 바람직한 정책방향으로 보기 어렵다. 차분히 주민들의 필요와 욕구를 확인하는 동시에 동호회 · 동아리 활동이 자연스레 정착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일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연습실을 비롯하여 동호회 모임을 진행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 일, 함께 연습해 온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발표기회의 제공, 활동에 필요한 기자재 대여 등 간접적 지원방식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② 영상문화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도입

영화와 비디오 등을 포함한 영상 관련 활동은 향후 참여 의향이 있는 문화예술교육 활동(24.9%)에서도 1위를 차지했고, 참여 의향 동호회를 묻는 질문에서도 23.9%로 1위를 기록했다. 심지어 남구에서 개최되었으면 하는 지역축제의 유형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도 '영화, 영상 등을 연계한 미디어 축제' 를 선택한 비율이 28.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 같은 현상은 전통적인 예술장르에서 디지털화된 영상장르로 향유자들의 수요가 빠르게 옮겨가고 있는 현실을 보여준다. 동시에 남구가 주안영상미디어센터를 중심으로 그 동안 펼쳐왔던 각종 미디어 사업과 남구학산문화원이 특성화사업으로 추진했던 하품영화제, 주안미디어문화축전 등의 행사의 효과가 간접적으로 표현된 것으로도 생각할 수 있다.

남구는 영화공간주안, 주안영상미디어센터, 남구청소년미디어센터 등 영상 미디어 관련 인프라가 타 지역에 비해 강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 시설들은 대개 주안역 근처에 집중되어 있는 편이어서 생활권역 내의 교육에는 일정 부분 한계가 있다. 따라서 우선 각 동별 문화예술교육거점들을 통한 미디어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현재와 같이 주안동에 미디어 교육이 몰려있는 형태가 아니라 생활권역 내에서 미디어 교육을 접할 수 있는 시스템과 프로그램이 신설될 필요가 있다.

③ 연령대/계층별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현대인의 생활특성상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으나 여가시간 확보와 문화예술 활동 전반에 걸쳐 '시간이 없다' 는 응답이 문화예술활동의 제한요인으로 많이 제기되고 있다. 사회 전체의 시스템이나 인식의 개선을 통해 점진적으로 바꾸어내야 할 사항이기도 하지만, 현재의 시스템 하에서 개선할 수 있는 부분들을 놓쳐서도 안 될 것이다. 예를 들면, 자기계발과 문화예술, 혹은 인문학에 대한 욕구가 있는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한 강좌프로그램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주민이나 주부들을 위한 계층별 특성화된 프로그램들을 만들 수도 있을 것이고, 한편으로는 청년이나 노인을 위한 세대별 프로그램을 기획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각 세대별 계층별 욕구와 필요에 대한 별도의 조사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기초설문, 혹은 연구를 통해 욕구들이 확인되면 시범 프로그램을 통해 가능성을 점검하고 실제 사업의 실행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밟으면 실패 확률을 줄이고 지역주민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제4절 후속 연구과제

① 권역별 특성 분석

본 연구에서는 권역별 조사결과를 분석하려 했으나 전체적인 자료의 미비와 연구조건의 한계로 인해 진행하지 못했다. 같은 행정구역 안에서도 생활권의 유사한 특성들이 묶일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체계화시킨다면 지표의 더 구체적인 지점들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향후 남구에서 보다 체계적인 문화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동 구분을 넘어선 지역별 특성에 따른 권역별 분석과 그에 따른 개선 · 보완점들이 도출될 필요가 있다.

② 문화지표의 정기 연구

이번 연구는 남구학산문화원이 진행하였다. 그러나 지자체의 정책방향 수립을 위한 연구는 남구에서 정책과제로 삼아 진행할 필요가 있다. 현재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는 2년마다 문화향수 실태조사를, 3년마다 문화예술인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매해 문화기반시설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남구에서 정기적인 문화지표 조사연구가 진행된다면 남구 문화정책을 펼치는 데 구체적이고 실증적인 자료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한 진전된 주민 조사에 응용 여지도 충분하다. 일례로 남구의 창조도시 정책이 미디어 축제와 어떻게 연계되는지, 주민들의 미디어에 대한 이해 정도는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연구에서는 인문사회환경과 문화환경, 문화자원, 문화활동, 문화수요의 5개 영역으로 문화지표 항목을 구분하여 진행하였다. 향후 연구에서는 이 5개 지표에 대한 통합지수 개발 등 이번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한 진전된 연구가 가능할 것이다.

③ 동호회 활동/문화예술교육에 대한 후속 조사

이번 연구의 문화수요 조사에서는 유독 문화예술 동호회와 문화예술교육의 경험치가 높게 나타났다. 인천문화지표나 전국단위 조사와 비교해 볼 때 3배에서 10배에 가까운 결과다. 남구의 문화예술강좌 수는 180여개로 인천의 기초지자체 가운데 가장 많다. 이는 문화예술교육 활동비율이 38%에 이르는 높은 수치에 어떻게든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문화예술교육의 기간을 한정하지 않아 나타나는 수치상의 착오일 가능성도 없지 않다. 20%가 넘게 나타난 문화예술 동호회 참여비율 역시 마찬가지다. 남구에서 문화예술교육과 문화예술 동호회 활동의 활성화를 위해서 두 분야에 대한 구체적이고 정밀한 조사가 필요하다.

부 록



〈부록 1〉 남구 문화시설 목록

〈부록 2〉 남구 이야기자원 내용

〈부록 3〉 남구 시민문화수요조사 설문지

〈부록 1〉 남구 문화시설 목록

구분		시설명	주소
도서관	1	관교어린이도서관	남구 인하로 452 3층
	2	독정골어린이도서관	남구 용현동 인주대로 171번길 1
	3	숭의어린이도서관	남구 참외전로 304
	4	쑥골어린이도서관	남구 염전로 202번길 49
	5	인천광역시립수봉도서관	남구 도화동 597-126
	6	학나래도서관	남구 학익2동
	7	주안도서관	남구 석바위공원길 105
공연 시설	1	국악회관	남구 수봉안길 78
	2	미추홀종합사회복지관	남구 염창로 97
	3	시민교육연극센터	남구 인하로 77번길 42
	4	인천문화회관 소극장	남구 수봉안길 78
	5	인천음악문화원	남구 경인로 391
	6	인하대학교 5남소강당	남구 소성로 31
	7	작은극장 돌체	남구 매소홀로 573
	8	컬쳐팩토리 공연장	남구 미추홀대로 716
	9	학산소극장	남구 인하로 126
	10	도화문화회관	남구 도화동 119-17
	11	수봉민속놀이마당	남구 숭의동 8-7
	12	수봉공원 인공폭포 야외공연장	남구 도화동 597-126
	13	인천도호부청사 앞마당	남구 매소홀로 589
	14	인천문학경기장 야외무대	남구 매소홀로 618
전시 시설	1	송암미술관	남구 아암5길 35
	2	국제성서박물관	남구 경인로 349번길 9 주안감리교회 내
	3	불교사리박물관	남구 햇골길 37 서광사 내
	4	인천어린이박물관	남구 경원대로 597 문학경기장 내
	5	인하대학교박물관	남구 소성로 31
	6	범패박물관	남구 경인로 70번길 11-3
	7	노 갤러리	남구 문학동 매소홀로 514번길 14 301호
	8	성서박물관 전시실	남구 경인로 349번길 9 주안감리교회 내
	9	인천신세계갤러리	남구 연남로 35 신세계백화점 내
	10	인천문화회관 전시실	남구 수봉안길 78
	11	모아아트홀	남구 경인로 406
	12	혜원갤러리	남구 미추홀대로 634
미디어관련 시설	1	주안영상미디어센터	남구 주안1동 232-3 5층
	2	영화공간 주안	남구 주안1동 166-1 7층
	3	남구청소년미디어센터	남구 주안1동 232-3
	4	인천 알리앙스프랑세즈	남구 주안1동 232-3 1층
문화원	1	남구 학산문화원	남구 주안1동 232-3 4층

〈부록 2〉 남구 이야기자원 내용

※인천시 자료참고

1. 문학산 사모지 고개 / 술바위와 갑옷바위 전설

문학산 봉우리와 노적봉 봉우리 사이에 관교동에서 청학동으로 넘어가는 긴 고갯길이 있는데 이 길을 사모지고개(삼호현, 함호재고재, 삼해주현, 사모현)라 부른다. 이 고개는 4세기 백제의 근초고왕 때 고구려의 고국원왕이 백제를 침공했으나 오히려 백제에 밀려 평양성에서 화살에 맞아죽고, 백제는 영토는 지켰지만 고구려와의 사이가 불편하여 중국(남조)과의 육로 교류가 봉쇄되어 새로운 해상로를 물색하다 이곳 연수구 아래 한나루(나진항)을 택하게 된다.

서울에서 내려오는 사신과 가족들은 지금의 장수IC 근처 성현(현재 星峴)으로 뜻이 와전됨, 옛 이름은 이별고개 별리현이다.)에서 손을 맞잡고 이제 다녀오리다 하고 인사를 하고, 다시 이곳 삼호현(사모지고개)에서 가족들에게 3번 크게 잘 다녀오마 이별을 고하는 고개였다 한다.

백제시대에 한나루(대진항)는 국제적 항구로 많은 배가 출항을 하였다. 그러나, 고구려의 장수왕이 백제를 치고 계류왕을 죽이면서 이곳이 고구려에 함락되고, 백제의 수도가 웅진으로 내려가면서 이곳도 항구로는 잊혀지게 된다. 고구려는 중국과의 육로 교류가 활발했으므로 위험한 해상로의 이용 필요성이 없어 사신보다는 인천지역 주민의 교통로로 사랑받게 되면서 구전되는 전설 등을 많이 품게 되는데 바로 사모지 고개 양옆으로 재미나는 전설이 있는 바위가 2개 있다.

KBS 전설의 고향에 소개된 술바위와 갑옷바위 전설이다.

전설에는 꼭 금기가 있다. 전자인 술바위 전설은 3잔만 허용된다는 것이고, 후자인 갑옷바위에는 아무리 궁금해도 보려들지 말라는 것이다.

남구와 연수구를 매일 다니는 길손들은 한참동안 산을 올라오다보면 꼭 사모지고개에 이르러 한 쪽 바위에 걸터앉아 쉬어가게 되는데 이때 선녀보다 더 예쁜 처자가 바위구멍에서 나와 술을 한 잔 권하며 따라준다. 한잔 더 줄 수도 있다, 마지막 3잔까지는 줄 수 있다. 하지만 3잔 이상을 요구하면 큰일이 나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3잔 이상을 청한 적이 없다. 그러던 어느 날, 도를 닦는 스님이 이곳을 지나가면서 매번 그러했듯이 예쁜 처녀가 따라주는 술 3잔을 마셨다. 그런데 오늘은 왠지 1잔만 더 먹고 싶어서 금기인줄 알면서도 스님은 끝내 처녀에게 1잔을 더 달라 간청을 했다. 그러자 그 예쁜 처녀는 술이 나오는 바위구멍 속으로 들어가 버렸고, 스님은 못내 아쉬워 바위구멍에 목을 길게 빼고 양손을 바위에 대고 무릎을 꿇고 아무리 애타게 불러도 처녀는 구멍 속에서 나오질 않았다.

욕심 많은 한 사람 때문에 술을 가득 담고 있던 술바위는 더 이상 길손들을 반갑게 맞아주는 영물이 아니며 그저 큰 바위에 지나지 않게 되었다. 술바위를 자세히 살펴보니 지금도 그때 손자국과 발자국이 그대로 새겨져 있다. 그래서인지 술바위는 일명 중바위라 불려지기도 한다.

사모지 고개를 사이에 두고 술 바위 맞은편에는 갑옷바위가 있다. 옛날 어떤 장군이 인천에 난리가 나면 이곳을 구원하고자 바위 밑에 갑옷과 투구를 숨겨놓았는데 금기로서 절대 열어보지 말라고 하였다. 그러나 이곳 안관당을 지키는 당지기(일명 무당)는 호기심에 그 바위 안에 숨겨 논 장군의 갑옷을 확인하려 했고, 바위를 깨뜨리기 위해 몰래 도끼로 바위를 내리치는 순간 그만 벼락에 맞아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두고, 바위는 중간이 깨져버리면서 갑옷도 사라져버렸다 한다. 매일매일 욕심을 버리면서 살라는 옛 선조들의 가르침을 느낄 수 있다.

1-1. 사모지고개 내용 요약

남구 문학동에 있는 사모지고개에는 마치 동이처럼 꼭대기에 구멍이 움푹 들어간 바위가 있는데, 옛날 그 구멍 안에 삼해주가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이 고개를 삼해주현이라 불렀다.

그래서 이 고개를 넘어가는 사람들이 고개를 오르느라 숨이 차고 목이 마르면, 그 술을 떠 마셔 갈증을 풀었다고 한다. 그런데 그 술은 단 한 잔만 마셔야 되는 것인데도 언젠가 한 사람이 욕심을 부려 한꺼번에 석 잔이나 마셔 버리는 바람에 그만 술이 말라 없어졌다는 것이다.

또한 문학산에는 갑옷바위라 불리는 바위가 있는데, 그 바위 둘레에 큰 금이 나 있어 뚜껑을 닫아 놓은 석함 모양을 하고 있었다. 전하는 말에 따르면, 옛날 어느 장수가 이 바위에 석함을 파고 자기의 갑옷과 투구를 감춘 다음 뚜껑바위를 덮어 놓았는데, 그 뒤 이 바위를 건드리는 사람은 벼락에 맞아 죽었다.

언젠가 문학산 안관당의 당지기가 정말 바위 속에 갑옷이 들어 있는지 확인하려고 바위 밑둥을 망치로 깨뜨리기 시작했더니, 벼락이 내려쳐 그만 혼비백산해 도망치고 말았다. 지금 바위 아래쪽이 떨어져나간 것은 그 때문이라고 한다.

2. 헛수고로 돌아간 산신 우물가의 백일기도

수채골은 옛 문학초등학교 교장 사택 뒷산 작은 골짜기를 말하는데 이곳에 우물이 하나 있었다. 이 우물을 사람들은 '산신(産神) 우물' 이라는 이름 그대로 아기를 얻을 수 있다고 해서 붙은 이름이었다. 이 우물가에서 치성을 다해 백일기도를 드리면 태기가 없던 사람도 아기를 가질 수 있기 때문이었다.

이 우물에 얽힌 이야기는 이렇다.

어느 마을에 아이를 가지지 못한 한 부부가 살고 있었다. 이들 부부는 세상 아무런 부러울 것도, 걱정할 것도 없었다. 있다면 오직 한 가지 아이가 없는 것이 근심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부부는 이 수채골 산신 우물에 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여보, 수채골 산신 우물 이야기 들었어요? 정성으로 백일기도를 드리면 삼신할머니께서 아기를 점지해 주신다는군요. 우리처럼 아이가 없던 부부가 여럿이나 치성을 드리고 옥동자를 얻었다고 합니다."

"아니, 그게 정말이요? 이보다 더 반가운 이야기가 어디 있겠소? 귀가 다 번쩍 팁니다. 어서 당장 내일부터 치성을 드립시다."

두 부부는 산신 우물의 내력을 듣고는 당장 그 다음날 밤 자정부터 목욕재계를 하고는 우물가에서 삼신할머니께 치성을 드리기 시작했다.

그렇게 매일 밤 지극한 정성을 다한 끝에 드디어 백 일째가 되는 날이었다. 새벽이 되어 두 부부는 기도를 마치고 골짜기를 내려와 부지런히 집으로 향했다.

두 부부는 이제 산신의 영험을 받아 아기를 낳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 때문에 크게 기쁨에 부풀었고 발걸음도 날아갈 듯 가벼웠다.

"자, 어서 집으로 갑시다. 산신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틀림없이 들어 주실 거요."

"아무럼요. 틀림없이 옥동자를 점지해 주실 것입니다."

두 사람은 억누를 수 없는 흥분 때문에 이렇게 서로 소리 내어 말하고 싶었지만 꾹 참고 입을 다물었다. 쓸데없는 입놀림이 어쩐지 산신님의 영험을 가시게 할 것만 같았기 때문이었다. 부부는 경건하고 조심스러운 몸가짐으로 골짜기를 내려왔다.

그런데 두 부부는 그때 우연히 동네 아낙을 만나게 되었다. 아낙은 아침밥을 짓기 위해 우물로 물을 길러 가는 길이었다.

"어머나, 이게 누구세요. 아니, 이 신 새벽에 어디들 다녀오십니까?"

뜻밖에도 그 새벽에 동네 아낙이 나타나 인사를 하며 말을 걸어오는 데 대해 두 부부는 당황했다. 부부끼리도 말을 아끼고 입을 다물었는데 난데없이 이렇게 생각하지도 않던 사람이 말을 걸어오는 것이 아닌가. 그것도 하필이면 여자가.

그러나 두 부부는 여기서 이러니저러니 말대답을 하는 것은 틀림없이 백일기도의 효험을 없애는 부정한 결과가 될 것 같아 전전긍긍 아무 대꾸도 하지 않은 채 집으로 돌아갔다. 아무런 영문을 모르는 아낙은 상대가 인사를 받지 않는 것이 몹시 민망스러워 그냥 지나가고 말았다.

그리고 열 달이 지나 참으로 뜻밖의 일이 일어나고 말았다. 백일 동안이나 온갖 정성을 드려 치성을 한 부부에게는 끝내 태기가 없고, 그날 물을 길러 가다가 새벽에 만나 인사를 건넸던 그 아낙에게서는 떡두꺼비 같은 옥동자가 태어난 것이다. 이 소식을 들은 마을 사람들은 모두 백일기도의 치성이 그 아낙에게 옮아갔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 전설은 우리 전래의 자식에 관한 조상들의 사상을 보여 준다. 자식은 대를 잇기 위해 반드시 있어야 하며 자식을 얻는 일은 몸과 마음을 경건히 하고 하늘의 뜻(산신)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사람의 팔자와 관계된다는 것이다. 오늘날의 생각으로는 다소 거리가 있지만 곰곰이 뜯어 볼 내용도 있다고 할 것이다.

또 한 가지 '수채골' 은 그 발음으로 보아 '수태골' 이 아니었나 하는 점이다. 수태는 '수태(受胎)', 즉 여자가 아기를 가진다는 의미인데 이것이 우리 국어의 발음 현상인 구개음화로 인해 'ㅌ' 이 'ㅊ' 으로 변한 것으로 보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골짜기의 전설과 훨씬 부합되기 때문이다.

3. 존장의 사과를 받은 여섯 살짜리 제운 선생

남구 학익동은 예로부터 제운리라는 이름으로도 불리었는데 그것은 조선 숙종 때 교육자로서, 또 효행자로서 높이 칭송을 받는 이세주가 이곳 학익동에서 태어났고 그의 아호가 제운이었기 때문이다. 이세주는 부평 이씨지만 그의 명성이 너무 유명해서 아호가 곧 본관처럼 쓰일 정도였다. 심지어 이 마을에 살고 있는 부평 이씨를 제운 이씨라고까지 부르기도 했다.

이세주가 겨우 여섯 살이던 어느 날의 일이었다. 외삼촌의 존장되는 어른이 이세주가 있는 자리에서 아버지 이진재의 이름을 함부로 불렀다. 그러자 이세주는 울면서 그 자리를 물러나왔다.

"아니, 세주야, 너 무슨 일로 우느냐? 무슨 일인데 사내아이가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눈물을 보이는 것이냐?"

세주의 눈물을 본 집안의 한 어른이 무슨 일인가 하여 물었다.

"다른 일이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 어른의 함자(銜字, 이름)는 함부로 입에 올리지 않는 것이온데, 존장 어른께서는 아버님의 함자를 바로 제 앞에서 마구 부르시니 몸 둘 바를 몰라서 그러한 것입니다."

"어허, 어린 네가 진정 예를 아는구나."

그리고 나서 세주는 다시 그 존장에게 가지 않았다.

당시는 웃어른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는 것이 예법이었다. 그것은 특히 유학을 숭상하는 선비의 집안에서는 더욱 엄격히 지켜야 할 규칙이었다. 불과 여섯 살짜리 소년 이세주가 그것을 지킨 것

이었다.

이러한 이야기를 들은 그 존장은 크게 실수를 뉘우치고 어린 세주에게 찾아와 사과했다.

"오, 이런 내가 네게 큰 허물을 면치 못하게 되었구나. 다시는 내 그리하지 않을 터인즉, 어서 노여움을 풀어라. 그리고 원컨대 훗날 반드시 대성해서 이 나라의 큰 선비가 되어라."

이 사실이 이웃에 알려지자 모두 혀를 내두르며 감탄해 마지않았다.

그는 유년 시절부터 언제나 즐겁게 웃고 재롱을 부리면서 부모의 마음을 언짢게 하거나 하는 일이 없었다. 아우나 누이에게 또한 지극한 사랑을 베풀어 혹 어쩌다 병이라도 앓게 되면 이만저만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이 아니었다.

한번은 어머니가 학질을 앓았다. 어머니를 진맥한 한의는, "다른 약도 약이지만 백일 동안 매일 같이 참새를 5, 6마리씩 먹어야 낳을 것이오."

"그렇다면 참새를 잡는 일은 내가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어린 세주는 그날부터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마다하지 않고 하루도 빠짐없이 참새를 잡아 어머니가 잡숫게 했다는 것이다. 그의 효성은 이것뿐이 아니었다. 얼마나 극진했던지 어머니가 거처하시는 방은 반드시 자신이 불을 지펴 따듯하게 했고 비록 가세는 가난했으나 부모 봉양에 조금도 빠진 것이 없도록 했다.

겨울에는 어머니의 잠옷을 미리 입어 따듯하게 한 뒤 입으시도록 했고, 여름에는 잠시도 곁을 떠나지 않고 부채질을 해 드렸다. 어머니가 84세의 고령으로 병세가 위중해지자 밤에도 허리띠를 풀지 않고 간호하며 심지어 어머니의 변을 맛보아 병세를 판별하면서까지 간호하여 세상 사람들의 흠모와 감탄을 샀다는 이야기가 전해 온다.

그는 또 훗날 늙어서 자식도 없이 일찍 과부가 된 누이동생을 위하여 자기 집 옆에 거처를 마련해 주고 직접 돌보는 한편 양자를 들여 친자식처럼 아끼고 가르치기도 했다.

후세 사람들은 이러한 제운 선생의 일생을 효행과 교육의 표본으로 삼았다.

4. 으스스한 이름의 도깨비다리

장사래말이라 불리던 숭의동은 오늘날은 전혀 알아볼 수 없이 변했지만, 1920년대 이전 낙섬 일대에 염전을 축조하며 긴 방죽을 쌓기 전까지만 해도 바닷물이 들어오는 갯가였다. 1903년 장천리라는 지명으로 바뀌었던 것을 보아도 이 지역에 사행천(蛇行川)처럼 길고 구불구불하게 흐르는 개천이 있어서 장사래말이라는 이름이 붙었다는 것이다.

장사래말은 1906년에는 여의리, 장천리, 독각리로 나누어지는데 이 독각리가 바로 오늘날 우리가 독갑다리라고 부르는 곳이다.

이 독갑다리에 대해서는 외다리를 뜻하는 '독각(獨脚)' 에서 유래했다는 등 몇 가지의 해석과 견해가 있다.

아무튼 장사래말이나 독각리 같은 명칭이 사용된 사실을 미루어 볼 때 예로부터 이곳에 개천이 흐르고 있었고 그 개천이 적어도 다리를 놓아야만 건널 수 있을 만한 크기였을 것이라는 점은 확실히 증명이 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독갑다리의 위치는 숭의동 로터리에서 음식점 평양옥이 있는 골목으로 들어가면서 만나는 지역 일대이다. 많은 수의 자동차와 공장 기계 부속품 상회들, 순대를 파는 집, 술집들이 뒤섞여 있는 골목에서 경인로로 나서는 길목 즈음이다.

'독각' 또는 '독갑' 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다. 앞에서 말한 대로 첫째는 '긴 널조각 하나로 걸쳐놓은 외나무다리' 라는 뜻의 우리말 쪽다리나 그냥 외나무다리를 말한다.

두 번째 이야기로는 옛날, 이곳이 바다와 닿아 있어 해상 거래가 쉬워 옹기장수들이 많이 모여들었는데, 여기서 독을 사고 팔 때 주고받던 '독 값' 이 '독갑' 으로 바뀌었다는 해석이다. 또는 장독과 같은 독에 흙을 채운 뒤 이를 다리 기둥으로 삼았기 때문에 생긴 이름이라는 설도 있다.

또 다른 이야기로는 이 동네 주변에 도깨비 산이라고 불리던 산이 있었기 때문에 그 밑의 다리를 도깨비다리라고 불렀고 그 다리 이름에서 동네 이름이 나왔다는 설도 있다.

일제 때 지금의 숭의공설운동장 야구장 정문 앞 도원산 밑의 옛소방서가 있던 마당에 일본인들이 운영하던 화장장이 있었고 지금 중앙여상고 자리에는 덕생원이라는 전염병 중환자 격리 병원이 있었는데 당시 번화가였던 중구, 동구 지역에서 보면 외지고 음산한 죽음의 변두리 언덕이라는 이미지가 도깨비 이야기로 발전하고 마침내 도깨비다리라는 별명이 붙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어느 쪽도 분명치는 않은데, 이 부근에 있었던 다리 때문에 생긴 이름인 것만은 분명한 것 같다. 물론 그것이 그 개천이고 그 다리였는지 모르나 60년대까지만 해도 순천병원 앞에 낙섬 쪽 바다로 흘러들어가는 제법 큰 개천이 있었고 규모는 크지 않았으나 돌다리가 하나 남아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지금은 그 개천도 복개되고 건물들이 들어서 있어 옛 모습을 알 길이 없다.

앞서 말한 여의리와 장천리, 독각리는 1914년 부천군으로 편입되면서 한데 통합되어 장의리가 되는데 이는 장천리와 여의리에서 한 글자씩을 따서 지은 이름이고, 다시 이 장의리가 광복 후인 1946년 1월 숭의동이라는 이름을 얻게 된다.

'숭의(崇義)' 는 당시 광복을 경축하면서 '옛 신령들을 숭상해 뜻을 이루자' 는 의미에서 붙인 이름이라고 한다. 말뜻은 좋은지 모르나 결국 우리 지명이 본래 가지고 있던 토속적인 정서나 의미, 그리고 나름대로의 지역 역사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억지 이름을 갖게 된 것이다.

한편 2001년에는 '한국 방문의 해' 를 맞아 향토 사학자와 주변상인들이 이곳에 독갑다리의 유래를 알리는 비석을 세우기도 했다.

5. 나라의 제사를 지내던 사라진 무인도 낙섬

해안 매립으로 생긴 남구 용현 5동, 지금은 철거된 개항 100주년 탑 부근에 작은 무인도 낙섬이 있었다. 이십여 년 전 바다를 매립하면서 섬 전체를 까뭉개 버려 흔적도 없이 사라졌지만 일제 때 염전을 조성하기 위해 쌓은 긴 제방 끝에 낙섬이 있었다. 몇몇 문헌에는 이 낙섬을 '잔나비(원숭이)섬' 이라는 뜻의 '원도(猿島)' 라고 기록하고 있다.

우리 선조들은 예로부터 명산이나 바다에서 나라와 고을의 안녕을 빌고 복을 구하는 제사를 지냈는데, 조선 시대 인천도호부에서는 원도에서 서해 바다의 신에게 제사를 지냈다고 한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서해 용왕님께 비나이다. 나라와 저희 고을이 늘 태평하게 해 주시고 풍랑과 바람을 다스리시어 백성들이 마음 놓고 편안하게 바다 일에 종사할 수 있도록 보살펴 주시옵소서."

이렇게 인천 부사가 머리를 조아리고 봄가을로 제사를 지내는 곳이 이 사라진 작은 무인도 낙섬이었다. 1861년에 제작된 『대동여지도』 에도 인천 앞바다에 원도가 표시되어 있다. 그리고 이 무렵쯤 제사가 폐지되었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자세하지 않다.

낙섬의 이름은 제사를 드리는 '납섬' 에서 유래했다는 주장도 있다. 또 잔나비를 뜻하는 우리말 '납' 으로 전해졌다가 이것이 잘못 발음된 것으로 보기도 한다. 또 그것을 한자로 표기하면서 잔나비를 뜻하는 '원도' 로 썼다고도 한다.

낙섬에는 병자호란 때 의병장 이윤생의 일화가 전해진다. 이윤생은 인천에서 대대로 살아온 부평 이씨의 후손이다. 이윤생은 어려서부터 의를 중하게 여기고 지략이 있었으며 활쏘기와 말 타기에 뛰어났다.

인조 14년(1636) 병자호란 때의 일이다. 이윤생은 의병을 모아 원도에 진을 쳤다.

"전쟁은 지형을 잘 이용하는 것이 우선이다. 강화와 남한산성을 호위하기 위해서는 이곳 원도가 가장 좋은 곳이다. 우리는 여기에 진을 친다."

이윤생의 계략은 이곳을 가로막고 있음으로 해서 청나라 군사가 왕래하는 길을 차단하려는 것이었다.

"역시 장군님 말씀대로입니다. 청나라 군대가 감히 근접을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따라 주어서 그리 된 것입니다. 더욱 철통같이 지킵시다."

이윤생이 힘을 다하여 전투를 벌였기 때문에 청나라 군대는 정말로 근접할 수가 없었다. 그러나 버티는 것도 거기까지였다. 작은 섬에 갑자기 의병을 모아 진을 친 까닭에 군비 물자가 충분할 리가 없었다. 이윤생의 군사는 화살이 다한 것이다.

한나절이 지나 이쪽의 화살이 다한 것을 눈치 챈 청군이 일제히 섬 안으로 쳐들어왔다.

"물러나지 말라. 죽음을 각오하고 싸우라."

이윤생이 큰 소리로 외치며 싸움을 독려했지만 중과부적 끝내 대부분의 의병들과 함께 이윤생도

전사하고 말았다. 이때 이윤생의 나이 34세였다.

전사 소식을 접한 부인 강씨는 곧 바다에 몸을 던져 남편의 뒤를 따랐고, 섬 안에서 요행이 살아남은 박성인이란 사람이 이윤생의 열한 살 된 아들을 거두어 길렀는데 이 아이가 뒤에 첨지중추부사라는 높은 벼슬에 오른 이정현이다.

이윤생과 강씨의 순국 사실이 조정에까지 올려지자 부인 강씨에게만 정려를 내렸다. 이윤생에게는 섬 안에서 전사한 사람이 하나 둘이 아니기 때문에 그에게만 정려를 내릴 수 없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철종 12년(1861) 마침내 그에게도 정려가 내려지고 좌승지에, 부인 강씨는 숙부인에 각각 추증되었다.

6. 문학산 안관당에 얽힌 이야기

옛날 문학산 봉화대가 있던 자리 밑에는 안관당이라는 사당이 하나 있었다. 이 안관당에는 나무로 깎아 만든 할아버지와 할머니 목조상이 모셔져 있었다.

할아버지의 상은 아주 험상한 듯 하면서도 위엄이 있고, 눈을 부라린 모습이 매우 용맹하게 보였다.

"마치 불법을 지키는 금강역사와도 비슷하게 생겼네."

"그래도 우리 마을 우리 문학산을 지켜 주는 신령님이신데."

"암, 우리 마을이 평안한 것은 다 저 두 분 할아버지, 할머니 덕분이야."

이곳 마을 사람들은 모두 두 목조상을 '안관할아버지', '안관할머니'라는 별명으로 불렀는데 그러면서도 사람들은 좀 험상궂게 생기기는 했지만 안관할아버지를 마을의 수호신으로 믿고 의지하며 떠받들었다.

매년 봄가을로 풍년을 빌고, 또 감사드리는 치성을 올리고 바다에 나가서는 풍랑을 만나지 않고 고기를 많이 잡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제사를 지냈다. 뿐만 아니라 온 마을의 태평함을 기원하는 것은 물론, 아기가 없는 사람들은 이 안관할아버지와 할머니에게 아기를 낳게 해 달라고 백일 정성을 드리곤 하는 것이다.

그런데 사모지 고개 너머 지금의 청학동에 사는 최씨 문중의 어느 부인이 이 안관 할아버지의 험상궂은 얼굴을 보고는 그만 흉을 보았다.

"흥, 이것이 다 무어람? 이상하게 생긴 목조상을 갖다 놓고 이걸 산신이라고? 다 어리석은 미신이고 우상일 뿐이야."

그 부인은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이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안관당에 와서 아기를 낳게 해 달라고 비손(두 손을 싹싹 비비면서 신에게 소원을 비는 일)하는 것을 어리석은 짓이라고 비웃고 경멸했다.

이런 일이 있고 얼마 후 그 부인이 임신을 하게 되었다. 그리고 열 달이 지나 아들을 낳았다.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 아기의 생김 생김이 바보 천치처럼 생긴 것이었다.

"필경 부정을 탄 거야."

"안관할아버지를 비웃었으니 할아버지가 노하셔서 벌을 주셨는지도 모르지."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렸다. 영락없이 아이는 안관할아버지처럼 눈을 부라리면서 마치 사람들을 쥐어박을 듯 주먹질을 해대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입으로는 연상, "씨익 씨익." 하는 이상한 소리를 내었다.

그때부터 마을 사람들은 이 아이를 보면, "어, 씨익 할 네, 가는구나." 하고 말했다. '씨익 할 네' 는 '씨익 하는 소리를 내는 사람' 이라는 뜻이었다.

안관당에는 이와 비슷한 또 다른 이야기가 전해진다. 봉화대 밑에 사당이 한 채 있는데, 그 사당 인근에는 수백 년 묵은 큰 느티나무들이 늘어서 있고 사당 안에 나무로 새겨 만들어 옷을 입힌 남녀상이 모셔져 있었다고 하며, 그 곁에는 많은 목마와 창과 칼들이 놓여 있었다고 전해진다.

또 다른 설화로는 인천 부사 김민선에 관한 이야기인데, 이 안관당이 임진왜란 때 김민선 부사의 공적을 기려 그의 혼령을 모시기 위해 지은 사당이라는 것이다. 김민선은 옛 문학산성을 수리하고 지혜와 계략으로 왜병을 물리쳤다고 한다.

사당을 짓기 전에 김민선 부사의 혼령이 가끔 이곳에 나타났기 때문에 이곳에 그의 혼령을 모셨고 그 후 병란이 있을 때마다 김부사가 목마를 타고 나타나 창과 칼로서 막았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그리고 이 사당이 보이는 곳에서 말을 타고 지나가면 말굽이 땅에 붙어 움직이지를 못했다고 하는데, 김 부사에 대한 존경을 강조하는 뜻이 아닐까 싶다.

7. 홍두깨가 팔미도에 떠오르다

흔히 '문학산의 이상한 우물' 이라고 말하는데 지금은 군사 시설이라 민간인의 출입이 허용되지 않지만 옛 문학산성 동문으로부터 서북쪽으로 약 150미터 가량 떨어진 안관당 뒷마당에 돌로 쌓아 올린 우물 하나가 있었다. 바로 이것이 몇 해 전까지도 맑은 물이 솟아 넘치던 우물이었다. 해발 180미터의 산에 이런 우물이 있다는 것 자체가 그리 흔하지 않은 일이다.

이 우물에 대해서는 이런 이야기가 전해 온다.

미추홀에 도읍을 정한 비류는 산성을 쌓는 한편 목마른 백성들을 위해 식수를 구해야 했다. 그러나 사방은 모두 바다인 데다가 근처 어디에도 시냇물 하나 흐르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식수 문제가 시급합니다. 밑으로 내려갈수록 바다의 짠물이 스며들어 먹을 수 없을 터이니, 성을 쌓는 수고와 더불어 조금 더 힘을 내어 이곳에 우물을 팝시다. 틀림없이 맑은

물이 나올 것이오."

"예. 임금님 분부대로 파겠습니다. 자, 어서들 이리 와서 우물을 파 봅시다."

백성들이 모두 달려들어 우물을 파기 시작했다. 얼마를 파 내려가니까 드디어 물이 솟아오르기 시작했다. 적은 양이 아니었다.

"물이다. 물이 나온다."

"임금님, 물의 양도 아주 풍부합니다."

"아, 드디어 물을 얻었다."

"어디 한 모금 먹어 봅시다."

그러나 물을 먹어 본 사람들은 그만 얼굴을 찌푸리며 고개를 돌리고 마는 것이었다. 바닷물보다는 덜해도 이상하게 물맛이 찝찌름한 것이다.

"어찌 된 일인가? 이 산 위에 판 우물물도 맛이 짜다니…. 하늘이 우리를 버리시는 것인가."

비류는 고민했다. 그렇게 얼마가 지나자 누군가가 또 다급하게 소리쳤다.

"우물물이 줄어든다."

"아니, 뭐라고? 우물물이 줄어들어? 참 이상한 우물이로구나."

방금 전에까지도 좀 짜기는 했어도 그렇게 풍부하던 우물물이 거의 바닥이 드러날 정도로 줄어든 것이다.

"어서 두레박을 가져다가 저 물을 길어 보아라."

신하 하나가 얼른 두레박으로 물을 길어 올렸다. 겨우 두레박 밑바닥에 한 모금 정도의 물이 담겨 있었다. 비류가 그 물을 마셔보았다. 물맛이 달랐다. 아까와는 전혀 다른, 먹을 수 있는 물이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양이었다.

"그렇구나. 우리가 우물을 너무 깊게 팠나 보다. 이 우물이 바다와 통하게 되었구나. 그래서 밀물 때는 바닷물이 밀려들어와 물이 많아지면서 맛이 짠 것이고, 썰물 때는 바닷물이 빠져나가 물이 줄면서 민물 맛이 나는 것이다. 아아, 그러나 이 우물물을 가지고 우리 전부가 어떻게 다 마신단 말인가."

누군가가 우물에 큰 홍두깨 하나를 던져 보았다. 그 홍두깨는 우물 밑으로 떠내려가 얼마 후 멀리 인천 앞바다 팔미도 근방에 떠올랐다고 한다. 정말로 이 이상한 우물의 수맥이 바다와 통해 있었던 것이다.

비류와 관련해서는 또 다른 이야기가 추측으로 남아 있는데 애초 비류가 이곳에 도읍을 정할 때 이 우물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성을 쌓았다는 이야기다.

그러나 '미추홀은 땅이 좁고 습한 데다가 바다가 가까이 있는 탓에 물맛까지 짜서 백성들이 정착하기 어려웠다' 는 기록으로 보아 비류가 인천에서 나라를 세우는 데에 실패한 결정적인 이유가 이 물 때문이었음은 분명한 듯하다.

8. 비극의 주인공 비류와 미추홀

인천을 대표하는 산이라고 한다면 문학산을 꼽아야 할 것이다.

왜냐 하면 인천에 관한 가장 오랜 역사 기록으로서, 기원 전 18년 비류가 문학산 주변을 도읍으로 했던 미추홀 왕국의 설화가 전해지기 때문이다. 비류의 이야기가 전해지는 설화는 몇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인 것은 이렇다.

고구려의 시조 주몽이 북부여로부터 난을 피해 졸본부여에 이르렀을 때였다. 주몽을 본 졸본부여 왕은 한눈에 주몽이 범상한 인물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음, 듣던 대로 인물이 출중하구나. 사위로 삼는 것이 훗날을 위해서도 좋을 것이다."

이렇게 결심한 왕은 주몽에게 말했다.

"내게는 딸만 셋이 있소. 그 중 둘째딸을 그대의 배필로 주고 싶은데, 의향이 어떠한지?"

"제가 감히 어찌 거역하겠습니까. 난을 피해 이곳에 와 보살핌을 받는 제 처지로는 실로 과분하신 분부이십니다."

주몽은 졸본부여 왕의 호의에 감사했다. 우선 자신이 안전하게 머무를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었다. 이렇게 해서 주몽은 졸본부여 왕의 둘째딸과 혼례를 치르고 사위가 되었다. 그러나 왕은 얼마 지나지 않아 죽고 말았다.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 사위인 주몽이 왕위를 계승한 것이다. 그 후 주몽은 두 아들을 낳았는데 큰아들이 바로 비류였고 작은아들이 온조였다.

여기서 잠깐 다른 기록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온다. 주몽이 졸본에 이르러 월군의 여자에게 장가를 들어 두 아들을 낳았다. 그러나 주몽은 이미 북부여에서 낳은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 아들이 찾아오자 주몽이 그를 태자로 삼은 것이다.

"형님, 아버님께서 이번에 북부여에서 온 이복형님을 태자에 책봉한 사실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온조는 아무래도 불길한 느낌이 들어 형 비류에게 물었던 것이다. 비류는 잠시 눈을 감고 생각에 잠기더니 결연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나도 밤새 생각해 보았다. 그렇다고 우리 형제가 아버님의 처사를 거역할 수는 없는 일이 아니냐?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떨까? 여기에 울적한 심정으로 남아 있느니 우리가 이곳을 떠나는 것이다. 그것이 형제간에 있을지도 모르는 큰 다툼을 피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해서 비류와 온조는 제 나라를 버리고 마침내 오간, 마려 등 열 명의 신하와 함께 남쪽으로 내려갔다. 새로운 나라를 세우기 위해 길을 떠나는 두 왕자를 많은 백성들도 따라 나섰다.

그들은 마침내 한산에 이르러 살 만한 땅을 찾아보았다. 한참을 살피던 비류는 바닷가로 가서 살 것을 결심했다. 그러나 열 명의 신하들은 비류에게 간청하기를,

"비류 왕자님, 이 하남 땅은 북쪽으로는 한강이 있고, 동쪽으로는 높은 산들이 둘러 있으며, 또 남쪽은 기름진 농토가 있습니다. 더구나 서쪽은 큰 바다가 막고 있어 적의 침입을 막아 줄 것이니 이런 좋은 곳은 더 이상 없습니다. 도읍을 여기에 정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비류는 듣지 않고 미추홀에 터를 잡은 것이다. 물론 온조는 그 말대로 하남 위례성에 도읍을 정했다. 이때가 기원 전 18년이었다.

비류의 미추홀은 땅이 습기가 많고 물이 짜서 먹을 물도 귀했고 농사도 지을 수가 없었다. 살기가 어려워지자 그를 따르던 사람들도 하나 둘 지쳐 가고 있었다. 그러자 비류는 위례성이 궁금했다.

슬그머니 위례성을 찾아가 보았다. 그러나 온조의 백성들은 편히 잘살고 있는 것이었다. 돌아온 비류는 그날 밤 깊은 고민에 빠졌다.

"아아, 내가 잘못 생각해서 많은 백성들을 힘들게 했구나. 내가 고집을 피워 이런 비극을 불렀으니 정말 부끄럽기 짝이 없다."

비류는 수치심과 괴로움 때문에 끝내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았다. 그의 백성들은 모두 위례성으로 돌아가 백제의 백성이 되고 말았다. 건국 10여 년 만의 일이었다.

〈부록 3〉 남구 주민문화수요조사 설문지

남구문화지표 수요조사

안녕하십니까?

남구학산문화원은 2003년 개원 후 지역주민과의 소통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진행해 왔습니다. 문화원은 그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남구 지역의 문화지표에 대한 수요조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본 조사는 남구 주민들의 여가생활, 문화예술행사관람, 문화시설 이용을 비롯한 문화활동 전반과 문화수요에 대한 조사입니다. 조사결과는 향후 더 나은 남구 문화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쓰일 예정입니다.

응답해주신 내용은 연구에 반영되어 남구 문화정책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귀중한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설문에 답해주신 개인정보 관련 사항은 통계법 제13조에 의거하여 대외적으로 공개되지 않으며, 오직 통계처리만을 위하여 사용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바쁘시더라도 잠시 시간을 내어 솔직하게 응답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본 조사에 대해 의문점이나 건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조사기관 : 남구학산문화원
□ 연 락 처 : 032) 866-3993~4
□ F A X : 032) 866-3971
□ 주 소 :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1동 232-3 청소년미디어센터 4층
□ 담 당 자 : 안태호 연구원

I. 여가생활

문1. 귀하께서는 여가시간을 주로 어떻게 보내십니까? 평일과 주말/휴일을 구분하여 다음 보기 중에서 3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1) 평 일 : 1순위 _____ 2순위 _____ 3순위 _____

(2) 주말/휴일 : 1순위 _____ 2순위 _____ 3순위 _____

문1-1. 그렇다면, 시간적, 경제적 여유가 생긴다면 앞으로 가장 하고 싶은 여가활동은 무엇입니까?

1순위 _____ 2순위 _____ 3순위 _____

(01) 산책 · 스포츠활동
(02) 스포츠 관람
(03) 예술감상(공연 · 전시회관람 · 영화관람 등)
(04) 예술창작(문예창작, 그림, 서예, 사진, 연주, 연기 등)
(05) 종교 활동
(06) 집에서 쉰다/낮잠
(07) 음악감상
(08) 텔레비전 보기
(09) 비디오/DVD보기
(10) 독서
(11) 인터넷, 게임
(12) 동호회, 모임참가, 친구 만나기
(13) 등산 · 낚시
(14) 여행
(15) 쇼핑 · 외식
(16) 체험활동
(17) 기타_____

문2. 귀하께서는 평소 여가시간이 어느 정도 입니까? 평일과 주말/휴일을 구분하여 하루를 기준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평일 : _____ 시간

(2) 주말/휴일 : _____ 시간

문3. 귀하께서 생각하시기에 여가 생활을 하는 데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① 시간이 부족하다 ② 경제적으로 부담이 된다

③ 갈만 한 곳이 부족하다

④ 흥미있는 프로그램이 부족하다

⑤ 정보가 부족하다

⑥ 기타(기록: _____)

II. 주거 및 생활환경

문4. 다음은 남구의 주거 및 생활환경 일반에 대한 항목입니다. 각각의 항목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만족하시는지요? 5점으로 갈수록 매우만족, 1점으로 갈수록 매우 불만족한 것을 나타냅니다.

항목	현재 만족도				
	매우불만	불만	보통	만족	매우만족
1. 범죄예방 등 치안 및 방범	①---------②---------③---------④---------⑤				
2. 보행 편리성	①---------②---------③---------④---------⑤				
3. 대중교통 이용 편리성	①---------②---------③---------④---------⑤				
4. 의료시설 이용 편리성	①---------②---------③---------④---------⑤				
5. 주차시설 및 도로소통	①---------②---------③---------④---------⑤				
6. 거리 경관 등 주변미관	①---------②---------③---------④---------⑤				
7. 조경시설 및 녹지·공원조성	①---------②---------③---------④---------⑤				
8. 주변 교육환경	①---------②---------③---------④---------⑤				
9. 문화체육시설 접근성	①---------②---------③---------④---------⑤				

문4-1. 위의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셨을 때, 남구의 주거 및 생활환경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만족하시는지요?

매우불만	불만	보통	만족	매우만족
①----------②----------③----------④----------⑤				

문5. 그렇다면, 앞으로 귀하께서 주거지를 결정할 때 다음의 항목들은 어느 정도 중요하게 고려하실건가요? 5점으로 갈수록 매우중요, 1점으로 갈수록 전혀 중요하지 않은 것을 나타냅니다.

항목	중요도				
	전혀 중요치 않음	중요치 않음	보통	중요	매우 중요
1. 범죄예방 등 치안 및 방범	①---------②---------③---------④---------⑤				
2. 보행 편리성	①---------②---------③---------④---------⑤				
3. 대중교통 이용 편리성	①---------②---------③---------④---------⑤				
4. 의료시설 이용 편리성	①---------②---------③---------④---------⑤				
5. 주차시설 및 도로소통	①---------②---------③---------④---------⑤				
6. 거리 경관 등 주변미관	①---------②---------③---------④---------⑤				
7. 조경시설 및 녹지·공원조성	①---------②---------③---------④---------⑤				
8. 주변 교육환경	①---------②---------③---------④---------⑤				
9. 문화체육시설 접근성	①---------②---------③---------④---------⑤				

Ⅲ. 문화시설 이용

문6. 귀하께서 평소 주로 이용하시는 **남구의 문화시설**은 무엇입니까?
아래 보기 중 가장 많이 이용한 것부터 3순위까지 적어주십시오. ☞**이용경험이 없을 경우, 문9로 이동**
1순위 _____ 2순위 _____ 3순위 _____

(01) 지방문화원(남구학산문화원)
(02) 예술영화상영관(영화공간 주안)
(03) 인천문화회관(수봉문화회관)
(04) 국악회관
(05) 박물관 미술관 등 전시시설
(06) 소공연장(학산소극장, 작은극장돌체 등)
(07) 미디어센터(청소년미디어센터, 주안영상미디어센터)
(08) 시민교육연극센터
(09) 사설 문화센터(대학부설, 백화점, 대형마트 등)
(10) 평생학습관(남구평생학습센터)
(11) 공공도서관(주안도서관, 학나래도서관, 어린이도서관 등)
(12) 청소년회관(문학유스센터 등)
(13) 사회복지관(노인, 아동, 여성, 장애인 등)
(14) 주민자치센터
(15) 사설 문화공간(라이브클럽, 음악다방, 대안공간 등)
(16) 기타_____

문7. 귀하께서 1순위로 이용하신 문화시설의 프로그램 및 시설, 이용시간, 교통 및 주차 항목에 각각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5점으로 갈수록 매우만족, 1점으로 갈수록 매우 불만족한 것을 나타냅니다.

항목	현재 만족도				
	매우불만	불만	보통	만족	매우만족
(1) 행사내용 및 프로그램	①---------②---------③---------④---------⑤				
(2) 교통 및 주차	①---------②---------③---------④---------⑤				
(3) 안내 및 운영	①---------②---------③---------④---------⑤				
(4) 편의, 휴게시설	①---------②---------③---------④---------⑤				
(5) 홍보	①---------②---------③---------④---------⑤				

문8. 귀하께서 남구의 문화시설을 이용할 때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① 비용의 적절성
② 프로그램(내용)의 수준
③ 출연진, 강사진의 유명도
④ 다른 사람의 평판
⑤ 교통 및 시간의 편의성
⑥ 홍보물이 눈에 익어 익숙해진 이미지
⑦ 기타(기록: _____)

문9. 귀하께서 남구의 문화시설을 이용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시간이 부족해서
② 비용이 많이 들어서
③ 멀거나 교통이 불편해서
④ 프로그램(내용)의 수준이 낮을 것 같아서
⑤ 정보와 관심이 부족해서
⑥ 적절한 프로그램이 없어서
⑦ 기타(기록: _____)

Ⅳ. 문화예술 활동

문10. 귀하께서는 평소 주로 어떤 문화예술행사를 관람하셨습니까? 아래 보기 중 가장 많이 이용한 것부터 3순위까지 말씀해 주세요.

1순위 _____ 2순위 _____ 3순위 _____

(01) 문학관련 행사
(02) 미술관 전시회
(03) 음악 공연(클래식, 오페라, 합창)
(04) 연극, 인형극, 뮤지컬 공연
(05) 무용 공연
(06) 전통예술(국악, 민속놀이)
(07) 대중문화 공연(콘서트, 마술)
(08) 예술영화
(09) 박물관 전시회
(10) 기타_____

문11. 문화예술행사는 주로 누구와 함께 참석하십니까?

① 혼자서
② 가족과 함께
③ 친구나 동료와 함께
④ 동호회 회원과 함께
⑤ 기타(기록: _____)

문 12. 문화예술행사 관람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① 자녀교육 목적
② 본인 관심분야
③ 지인의 초대나 초청
④ 여가선용이나 친목도모
⑤ 기타(기록: _____)

문13. 문화예술행사를 관람하신 곳은 주로 어느 지역입니까?

① 남구지역 **☞문14로 이동**
② 인천지역(남구제외)
③ 서울 및 부천지역
④ 경기도지역(부천제외)
⑤ 기타 지역

문13-1. 귀하가 남구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 문화행사를 주로 관람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남구에 다양한 문화행사가 없어서
② 프로그램(내용)의 수준이 낮을 것 같아서
③ 직장 등이 다른 지역에 있어서
④ 남구 문화행사가 자주 있지 않아서
⑤ 남구 문화예술행사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서
⑥ 기타(기록: _____)

문14. 남구지역에서 관람하신 문화예술행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매우불만	불만	보통	만족	매우만족
①----------②----------③----------④----------⑤				

문14-1. 남구에서 관람하신 문화예술행사에서 우선적으로 보완해야 할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작품의 질을 높여야 한다
② 관람비용을 낮춰야 한다
③ 더욱 자주 개최되어야 한다
④ 가까운 곳에서 열려야 한다
⑤ 관련 정보가 많아야 한다
⑥ 기타(기록: _____)

문15. 귀하께서 지난 1년 동안 직접 참가하거나 관람한 남구의 지역축제를 모두 골라주십시오.
관람경험이 없는 경우☞문16로 이동

(01) 미추홀문화축전 (구민의 날)
(02) 주안미디어문화축전
(03) 인천비타민연극제
(04) 주안유스필름페스티벌
(05) 인천국제 클라운마임 축제
(06) 야외문화예술공연
(07) 민속문화축제 (대보름, 추석맞이)
(08) 학골축제 등 각 동별 축제
(09) 기타_____

문15-1. 귀하께서 참가 또는 관람하신 남구의 지역축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항목	현재 만족도				
	매우불만	불만	보통	만족	매우만족
(1) 행사내용 및 프로그램	①---------②---------③---------④---------⑤				
(2) 교통 및 주차	①---------②---------③---------④---------⑤				
(3) 안내 및 운영	①---------②---------③---------④---------⑤				
(4) 편의, 휴게시설	①---------②---------③---------④---------⑤				
(5) 홍보	①---------②---------③---------④---------⑤				

문16. **(모두응답)** 귀하께서는 남구에서 어떤 축제가 열리기를 원하십니까?
① 전통, 역사, 민속을 주제로 한 축제
② 남구의 자연환경을 활용한 축제
③ 연극, 미술 등 순수예술을 주제로 한 축제
④ 지역 상권과 연계한 축제
⑤ 영화, 영상 등을 연계한 미디어 축제
⑥ 기타(기록:_____)

문17. 귀하께서는 문화예술행사에 대한 소식이나 정보를 주로 어디에서 얻습니까?
① 텔레비전, 라디오
② 신문, 잡지
③ 안내문(현수막, 간판, 지하철 광고 등)
④ 인터넷
⑤ 주변 사람
⑥ 동호회, 모임
⑦ 기타(기록:_____)

문18. 귀하께서 관람(참여)하고 싶은 문화예술행사에 지불할 수 있는 최대금액은 얼마입니까?
① 1만원 이내
② 3만원 이내
③ 5만원 이내
④ 10만원 이내
⑤ 10만원 이상
⑥ 지불의사 없음

Ⅴ. 문화예술 교육/동호회

문19. 귀하께서는 문화예술 관련 동호회에 참여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다음 중 참여하고 계신 동호회는 무엇입니까? **참여하고 있지 않은 경우 ☞문20으로 이동**

① 문학(독서포함)
② 미술(사진, 서예, 디자인, 건축 포함)
③ 음악(클래식, 오페라 포함)
④ 연극, 뮤지컬
⑤ 영상(영화,비디오의 감상/촬영 등)
⑥ 무용
⑦ 전통예술(국악, 민속놀이 등)
⑧ 역사문화유산

문19-1. 귀하께서 참여하신 동호회의 성격은 무엇입니까?

① 창작형(직접 창작 및 연주, 공연 등) ② 감상형(관람, 학습 등)

문20. 귀하께서는 앞으로 문화관련 동호회에 참여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향후 참여하시고자 하는 동호회를 모두 선택하여 주십시오. **참여의향이 없을 경우 ☞문21로 이동**

① 문학(독서포함)
② 미술(사진, 서예, 디자인, 건축 포함)
③ 음악(클래식, 오페라 포함)
④ 연극, 뮤지컬
⑤ 영상(영화,비디오의 감상/촬영 등)
⑥ 무용
⑦ 전통예술(국악, 민속놀이 등)
⑧역사문화유산

문21. 귀하께서 문화관련 동호회에 참여하시는 데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① 시간이 부족해서
② 비용이 많이 들어서
③ 멀거나 교통이 불편해서
④ 프로그램(내용)의 수준이 낮을 것 같아서
⑤ 정보와 관심이 부족해서
⑥ 적절한 프로그램이 없어서
⑦기타(기록:_____)

문22. 귀하께서는 학교교육 이외에 문화예술 교육의 강좌나 강습을 받아본 경험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경험하신 문화예술교육분야에 해당하는 항목들을 모두 골라주십시오. **문화예술교육 경험이 없는 경우 ☞문23으로 이동**

① 문학(독서포함)
② 미술(사진, 서예, 디자인, 건축 포함)
③ 음악(클래식, 오페라 포함)
④ 연극, 뮤지컬
⑤ 영상(영화,비디오의 감상/촬영 등)
⑥ 무용
⑦ 전통예술(국악, 민속놀이 등)
⑧ 역사문화유산
⑨ 인문학 또는 지역 관련 강좌

문23. 귀하께서는 앞으로 문화예술교육에 참여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향후 참여하시고자 하는 분야를 모두 선택하여 주십시오.

① 문학(독서포함)
② 미술(사진, 서예, 디자인, 건축 포함)
③ 음악(클래식, 오페라 포함)
④ 연극, 뮤지컬
⑤ 영상(영화,비디오의 감상/촬영 등)
⑥ 무용
⑦ 전통예술(국악, 민속놀이 등)
⑧ 역사문화유산
⑨ 인문학 또는 지역 관련 강좌
⑩ 참여할 의사가 없다.

문24. 귀하께서 참여하고 싶은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에 한 달에 지불할 수 있는 최대금액은 얼마입니까?

① 1만원 이
② 3만원 이내
③ 5만원 이내
④ 10만원 이내
⑤ 10만원 이상
⑥ 지불의사 없음

문25. 귀하께서 참여하고 싶은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에 투자할 수 있는 최대시간은 얼마입니까?

① 1주일에 1시간 미만
② 1주일에 1시간에서 2시간 사이
③ 1주일에 2시간에서 3시간 사이
④ 1주일에 3시에서 5시간 사이
⑤ 1주일에 5시간 이상
⑥ 투자의사 없음

Ⅵ. 문화의식 및 문화정책

문26. 귀하께서는 '문화' 라는 말을 들으면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① 대중문화, 연예
② 음악, 미술 등 순수예술
③ 전통예술 및 문화재
④ 생활양식 일반
⑤ 풍요로운 여가
⑥ 교양 있는 삶
⑦ 인터넷, 스마트폰 등 뉴미디어
⑧ 기타(기록:_____)

문27. 귀하께서는 평상시 문화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어떤 측면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즐겁게 여가시간을 보내기 위해
② 정신적으로 가치 있고 보람되게 살기 위해
③ 교육적 효과 때문에
④ 정체성과 전통의 계승을 위해
⑤ 사회적 효과 때문에
⑥ 문화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⑦ 기타(기록:_____)

문28. 남구 문화에 대해 규정한 다음 항목들에 대해 어느 정도 동의하시는지요?

번호	문항	전혀 동의하지 않음	동의하지 않음	보통임	동의함	매우 동의함
문28-1	남구 고유의 문화나 정서가 있다	①-----②-----③-----④-----⑤				
문28-2	구도심으로 전반적인 문화가 쇠퇴하고 있다	①-----②-----③-----④-----⑤				
문28-3	미디어 등 미래지향적인 문화에 대한 투자가 활발하다	①-----②-----③-----④-----⑤				
문28-4	젊은이들의 문화가 활성화된 지역이다	①-----②-----③-----④-----⑤				
문28-5	문화적 다양성과 포용력을 갖춘 지역이다	①-----②-----③-----④-----⑤				
문28-6	지역의 문화적 여건과 환경이 인천의 다른 구에 비해 높다고 생각한다	①-----②-----③-----④-----⑤				

문29. 귀하께서 생각하시기에 남구가 문화도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다음 중 무엇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2개 선택)

① 새로운 문화시설 건립
② 기존 문화시설의 내실 있는 운영
③ 시민문화활동의 활성화(동호회 등)
⑦ 도시경관 및 이미지 개선
⑧ 공연, 전시 등 문화예술 프로그램 확대
⑨ 남구 대표 문화행사 또는 공연 기획

④ 지역문화예술인 지원 및 활성화
⑤ 문화산업 육성
⑥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활성화
⑩ 중장기적인 문화정책의 수립
⑪ 기타(기록:_____)

Ⅷ. 통계분류 질문

Q1.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 ① 남성 □ ② 여성

Q2. 귀하의 연령은 어떻게 되십니까
□ ① 15세 이상 20세 미만
□ ② 20세 이상 30세 미만
□ ③ 30세 이상 40세 미만
□ ④ 40세 이상 50세 미만
□ ⑤ 50세 이상 60세 미만
□ ⑥ 60세 이상 70세 미만
□ ⑦ 70세 이상

Q3. 결혼을 하셨습니까?
□ ① 했다 □ ② 하지 않았다

Q4. 귀하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 ① 전문직(의료인, 법조인, 교사, 교수 등)
□ ② 생산직(제조업, 농어업 등 1,2차 산업 종사자)
□ ③ 사무직(공무원, 회사원, 관리업무 등)
□ ④ 판매/서비스업(상점, 영업사원, 운수업, 요식업 등 종사자)
□ ⑤ 자영업
□ ⑥ 문화예술게 종사자
□ ⑦ 주부
□ ⑧ 학생/재수생
□ ⑨ 무직
□ ⑩ 기타

Q5. 귀하의 학력은?
□ ① 중졸 이하
□ ② 고교 재학 또는 고졸
□ ③ 대학 재학 또는 대졸(초대졸 포함)
□ ④ 대학원 재학 이상

Q6. 귀댁 가족 전체의 월평균 소득은 대략 어느 정도입니까?(동거가족 기준)
□ ① 월 100만원 미만
□ ② 월 100–199만원 이하
□ ③ 월 200–299만원 이하
□ ④ 월 300–399만원 이하
□ ⑤ 월 400–499만원 이하
□ ⑥ 월 500만원 이상

Q7. 귀하의 거주지역은 어디입니까
(　　)동 (예 : 주안1동, 용현1/4동, 숭의2동 등)

Q8. 귀하의 연락처와 이메일을 기입해주시기 바랍니다.(추첨을 통해 100분께 학산소극장 초대권을 드립니다.)
□연락처 (　　) □이메일 (　　)

"설문에 응답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2010
인천남구문화지표 및 문화수요조사 연구

◇**발 행 인** 이선규

◇**발 행 일** 2010년 12월 31일

◇**발 행 처** 남구학산문화원
402-201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1동 232-3 청소년미디어센터 4층
전화 032-866-3993~4 팩스 032-866-3971
홈페이지 www.haksanculture.or.kr

◇**인 쇄** 예일문화사 T. 032-881-7171~3

수록된 내용은 필자의 견해로서 남구학산문화원의 공식적 견해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수록된 내용을 전재하거나 활용하고자 할 때에는 남구학산문화원과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남구학산문화원
www.haksanculture.or.kr